

ESG 경영을 고려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송기욱 / 김준형 / 임민정 / 박재웅 / 김정민

report

ESG 경영을 고려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관리 2024-008호

ESG 경영을 고려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지은이 송기욱, 김준형, 임민정, 박재웅, 김정민
발행인 김홍배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 소 (3404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홈페이지 <http://lhri.lh.or.kr>

전화번호 042-866-8513
이메일 skw81@lh.or.kr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SG 경영을 고려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Performance Evalu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H Social Venture Support
Program for ESG Management

송기욱·김준형·임민정·박재웅·김정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송기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김준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임민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박재웅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전)

김정민 LH 총무처 과장

연구심의위원

장인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심의위원장)

강준혁 LH 기획조정실 부장

유재관 LH 기획조정실 부장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외부필진

이승상 NH 농협리츠운용 차장(감정평가사)

■ 서론

오늘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혁신에 앞장선 소셜벤처가 신성장동력원으로 주목받으며 ESG 경영선도 관점의 민관협력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LH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온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면밀히 점검하여 개편방향 모색 대두

- 본 연구의 내용은 (1)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2) 대내외 시장환경 동향과 여건 진단, (3) LHSV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검증, (4) 가치창출형 사업모델 기본구상 및 발전방안, (5)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적 기능 확립에 토대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 본론(Ⅰ) :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첫째, 사회적 가치, 수익성을 양립한 소셜벤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상업자본 원리의 벤처기업 속성이 혼종된 중간섹터로 그간 정부 수혜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왔으나, ESG 지속가능 경영 투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공공성 강화란 큰 틀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보편 타당

- 소셜임팩트 담론의 인문학적 고찰로부터 미래 청년세대 창업지원 및 지역경제 부흥, 사회문제 해결 동참 및 혁신성장, ESG 경영과 연계한 대안적 사회공헌 사업모델 발전, 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목표 이행이란 대의적 명분하에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 배려 필요성과 LH 사업참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박민진·김태영, 2018b; 주재욱·윤종진, 2020)

■ 본론(Ⅱ) : 대내외 시장환경 동향과 여건 진단

둘째,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동향을 비추어볼 때 외부시장 환경(PEST)은 실적 호조세로 당분간 우호적 국면의 분위기가 점쳐진 가운데, 공사 내부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소 낮은 사업 매력도를 보이거나 미래 성장잠재력 풍부

-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 완전한 경기회복, 디지털 정보기술 가속화, 윤리가치 소비성향의 MZ 세대 출현, 소셜벤처 육성 장려책에 힘입어 임팩트 투자시장 활황으로 사회적 지원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무건전성 위협, ESG 경영리스크 잔존(부동산 투기, 건설안전 사고), 산발적 단위 사회공헌, 고강도 혁신안(기능분리·인력감축)에 의한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산업지형을 뒤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등극 예상

■ 본론(III) : LHSV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검증

셋째, LHSV가 운용 중인 외형적 규모 물량(기업수, 참가자, 지원금)은 단기간내 비약적 성장세를 거듭하였고, 이윤확대, 고용창출, 생존율, 투자유치 성사,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대변된 수익성·사회적 가치·혁신성 등 핵심성과지표가 양호해 소기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들여 재정지원 시기 전후로 실질기여도의 효과성 입증

- 첫 해인 2015년부터 11기수에 걸쳐 역대 누적 2,822팀이 응모해 평균 18: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022년 기준 지금까지 243팀(신규 161팀) 선발로 총 64.5억원을 지급할 만큼 청년층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꽤 높음, 이 수치는 국내 현존 사회적벤처기업(2,184팀) 개체의 11.1%를 점유해 막강한 LHSV 시장지배력 행사 실감
- LHSV 참가팀의 주된 특징은 전국 7대 광역권 도처(서울 42.9%)에서 문화·예술, 동물복지 등 23개 영역 소셜미션 수행으로 광범위하며, 대부분 업력 3년 미만 기술기반(제조·정보통신 계통) 초기 창업 스타트업(77.6%)이 많아 재정상태(자본 1.2억원, 부채비율 261.0%)·신용등급(BB+ 이하: 89.9%)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형태를 띠
- 지난 9년간 개관 이래 운용성과 결산은 매출액 195.8억원(흑자 50.7%, 증감률 2.7배), 투자유치액 124.7억원(49회), 창업가 양성 1,088명(지원금 십억원당 170여명 간접고용, 사회적경제조직 87팀 배출), 생존율 97.8%(5년차 일반창업기업 33.8%, 루트임팩트 85.2% 상회), 지식재산권 66건, 창업공간 임대료 절감액 1.2억원(무상입주 25팀), 크라우드펀딩 8.9억원 달성으로 부가가치(생산성)가 뛰어나 여타 기업군 대비 경쟁력 우위 선점 타진, 소셜벤처 활약상이 남다른 이유로는 LH의 공간·자금·컨설팅·판로개척 등 두텁고 체계적인 밀착형 지원이 기업창업과 성장에 한몫을 담당한 것이라 여겨짐

■ 본론(IV) : 가치창출형 사업모델 기본구상 및 발전방안

넷째, 당초 시점과 달라진 정부 정책기조, 대내외 환경 및 미래 사회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현 시스템 상 수혜성과가 미진한 부분 수정·보완 방향으로 LHSV 전반의 운용체계 제도 개편의 리브랜딩에 찬성, 다만 세부적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설계를 놓고 이해관계자별 뚜렷한

입장과 의식수준 차이 확인,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분야 3단계 확장과 LH 특화모델로써 ESG를 접목한 신가치창출(소셜임팩트)의 기업성과 공유·홍보확산 극대화에 차별성 강조로 집약

- 사회적경제 직군별 전문가 집단 FGI(CEO·부서장·관리자급 13명 추출)는 따뜻한 청년 창업의 대명사로 알려진 LHSV 인지도(3.31점, 61.5%)와 위상(3.31점, 84.6%)이 고평가되며, 전원에 가까운 사업취지 공감(4.38점, 92.3%)을 불러일으켜 ESG 수단(4.0점, 61.5%) 인정, IPA 기법에서도 중요도(4.54점) 및 수행성과(7.85점)가 상대적 우위를 점한 강점(H-H) 포지셔닝으로 존립유지
- 기업경기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사회공헌 예산 지출액과 팀별 지원금(2~5천만원/년, 1.4배 상향) 증액 편성 속에 창업과 성장 이후 도약기에 접어든 후속팀의 지속적인 지원이 단절되어 아쉽다는 중론을 숙고하여 종착점인 개방형 혁신분야 신설을 전제로 개혁(3.54점, 61.5%) 동조 경향
- 사업분야가 대체로 정부지원 충족요건인 업력이 짧은 예비 및 초기 창업지원에 과도하게 치우쳐 수혜기업만 양산할 뿐 정작 성과하락 부진이 두드러진 이른바 양면성(딜레마)이 발현, 이보다 LH 본업과 밀접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업력 3년차 이상 도시·주거·지역에 국한된 성장지원과 심화단계인 기업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관계의 개방형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시너지 발휘
- 이미 대기업에서는 유망 소셜벤처들과 비용 효율성, 신수종사업 발굴, 성장촉진 목적하에 더 이상 경쟁대립 구도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로 개방형 혁신이 열렬히 채택되어 눈부신 가시적 성과·업적을 일궈낸 상당수 벤치마킹형 지원프로그램들(IBK 1st Lab, LG 소셜캠퍼스, KT&G 상상스타트업캠프)이 본 주장을 경험적 지지(역설적 반증)
- LH 특화모델(가칭 소셜임팩트형)의 경우, 이웃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대응, ESG 문제해결, 로컬기반, 공간환경 개선, 혁신기술형으로 분류해 모의 적용을 시도하거나, 정부 국정과제 현안(도시재생뉴딜, 균형발전 외)과 기타 공익성을 부양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으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제안 시 심사 가산점 요소로 우대방안 검토
- 계획부터 생산, 운영·관리까지 일련 제반 프로세스 융복합 탐색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역량을 겸비한 민간 스타트업과 밀도 있는 프로젝트 공동협업(자원순환·탄소감축, 지역커뮤니티 취약계층 고용, 시민참여 활동)의 업무협약을 맺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공공조달 판로개척 지원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ESG 실천전략이

됨

-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LH 사회공헌 철학과 상징적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e.g. LH 임팩트 챌린지) 공모와 대국민 체감형 혁신BP 사례를 만들어 대외에 널리 소통·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셜벤처를 키워낸 인큐베이팅 기관을 각인시키는 친화적 계기로 분위기 쇄신 유도
- 결국 성과경로별 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연속적인 LHSV 경쟁력을 모색하려면, 기업가정신 함양 및 기술역량 고취, 투자유치, 분명한 KPI 목표치 설정, 홍보·마케팅 채널 소통 강화, 실력 있는 민간 위탁운용사 참여 보장, 특히 사업분야를 무분별한 다수 창업지원 비중을 낮춘(씨뿌리기 중지) 대신 소수 성장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분산적 집중으로 시간여유를 갖고 점진·탄력적 운용을 꾀하되, 절충점(Equilibrium)을 포착해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재조정 접근
- 이에 따라 부수적인 시행시기나 추진속도를 비롯해, 사업규모, 분야, 지원내용, 선발방식, 심사기준 등 사업구조 개편안 작업은 해당 실무부서(총무고객처, ESG전략부)와 원만히 사전협의로 의견조율 후 결정

■ 본론(V) : 사회적경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적 역할

마지막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도전 과정으로 원활하게 이어진 양질의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선순환기제 구축 및 민간주도 역동적인 혁신성장의 시장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 정립

- 소셜벤처 스타트업 주축으로 정부, 대기업, 금융·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대학 및 연구소, 재단, 학·협회 등 임팩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생태계 구성원들간 돈독한 파트너십과 유기적인 상호작용 아래 마음껏 만나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창업지원허브 플랫폼 조성의 공간제공자로서 공공의 중추적 역할 매진 전념

■ 결론 및 시사점

이렇듯 상기사항을 간추려보면, 본 과제는 LH 소셜벤처 제도 현황 및 성과평가, 전문가 인식 실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까지 총괄 집대성한 최초 실증분석 연구로써 ESG를 가미해 공사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의 미래 청사진 조망했다는데 정책적 함의(Implication) 제공

- LHSV가 연간 10억원 내외 기부금 용도로 충당되는 비주력 영업부문임을 감안 시 당장 눈부신 성과를 기대하기 무리인 듯 싶으나, 기업가치 증대와 사회후생의 가성비 면에서 대단히 유익(Beneficial)하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소모성 적자사업이란 오명을 불식

시킨 선제적인 ESG 경영투자로 이해해야 함

- 무엇보다 LH가 추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현 주소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과학적인 사후 성과측정 평가시스템 발전 초석을 다져 공론화 장(場) 마련의 시발점이자, 미래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공적 사업실행에 귀납적 논거로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줌

주제어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ESG 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문제, 청년 일자리, 임팩트 투자, 가치창출,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차 례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0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03
1.2. 연구목적	04
2. 연구방법 및 구성	06
2.1. 연구범위 및 방법	06
2.2. 연구구성 및 체계	07
3. 선행연구 동향 및 검토	10
3.1. 선행연구 동향	10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1. 소셜벤처 정의 및 구성요소	17
1.1. 소셜벤처 정의	17
1.2. 소셜벤처 연관 키워드 및 구성요소	18
1.3. 소셜벤처 유사 기업 간 포지셔닝	20
2. 공공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23
2.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흥	23
2.2. 사회문제 해결 동참 및 혁신 성장	24
2.3. ESG 경영과 연계한 대안적 사회공헌 사업모델 발전	24
2.4. 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목표 이행	25

제3장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동향

1. 외부환경	29
1.1. 거시경제	29

1.2. 인구·사회구조 및 소비트렌드	30
1.3. 정보·기술	31
1.4. 제도 및 정책	32
2. LH 내부환경	37
2.1. 정부경영평가	37
2.2. ESG 경영	38
2.3. 사회공헌 종합계획	40
3. 소셜벤처 시장동향	42
3.1. 일반현황	42
3.2. 투자시장	43
4.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45

제4장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효과 분석

1. 분석의 틀	49
1.1. 조사개요	49
1.2. 자료 및 방법론	50
2. 일반현황 및 특성	52
2.1. 사업소개	52
2.2. 총량	53
2.3. 세부 특성	56
3. 운용성과	61
3.1. 수익성	61
3.2. 사회적 가치	63
3.3. 혁신성	66
3.4. 기타	67
4. 소 결	70

제5장 가치창출형 소셜벤처 모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1. FGI 조사개요	77
1.1. 조사목적 및 내용	77

1.2. 조사대상 및 방법	78
1.3. 응답자 특성	80
2. 주요 분석내용	82
2.1. LHSV 인식 및 실태 진단	82
2.2. LHS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87
3. 소 결	99

제6장 결 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05
1.1. 연구요약	105
1.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9
2.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111
2.1. 제도개선 방안	111
2.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12

부 록

참고문헌	115
설문지	123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연구 진행과정 및 수행절차	09
[표 1-2] 소셜벤처 관련 선행연구 동향 검토	11
[표 2-1] 기관별 소셜벤처 개념 정의	17
[표 2-2] 소셜벤처 구성 핵심요소	20
[표 2-3]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차이점	21
[표 2-4] 전국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위험지역	23
[표 3-1] 국내외 주요 기관별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0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소셜벤처 지원책	34
[표 3-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전·후, 재무성과 및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38
[표 4-1] LHSV 사업분야별 지원요건 및 내용	56
[표 5-1] 조사대상 선정	78
[표 5-2] 설문조사 설계	80
[표 5-3] LHSV 양·질적 성과 측정지표	9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CSR, CSV, ESG 개념 및 차이점	03
[그림 1-2] 사회공헌 프로그램 성격의 시대적 흐름	04
[그림 2-1] 소셜벤처 언급량, 연관 키워드 및 관계도 시각화 분석	19
[그림 2-2] 소셜벤처 기업형태 상 위치	22
[그림 2-3]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방식 변화	25
[그림 2-4] 소셜벤처가 포함된 제4섹터 개념적 범위	26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확진자수 및 물가동향 추이	29
[그림 3-2] 출생연도별 세대구분 및 특징	31
[그림 3-3] 산업혁명 발전단계	32
[그림 3-4] 110대 국정과제 중 LH 유관 업무현황	33
[그림 3-5] 성동구 소셜벤처 밸리 허브(Hub) 육성계획	36
[그림 3-6] LH ESG 경영전략 체계	39
[그림 3-7] 연도별 LH 사회공헌 지출액 및 비중 추이	41
[그림 3-8] 국내 소셜벤처 판별기업 수 및 증감률 추이	42
[그림 3-9] 국내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규모 추이	44
[그림 3-10] LH 소셜벤처 분야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45
[그림 4-1] 실험군 연구대상 범위 선정	50
[그림 4-2]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DB 구축	51
[그림 4-3] LH 소셜벤처 지원모델 설계	52
[그림 4-4] LHSV 주요 연혁 및 추진경위	53
[그림 4-5] LHSV 규모 추이	54
[그림 4-6] LHSV 연도별 신규공모 응모현황 및 경쟁률 추이	55
[그림 4-7] LHSV 기업형태 및 업력	57
[그림 4-8] LHSV 신용등급 구간별 현황	58
[그림 4-9] LHSV 입지 및 권역별 분포	59

[그림 4-10] LHSV 사회문제 해결 유형	60
[그림 4-11] LHSV 매출 및 흑자기업 추이	61
[그림 4-12] LHSV 매출액 변동률 구간별 분포 및 상위권 고성장 기업	62
[그림 4-13] LHSV 참여기업 투자유치 실적 추이 및 주요 사례	63
[그림 4-14] LHSV 고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이	64
[그림 4-15] LHSV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및 설립유형	65
[그림 4-16] 타 유형 대비 LHSV 출신기업 생존율 비교	65
[그림 4-17] LHSV 지식재산권 등록 및 혁신역량 유무	66
[그림 4-18] LHSV 주력 업종 및 기술기반 비중	67
[그림 4-19] 청년 창업센터 공급에 따른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절감액	68
[그림 4-20] LHSV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및 참가인원 추이	69
[그림 4-21] LHSV 총량 규모	70
[그림 4-22] LHSV 세부 운용특성	71
[그림 4-23] LHSV 부문별 성과지표 정량적 평가	73
[그림 5-1] FGI 조사내용	78
[그림 5-2] 응답자 구성 및 분포	81
[그림 5-3] 소셜벤처 산업계 중대 현안이슈 및 메가트렌드	82
[그림 5-4] LHSV 대외인지도 및 연상 이미지	83
[그림 5-5] LH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프로그램 위상	84
[그림 5-6] 사업취지 공감도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85
[그림 5-7] 중요도-수행성과(IPA) 분석에 의한 LHSV 포지셔닝 맵	86
[그림 5-8] LHSV 제도 한계점 및 ESG 수단 잠재력	86
[그림 5-9] LHSV 예산편성 지출규모 및 팀별 적정 지원금	87
[그림 5-10] LHSV 체계 정비 필요성 및 이유	88
[그림 5-11] LH 소셜벤처 기업팀 추구가치 우선순위	89
[그림 5-12] LHSV 분야 찬반의향 및 배분 비중	90
[그림 5-13] LH 소셜미션 중점 영역	91
[그림 5-14] 소셜벤처 분류기준에 따른 특화모델 유형	92
[그림 5-15] LH 소셜벤처와 지속가능한 ESG 부문별 연계 추진전략	93
[그림 5-16] LHSV 차별화된 경쟁력 및 타기관 벤치마킹 요소	95
[그림 5-17]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리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방안	96

[그림 5-18] 민관협력 파트너십에서 LH 수행 역할 및 예상 기대효과	97
[그림 5-19] LHSV 운용 시 제도적 개선책 및 기타 의견	98
[그림 5-20] LHSV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99
[그림 5-21] LHSV 운용체계 개편 구상안	100
[그림 5-22]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과홍보 확산 모범사례	101
[그림 6-1] 소셜벤처 기업성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LHSV 운용체계 개편방향	108
[그림 6-2] 건전한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선순환구축 기제	109
[그림 6-3] 사회공헌 전략과 사업기능을 고려한 LHSV 중장기 로드맵	111
[그림 6-4] LHSV 운영현황 및 KPI 대시보드 구현의 홈페이지 개정화면	113

제 1 장 서 론

LAND
INSTITUTIONS
AND HOUSING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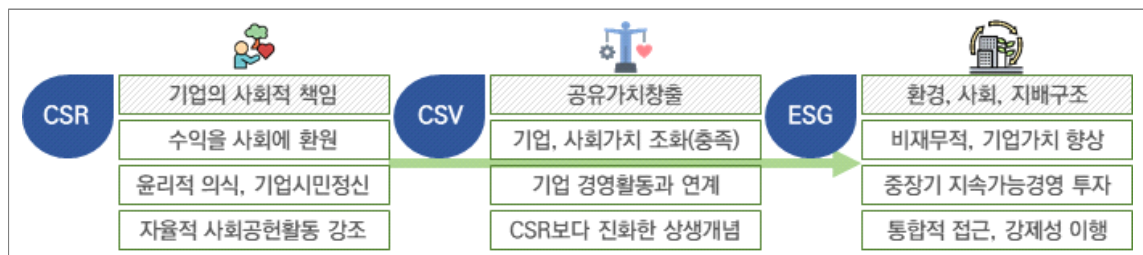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ESG 경영 패러다임을 반영한 소셜벤처 지원방안 강구

- 오늘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약칭) 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Mega Trend) 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자리잡아 사회적경제 관심이 높아져, 소셜벤처(Social Venture)가 혁신창출의 대안으로 부상(뉴스핌, 2021)
 - 근래 들어 21C 기업평가 기준으로 비재무적 요소가 중시됨에 따라,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의 견조한 증가세([그림 1-1] 참조)
 - 소셜벤처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통해 사회문제 우선 해결에 앞장서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주목받음
 - 공기업의 전사적인 내부 경영활동에 매출과 이윤 등 재무적 성과지표(국제회계기준, IFRS) 외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ESG 요소의 실천노력 불가피

[그림 1-1] CSR, CSV, ESG 개념 및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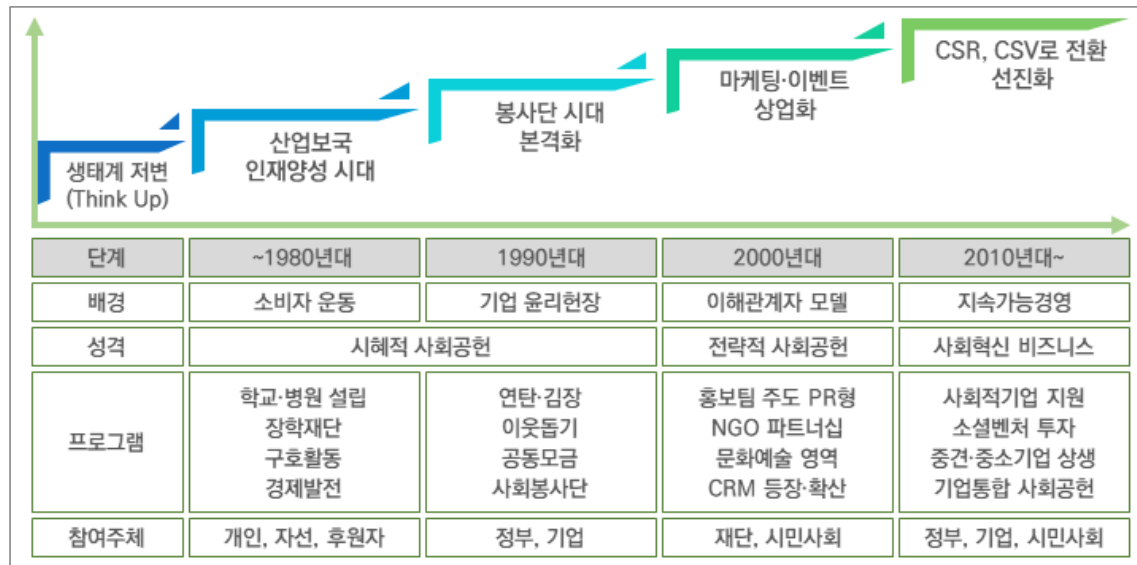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혁신창출을 위해 소셜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육성의 전

폭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공공기관 역시 ESG 활동을 연계해 사회혁신 비즈니스 기회로 삼고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셜벤처와 협업 필요성 강력 제기 (이로운넷, 2021)

- 과거 전통적인 일회성의 자금모집, 기부와 같이 시혜적 사회공헌에서 소셜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혹은 혁신 비즈니스 체계로까지 진화하는 등 성격 변모([그림 1-2] 참조)
- 2015년부터 LH는 사회적경제조직 양성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을 사회공헌 일환으로 매해 꾸준히 전개하며, 창업공간, 자금, 전문적인 육성 프로그램(교육·컨설팅·네트워킹·크라우드펀딩) 등 다각적인 노력 경주
- 작년까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누적 실적(2015~22년)은 총 243팀(1,088명)에게 64.5억원을 지급했는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호응도(평균 경쟁률 18:1)가 매우 높았음

[그림 1-2] 사회공헌 프로그램 성격의 시대적 흐름



출처: 이기훈·이의영(2011)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1. 2. 연구목적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성과진단 및 新(신) 가치창출 고도화 모델 제안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 목적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실태와 객관적인 성과를 면밀히 진단해보고, ESG 경영선도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음

-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 중인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경우,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져지고, 지원금 규모가 적어 공기업 수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란 이견이 제기되어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을 담은 전략적 방향 설정 급선무
- 대내외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체계 최신화 등 사업체질 개선·혁신의 중간점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구성

2. 1.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① 공간적 범위

- 국내 전국 지역에 소재한 사회적벤처기업 2,184개사(전수 모집단) 중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243팀을 표본(Sample) 조사대상으로 함

② 시간적 범위

- LH 소셜벤처가 최초 태동한 2015년(개시일) 부터 최근 공모완료 시점의 2022년(종료일) 까지 총 8년간을 설정하였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COVID-19, 2019~22) 기간도 포함

③ 내용적 범위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현 운용실태 및 효과 검증, 전문가 인식 평가에 기초한 가치 창출 모델 고도화 발전방안 수립을 다룸

2) 분석방법 및 자료

① 분석방법

- 연구내용 및 구성 요건에 발맞춰 문헌연구, 사례조사, 통계분석,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Scheme),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전문가 자문, 원고 의뢰 등 정성·정량적 기법을 병행 채택·보완

② 분석자료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내부 원자료(Raw Data)를 취득·공유한 뒤, 회사명을 식별 키(Primary Key)로 두어 기업 빅데이터 현황과 연동해 DB 재가공
 - 기업명이 중복·동일한 경우, 릴레이션(Relation)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주소와 대표자를 대체키(Alternate Key)로 지정
 - 다만 소셜벤처 태생 자체가 업력이 짧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 대다수로 경영·재무정

보 등 데이터 이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률이 높아 어려움 상존(송기욱 외, 2023; 이
로운넷, 2022)

- 수집된 자료결과 해석은 신속한 통계표 작성처리에 능한 과학적인 작업도구(Tool)로
PASW 24.0 프로그램 사용

2. 2. 연구구성 및 체계

1) 주요 연구내용

① 소셜벤처 정의 및 공적 지원 필요성

- 유사 기업군 대비 포지셔닝(Positioning) 설정 명확화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기반 스타트업(국토교
통부)과 비교
- 공적 지원의 필요성 논리 개발
- 기업 사회공헌 부문 지출 현황 및 ESG 경영활동 분야
- ESG 경영(공공기관), 사회적 가치(기업), 소셜벤처 지원사업(LH)의 관계

②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현주소

- 소셜벤처 시장규모 및 변화 동인
-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환경(PEST)¹⁾ 트렌드
- 공사 내부 추진여건 점검(사회공헌 종합계획, LH 혁신안 중 기업성장지원)
- 소셜벤처 기업수, 성장률, 투자액 추이 및 업황 전망 예측
- 행정 소관부처별 소셜벤처 법·제도적 제반사항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중소벤처
기업부) 외

③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 분석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제도 운용실태 및 특성
- 사업분야, 업종, 조직형태(개인/법인), 소셜미션(사회문제 유형), 창업아이템, 설립일,

1)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의 약자를 따서 PEST 분석으로 불리며, 기업 경영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통용

지역, 기수(연차), 참여규모(응모/선발팀), 경쟁률, 일자리 창출, 지원금, 생잔여부(휴폐업) 등 일반현황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진단 및 평가
 - 고용·매출·투자유치, 지식재산권(특허) 등 경영성과 핵심지표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실질 기여도에 관한 효과성 검증
 - 타 기업군(중소, 벤처기업, 부동산 스타트업)과 펀딩(Funding) 지원시기 전·후 간 증감 차이 대조

④ 가치창출형 소셜벤처 모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소셜벤처 유형별 분류 및 新(신) 가치창출 모델 고도화 전략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ESG형, 집합적 임팩트 창출형(Collective Impact), 로컬(Local) 특화형 제시
 - 소셜벤처 유형별 추진 시 ESG 경영활동과 SDGs 달성의 연계성
 - 국민체감형 성과를 지니면서 차별화된 테마(환경·에너지, 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외)를 담은 BP를 발굴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홍보 집중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도입가능한 계획요소 도출 및 적용 시사점

⑤ 소셜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 및 제언

- LH 공적 역할 정립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의 마중물(Trigger) 역할 유도
-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정책 제언
 - 전 분야를 포괄하는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고유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방향성 제언
 - 민간 주도 시장저변 확대를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대 및 파트너십(Partnership) 협업 체계

2) 연구체계

■ 연구구성 및 진행과정

- 본 연구의 기본구성은 서론에 해당하는 필요성 제기 및 이론적 고찰에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정책 제언까지 크게 총 6장으로 이루어지며, [표 1-1]에 제시한 합리적 절차(Process)에 따라 과업 진행

[표 1-1] 연구 진행과정 및 수행절차

단계		내용구성	수행방법
서론	I	연구 설계 및 선행연구 검토 (조사대상 및 방법론 선정, 연구담론,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헌조사
	II	소셜벤처 개념 정의 및 지원방안 필요성 고찰 (ESG 경영관점을 고려한 기업 단위로 접근 통일)	문헌조사
본론	III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점검 (PEST 환경, LH 내부여건, 소셜벤처 시장동향)	문헌조사 통계분석
	IV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용실태 및 효과 분석 (일반현황, 경영성과 지표, 그룹별 실질 기여도 검증)	통계분석 원고의뢰
	V	가치창출형 소셜벤처 모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유형화 분류 및 특성, 전문가 인식 평가, ESG·SDGs 연계성)	사례분석 FGI
결론	VI	소셜벤처 생태계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역할 정립 (공공 지원 참여논리의 정당성 확보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전문가 자문

출처: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동향 및 검토

3. 1. 선행연구 동향

1) 주제별 동향

- 국내·외를 통틀어 소셜벤처 분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주제·방법의 다양성 면에서 질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
 - 그 이유로는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와 인식 부족, 통계자료 구득 제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작용함에 기인
- 선행연구들의 주제별 동향은 크게(1)소셜벤처 현황 및 창업가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2)성공적인 사업운영 사례 및 시사점 도출, (3)제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유형 분류 및 특성, (5) 사회·경제적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 등으로 대별되며, 최근 10년간(2014~23) 본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선행연구 내용을 하단의 [표 1-2]로 요약 정리
 - 초창기 연구는 소셜벤처 개념, 현황 및 특성을 피상적으로 단순히 나열·기술하거나(박민진·김태영, 2018; 임재웅·박계홍·윤호중, 2019; 이은선, 2021),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에 빗대어 국내 제도 운영 시 노정된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중소기업연구원, 2018; 최세경, 2018)을 고찰하는 거시적(Macroscopic) 연구가 많음
 -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청(2014)은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피력함과 더불어, 사회혁신에 중점을 둔 가치창출형 모델을 제시해 후속연구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 구축
 - 2019년 후반기에 들어와 소셜벤처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계량 연구들(김광수, 2019; 김용태, 2019, 2021; 김형민·김진수, 2022)이 속속 등장하며 전성기를 구가
 - 이 중 김광수(2019)는 소셜벤처 기업가와 종사자들이 체감한 사회적 성과 및 가치 인식의 평가모형을 만들었으나, 기초적인 빈도·교차분석에 그쳐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볼 순 없었음
 - 그러나 김용태(2019, 2021)가 소셜벤처 성과창출 면에서 경험적으로 정부 지원책보다 사회적기업가의 내부역량 함양이 더욱 중대한 변수(Crucial Factor)임을 밝혔고,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김형민·김진수(2022)는 하이테크(High-Tech)형 세부 하위시장으로 확장
 - 그 밖에 오랫동안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실태 및 동향을 꾸준히 관찰해 온 주재욱 외

(2018, 2020)는 기술혁신과 생태계 외연을 넓히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민관협력 확대를 주장하는가 하면, 비영리 교육 소셜벤처인 점프(JUMP)의 기업사례를 통해 경영활동 상 창업 초기 플랫폼 도입이 참여자 유인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박재홍·황금주, 2017)

[표 1-2] 소셜벤처 관련 선행연구 동향 검토

No	저자(연도)	방법론	주요 내용	비고
본건	송기욱 (2024)	문헌조사 패턴매칭 FGI	·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현주소 · 공기업 협력형 소셜벤처 선도사례 및 시사점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고도화 모델 구상	-
1	설병문 (2023)	설문조사 AHP	· 소셜벤처 기업가정신 변수 선정 및 모형설계 · 기업가정신 구성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산정	×
2	이상준 외 (2021)	문헌조사 FGI	· 소셜벤처 정책 체계와 명암 ·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공급 및 수요자별 임팩트 투자 인식	○
3	김광수 (2019)	문헌조사 설문조사	·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와 성과 결정요인 및 측정 평가모형 · 소셜벤처 지원시스템 영향력, 기업이 정신에 관한 인식	△
4	김용태 (2019)	설문조사 경로분석	· 소셜벤처 경제·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
5	김윤희 외 (2018)	사례분석 FGI	·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변화 및 현황 · 로컬 기반 사회적경제주체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
6	박민진·김태영 (2018a)	문헌조사 인터뷰	·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분포와 역할 검토 · 소셜벤처 유형별 분류 및 특성 차이점	△
7	주재욱 외 (2018)	사례분석 설문조사	· 소셜벤처 성공적인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조사(현황, 인식) 및 특성 분석	○
8	이여경 외 (2018)	사례분석 설문조사	· 건축·도시분야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정책과 제도 사례 · 공공사업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연계여건 점검 및 실행방안	○
9	중소기업연구원 (2018)	사례분석 FGI	· 해외 국가별 소셜벤처 동향과 지원정책 · 소셜벤처 운영실태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수요 발굴	○
10	중소기업청 (2014)	문헌조사 제도연구	· 소셜벤처 정의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 · 소셜벤처 육성지원 방안 및 가치창출형 모델 제안	○
11	성지미 외 (2014)	문헌조사 심층면접	· 소셜벤처 생태계 주체별 현황과 실태 진단 · 소셜벤처 지원체계 문제점 및 장단기 개선방안	○

출처: 저자 작성

주: 비고란은 본 연구와 정합성 평가 주관적 판단(○: 높음, △: 보통, ×: 낮음)

2) 방법론 동향

- 방법론은 이론고찰·문헌검토, 표적집단면접, 사례분석 위주 현상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소셜벤처 설문조사와 통계적 추론기법, GIS를 이용한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tic)의 움직임 전개
 - 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인해 집적된 성수동 일대

소셜벤처 벨리(민간주도형 사회혁신클러스터)가 창업생태계 형성배경과 작동기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한 장소로 수차례 거론(윤지훈·박지훈·배정태, 2017; 이유라·이명훈, 2017; 박민진·김태영, 2018a,b; 임영언·허성태, 2019; 윤종진·주재욱, 2022)

- 성지미·황준욱·안주엽(2014)이 심층면접으로 소셜벤처 생태계 구성원 주체(사회적기업, 공공 및 비영리지원기관, 민간투자사 등)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조명하고, 장단기별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박민진·김태영(2018a,b)과 최용석·백보현(2020)은 사회혁신 단계별 소셜벤처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조력자 역할 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으나, 질적 향상보다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칫 사회적기업의 동형화 압력 우려와 궁극적인 시스템 변화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비판
- 비록 소셜벤처가 아닐지라도, 이흥일(2008)과 이여경·심경미·차주영(2018)은 건축·도시분야 내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된 다양한 공익적 시범 프로젝트 사례에서 공공사업과 연계방안 발상의 실마리를 던져줌
- 반면 후자는 구조화된 설문지 표본응답으로부터 소셜벤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과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소자승법 회귀모형(OLS), 계층분석법(AHP), 구조방정식 모델링(SEM) 접근 시도의 미시적 연구가 활기(김용태, 2019; 한정수·최자영, 2021; 김형민·김진수, 2022; 설병문, 2023)
- 이 중 한정수·최자영(2021)은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이중 혼재된 소셜벤처 투자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소셜 임팩트의 긍정적 정서 유발이 유효한 중간 매개변인(Mediator)임을 강조하였고, 설병문(2023)은 소셜벤처 창업 시 기업가정신 구성항목에서 민간영역과 비슷한 영리지향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순위가 높아 중시여기는 것으로 해석
- 그 외 GIS나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적 집중과 네트워크 효과를 계산하려는 경향도 포착(이유라·이명훈, 2017)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ESG 경영과 소셜벤처를 접목한 초기 실증연구로 상징성

-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소셜벤처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ESG 경영에 유일하게 초점을 맞춘 최초 실증연구(Empirical Study)라는데 차별성을 기함
 - 사내 소셜벤처 유관분야로 한정할 시,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유치 및 운영 효율화(박상학, 2017), 신도시사업의 ESG경영 실행체계 구축(김남정 외, 2022),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잠재력 진단에서 일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단편 소개할 뿐임(김홍주·김륜희·이승은, 2022)

- 지역성(Regionality)을 가미한 로컬 기반 사회적경제주체(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외)의 지원방안을 자세히 다룬 실용적인 연구로서 김륜희·김홍주·이승은(2018)이 유일하나, 소셜벤처 기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제의과제 내용과는 유사·중복성이 없음을 기 확인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DB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실태진단과 성과 평가를 토대로 미래 중장기 경영관점에서 요청되는 공적 역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님
-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2018.05)의 정책적 방향성과 큰 틀에서 부합하고, 공사가 ESG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시의적절성을 띤 연구라고 판단
- 이는 2023년 기준 공사 중기 경영목표와 중장기 연구개발(R&D) 목표로 각각 국민 생명-안전 및 민간성장 지원 강화, ESG 경영지원에 해당

제 2 장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LANDS
HOUNS
ING
T
E

제2장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1. 소셜벤처 정의 및 구성요소

1. 1. 소셜벤처 정의

1) 학술적 정의

- 오늘날 소셜벤처 정의에 대해서 연구자나 기관마다 기업·조직, 모델²⁾, 산업, 프로젝트 등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도에 따라 의미를 각기 다양하게 해석하므로 아직 개념 정립이 모호한 실정([표 2-1] 참조)
 - 선구자인 미국과 영국 사례(Virtue Ventures, 2005; Young Foundation, 2011; NESTA, 2015)에 비추어 볼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사상적, 실천적 토대가 되는 고전적인 사회혁신 담론(Social Innovation Theory)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강민정, 2018)
 -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 추구하는 기업을 지칭(중소벤처기업부, 2018; 소셜벤처스퀘어, 2019; 서울소셜벤처허브, 2019)

[표 2-1] 기관별 소셜벤처 개념 정의

No	기관(연도)	개념 정의	비고
1	매일경제	· 창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한 기업	E
2	Wikipedia	·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효과적인 솔루션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조직	E
3	Virtue Ventures (美, 2005)	· 사회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기업	E
4	Young Foundation (英, 2011)	· 사회문제를 다루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가능기업으로 현재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사회적 영향력 확대 및 성장 목표달성 조직	E
5	NESTA (英, 2015)	·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투자자의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조직	E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창의·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	M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4)과 한국노동연구원(2022)이 해당

7	한국기술교육대학 (2014)	·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스타트업 중 사회적 미션 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	E
8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8)	·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 추구하는 기업	E
9	중소기업연구원 (2018)	· 사회적 기업이면서 기업가적 속성(혁신, 모험성)을 동시에 지닌 신생기업	E
10	소셜벤처지원플랫폼 (2020)	·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전·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	E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활동(경제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조직	E

출처: 저자 작성

주: 비교란은 소셜벤처를 바라보는 관점(E: 기업·조직, M: 모델, I: 산업, P: 프로젝트)

2) 법률적 정의

- 소셜벤처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신설 2021.04.20.>을 뜻하고, 법률상 제도적 지원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⑩항에 명시

- 어원의 유래는 1999년부터 미국 버클리 대학(UC Berkeley)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독려를 꾀하는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회(Global Social Venture Capital: GSVC)가 매년 열리면서 개념 제기
-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제도권 테두리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민간영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출현·성장하였고, 2009년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448팀 참여)를 통해 최초 공식 언급 사용한 이후 널리 알려짐
- 2017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 개발 마련, 마침내 2021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 요령」 제정으로 법제화되면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정책대상으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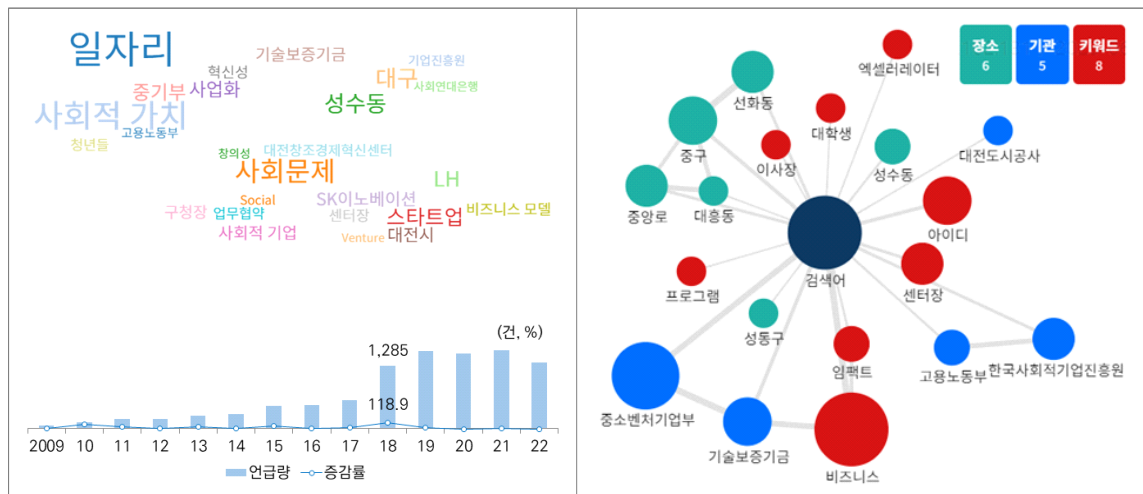
1. 2. 소셜벤처 연관 키워드 및 구성요소

1) 빅데이터로 본 소셜벤처 연관 키워드

- 언론보도 상 2010년 후반기에 소셜벤처 키워드 노출 빈도량이 현격히 급증한 이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필두로 ESG 경영, 청년 일자리,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요소들과 동질적인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형성([그림 2-1] 참조)

- 시기적으로 2018년 정부의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를 계기로 본건 키워드 언급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천건 돌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음
- 소셜벤처 연관어들은 코로나19, ESG 경영이란 시대적 상황하에 집적된 장소인 대전과 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사회문제, 청년 창업, 기업가정신,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LH, 중간지원조직,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등과 긴밀히 연계

[그림 2-1] 소셜벤처 언급량, 연관 키워드 및 관계도 시각화 분석



출처: 빅카인즈(2023)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주: 수집시점은 1990~2023.05월 기준(뉴스기사 총 10,488건)

2) 구성요소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생적 경제주체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 가치 덕목, 혁신적 기술, 수익창출 모델 등 네 가지 형식적인 필수요건(Component)을 구비([표 2-2] 참조)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SE) 분야에 권위를 가진 Brock, D. D., & Steiner, S.(2010)는 사회문제, 소셜미션, 혁신적 솔루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 구성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 국내 소셜벤처의 주요 특성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혁신성, 지속가능성, 성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이 손꼽힌 가운데(중소기업연구원, 2018), 기술보증기금(2022)

역시 소셜벤처를 판별하는 범용적인 기준으로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해당요건 충족을 제시

- LH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벤처기업 속성으로서 혁신성, 확장성, 창의성 강조
- 이 점에서 소셜벤처라 함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면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조직”으로 조작적 정의 내림
- 정부가 소셜벤처를 하나의 생태계로 규정하는 산업에 좀 더 가까운 상위개념이라면, 공공기관은 비전 및 경영목표에서 정책 수혜대상인 개별 기업체 관점의 지원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표 2-2] 소셜벤처 구성 핵심요소

No	구분	내용	지향점
1	기업가정신	· 사회현상 문제의식을 토대로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창업가 주도	사회적 성과
2	사회적 가치	· 소셜미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공공성을 추구하는 가치 실행	
3	혁신적 기술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개발 필요	
4	수익창출 모델	· 지속적 수익창출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우위 요소 구비	

출처: Brock, D. D., & Steiner, S.(2010)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1. 3. 소셜벤처 유사 기업 간 포지셔닝

1) 유사 용어

- 소셜벤처 유사 용어로는 흔히 제도권 내 사회적기업, 벤처기업과 종종 혼재되어 쓰이는데, 엄밀한 구분이 어렵고 소관부처별 적용기준이 상이해 시장혼란 야기([표 2-3] 참조)
- 사회적기업³⁾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공헌 등 공동체 이익생산 조직을, 벤처기업이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신생법인으로 둘 다 정부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이란 공통분모를 지님
- 이와 유사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프롭테크(국토교통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끼리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법인격에 대한 인증절차 및 지원체계 또한

3) 일례로 2014년에 창업한 주)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을 고용(직원 29명 중 취약계층 16명)해 월간 15만개 천연비누를 제작·납품·판매한 것이 대표적임(중소벤처기업부, 2019)

복잡하게 얽힘

- 그러나 해외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따로 구분없이 통틀어 소셜 엔터프라이즈 (Social Enterprise: SE)라 불림
- 소셜벤처가 사회적기업, 벤처기업을 가르는 잣대(Criterion)이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추구가치(동기)와 공인인증, 위험부담 여부임
 - 까다로운 심사제를 받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정부의 기준 혹은 인증(예비 포함)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별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도전·창의적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한 장점 존재
 -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이 부족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소셜벤처를 사용

[표 2-3]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차이점

구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벤처기업
회사수	3,534개 (2022.12)	2,031개 (2021.12)	35,123개 (2022.12)
도입시기	2007	2021	1997
근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미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재무적 수익	재무적 수익
특성	사회성(민주성)	사회성, 경제성, 혁신성	기업가적 속성(혁신, 모험성)
장단점	사회적 영향력이 크나, 지속가능성 약함	일정 수익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력 창출	성공 시 높은 수익을 얻으나, 위험 대비 사회적 영향력 낮음
주요재원	자선, 기부, 공공지원(보조금)	임팩트 투자, 사회금융	모험자본, 주식
사업모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가치 배분 모델	사회혁신사업 임팩트 투자모델	효율기반 수익 모험적 투자모델
판별기준	인증서 발급 (사회적기업진흥원)	통지서 발급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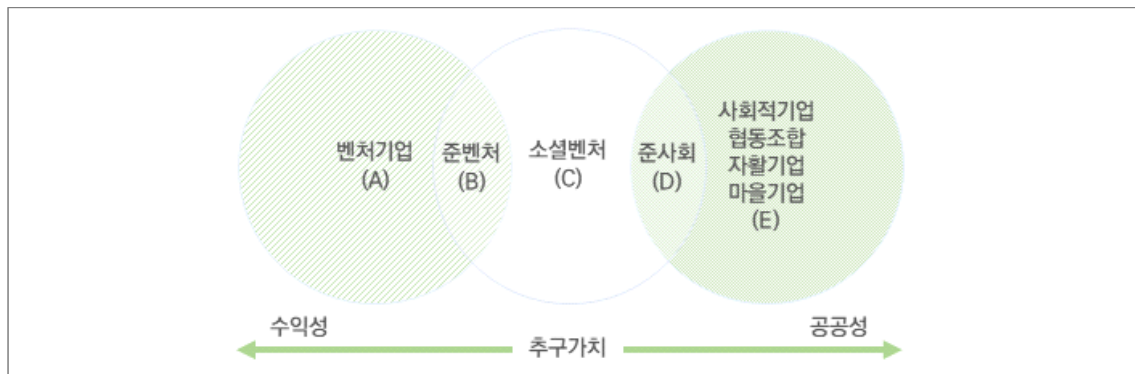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연구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2) 소셜벤처 기업형태 상 위치

-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사적인 벤처기업이 서로 중복 교차되는 중간 교집합 영역에 자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도 다수 포함
 - 소셜벤처가 대체로 경제적 목적을 지향하는 일반 벤처기업과 구별되고,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원리는 비슷하지만 수혜대상이 넓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데 주안점을 둠

- 즉 소셜(Social)과 벤처(Venture)의 합성어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재무적 수익도 담은 혁신적 벤처기업 속성이 결합·양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각에선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의 이중가치·미션이 상충(Trade-off)하는 하이브리드형(Hybrid) 조직구조란 지적하에 모순적 성격을 두고, 독립체인 제4섹터 형태로 접근 인식(최용석·백보현, 2020; 한정수·최자영, 2021)
- 소셜벤처의 기업형태 상 위치를 어떠한 가치에 비중을 중점적으로 두는지에 따라 하단의 [그림 2-2]와 같이 도식화하면, 상호 중첩되는 경계선 구간인 B(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D(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하는 기업)까지로 간주하고, 이를 포괄한 광의의 범주인 사회적경제조직(B~E영역)에 마땅히 속함
- 향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적된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업범위 다각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성으로 인해 소셜벤처 범주는 점차 확장될 예정

[그림 2-2] 소셜벤처 기업형태 상 위치



출처: 주재욱·조달호·윤종진(2018)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주: B, D는 영리·비영리 법인격 사회적경제기업 통칭

2. 공공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2.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흥

■ 청년 창업을 돕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⁴⁾ 직면에 따른 청년세대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 우리나라는 일찍이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학생·청년세대의 실업률 증대 등 취업난 극심
 - 일자리 경우, 결혼 지연, 저출산, 주거 불안정과 맞물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져 고착화되는 등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본원적 이슈임
 - 사회적경제주체 중 소셜벤처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 포용적 경제일자리 통합 확대 및 청년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청년 창업을 통해 인구절벽 및 산업쇠퇴로 닥친 지방소멸 위기 봉착 타개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인해 3대 악재인 고령화·소멸위기·축소사회 도래 및 지역활력 저해([표 2-4] 참조)
 - 인구분산 기능 목적의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2012)에도 여전히 기업, 대학,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청년층 대거 유입 쏠림현상이 불거져, 지역 인적자원 기반 붕괴
 - 청년 창업은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고 시름하는 쇠퇴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성장동력으로 인구이탈 방지 및 지방정착 유도 등 정주여건 개선, 나아가 전략적 산업육성을 통한 매출증진으로 지역경제 번창·부흥
 - 소셜벤처가 벌어들인 재무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의 건전한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표 2-4] 전국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위험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지방 소멸위험지역
소계(지정)	89개(38.8%)	113개(49.6%)
지자체	양구, 곡성, 고창, 성주, 함양, 가평	통영, 군산, 충주, 포천, 동두천, 강화
특징	고령화, 원도심 공동화, 군부 지역	제조업 쇠퇴, 수도권 외곽지역

출처: 행정안전부(2021), 한국고용정보원(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국가경제가 성장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며, 공장자동화와 노동집약형(e.g. 섬유·식품) 산업체의 해외 투자확대를 원인으로 지목

2. 2. 사회문제 해결 동참 및 혁신 성장

■ 지역 내 산재된 각종 현안 사회문제 해결 및 사업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스스로 찾아내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로 강한 애착심 고취
 -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 양극화는 물론 교육, 보건의료, 복지, 주거, 교통, 생활안전, 문화, 환경, 고용, 삶의 질, 사회통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사회문제(Social Issue) 노출
 - 코로나19 이후 국가·부문·계층별 성장불평등이 더욱 커져 기초체력(Fundamental)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고통 경감 및 경영 위기극복 발판 차원에서 소셜벤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강화
- 일상생활 속 주변 불편 및 사회문제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혁신적 접근방식으로 풀어낸 솔루션을 제공해 지역 내 부족한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주민들이 일상생활 터전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뿐더러, 전문지식과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생산(판매)으로 혁신창출
 - 소셜벤처 명제인 “더 나은 미래 공동체 세상”을 이룩하고자 지역사회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효율성의 시장경제 모델로 해결하는 점이 흥미로우며,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릴 공익가치 실현
 - 공공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출시하기 힘든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일정 보완
 - 이렇듯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창발(Emergence)적 혁신의 시발점이자, 소셜벤처 기술창업(플랫폼 개발)·육성·투자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 3. ESG 경영과 연계한 대안적 사회공헌 사업모델 발전

■ ESG 경영실천을 위한 전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확산 선도

- 국제사회에서 필연적인 ESG 실천노력이 당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장기적 사회공헌 모델 전환 계기 확립
 - 과거 현물·현금·인력지원으로만 단순히 여겨져 왔던 수혜자 중심의 시혜적, 일시적 기부방식 한계를 탈피, [그림 2-3]과 같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결부한 ESG 경영관

점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 변모

- 사회적 책임 일환의 자선, 기부, 환경보호 등 소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은 ESG 평가와 무관한 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가치창출 극대화가 관건
- 기업 사회공헌 의사결정과 조직의 미션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으로 ESG를 비즈니스 가치사슬(Value Chain)로부터 결코 간과·배제할 수 없음(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
- 기업 본래 목적인 영리를 벗어나 ESG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봉사와 실천의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실현
 - 기업 경영목표가 주주 만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을 포괄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헌신봉사·만족시키는 다원적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전향
 - 공공기관의 ESG 요구와 소셜벤처가 관심을 갖는 사회 분야 내 접점을 매칭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 지원
 - 가치사슬 단계에서 착한 스타트업인 소셜벤처 협업과 반부패·청렴사회 조성책을 통해 이윤배분(환원) 등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제고 유리

[그림 2-3]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방식 변화



출처: 저자 작성

2. 4. 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목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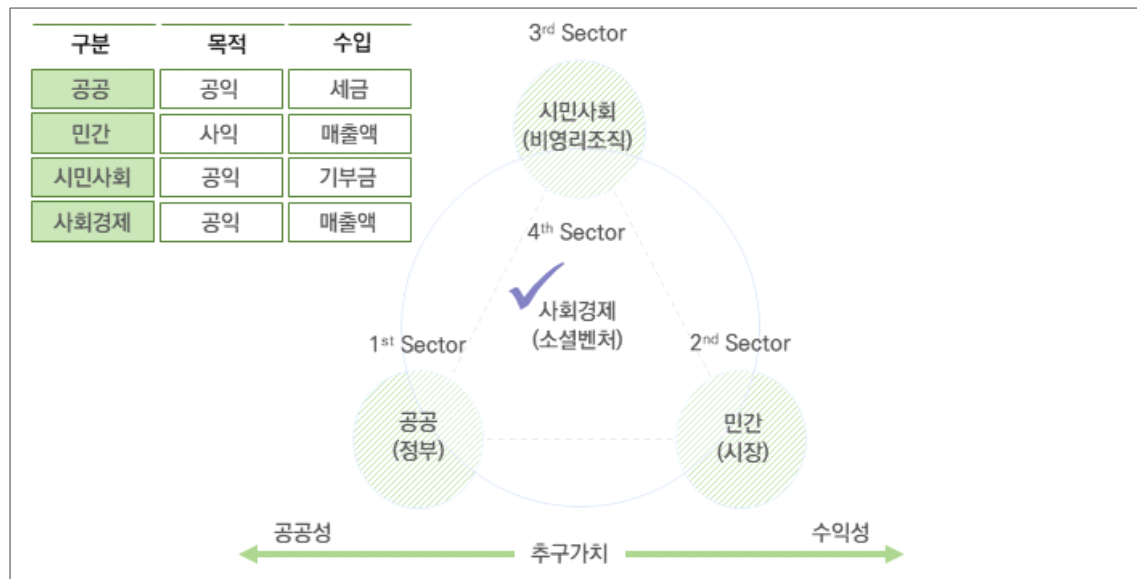
■ 대기업-소셜벤처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개방적 혁신생태계 구현

- 정부와 민간을 대신해 현존하는 사회고충을 타파할 소셜벤처가 제4섹터(The Fourth Sector)로 등장 및 사회혁신을 이끌어 나갈 또 다른 공공 참여주체로서 새로운 방향성 제시
 - 정부·기업·비영리단체(NGO)가 각각 주를 이룬 제1~3섹터에서 해소하지 못한 갖가지 문제를 이들 특성이 융복합(Convergence)된 사회적경제조직 부문 내 소셜벤처가 풀어

줄 유력한 제4섹터 세력후보로 부상([그림 2-4] 참조)

- 사회혁신 기반으로 민간과 제3섹터를 아울러 제4섹터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가 공공의 국민적 신뢰·자원과 결합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제공(최준규·윤소은, 2018)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와 파트너십 관계로 동반성장·상
생협력의 정부 정책목표 달성 이행
 - 공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료제 행정의 비
효율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체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시민,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여러 사회구성원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맺어 공생관계 유지
 - 소셜벤처와 가치연대, 역량공유, 파트너십 구축 강화로 동반성장·상생협력이란 공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무 완수 및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창업생태계 발전에도
일조

[그림 2-4] 소셜벤처가 포함된 제4섹터 개념적 범위



출처: 최준규·윤소은(2018)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제 3 장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동향

LANDS
HONS
INSTITUTIONS

제3장 ESG 경영환경과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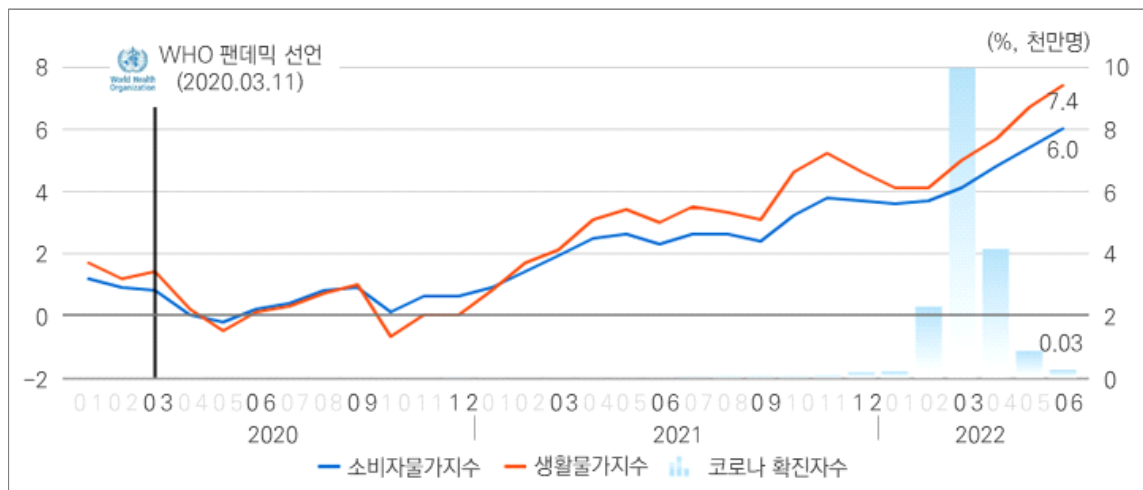
1. 외부환경

1. 1. 거시경제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회복세 중이나, 시장 불안요인 상존

- 범세계적 전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급격한 확산,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거시경제지표(생산·물가·고용동향)가 일괄 급락하며, 1920년대 대공황 사태 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이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Pandemic, 2020.03)으로 지역 간 이동 유발수요를 원천 통제하는 격리조치가 취해져, 거시경제 척도인 생산 둔화, 실업률 상승, 물가 폭등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조짐 등 실물경제 고통 심화([그림 3-1] 참조)
 - 기업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주가형태의 2021년 창업·벤처생태계 종합지수는 2010년 대비 3.2배 상승한 319.6(2010=100.0)으로 꾸준히 오름세이며, 정부와 투자자 역할이 컸던 것으로 풀이(중소벤처기업부, 2022)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확진자수 및 물가동향 추이



출처: 통계청 COVID-19(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코로나 엔데믹(Endemic: 2023.05) 전환⁵⁾을 기점으로 거시경제지표가 차츰 회복세이나, 여전히 경기전반의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Volatility)은 크고 수많은 불안요인들이 상존
 -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전망은 다음의 [표 3-1]처럼 1% 중반대로 수렴하나, 향후 성장경로에는 금리인상 가속, 통화정책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하방압력(Downside Risk)으로 작용할 여지
 - 대내외 경기여건에 민감한 소셜벤처가 창조혁신을 일으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반등의 성장모멘텀(Momentum)으로 삼아야 함

[표 3-1] 국내외 주요 기관별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국외				국내			
	IMF (4월)	OECD (3월)	ADB (4월)	Fitch (3월)	기획재정부 (7월)	한국은행 (5월)	KDI (5월)	국회예산처 (3월)
GDP(%)	1.5	1.6	1.5	1.2	1.4	1.4	1.5	1.5

출처: 기관별 경제전망 보고서(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 최신 수정 전망치로 연초 잠정 발표치에서 1%p 내 하향 조정

1. 2. 인구·사회구조 및 소비트렌드

- 가치소비 성향의 MZ세대가 미래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고객층으로 부상
- 합리적 가치소비(Value Consumption) 행태 문화인 20~30대 MZ세대 출현은 신흥 경제활동 소비주체로서, 소셜벤처 대변혁을 가져오는 동인(Driver)으로 거론
 - 1980~2005년 출생인 MZ세대는 16,299천명으로 총 인구의 32.5%⁶⁾를 점유하며(통계청, 2020), 은퇴한 중장년층 베이비부머(Baby Boomer)에서 젊은 MZ세대로 재빨리 중심축 이동([그림 3-2] 참조)
 - 기성세대와 달리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치관·도덕적 신념에 입각한 미닝아웃(Meaning Out) 성향이 두드러진 MZ세대는 친환경, 윤리적, 공동체 소비문화를 즐기고, 사회적 의미에도 공감하여 기꺼이 사회운동에 참가할 의지가 충만
- 기업들은 소셜벤처 제품·서비스 수용도가 높은 MZ세대를 집중 공략해 사회공헌활동과 접목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사업성과 및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방식

5)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조치가 해제된 3급으로 낮춘 풍토병(감염병 일상적 유행)을 일컫음

6) 금융권에서는 향후 10년 내 세계 노동인구의 3/4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채택

- 일상생활 속 MZ세대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소셜벤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가 높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릴 만큼 SNS 소통·홍보를 이용한 여론 형성에도 능숙하여 타인과 독특한 경험 교류 및 능동적 참여
- 윤리적 가치소비 증시의 착한 소비트렌드 변화가 공익을 도모하는 기업 경영활동 변화로까지 이어져, 자본시장 내 창업초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셜벤처 판로와 지속가능성 면에서 이로운 점으로 비춰짐
- 상품 브랜드·가격보다 본인 구매행동이 과연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미래 사회·경제적 주역인 MZ세대의 특수성 이해가 급선무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회공헌 브랜드에 담을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

[그림 3-2] 출생연도별 세대구분 및 특징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구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밀레니얼)	Z세대		
출생연도	1950~64년	1965~79년	1980~94년	1995년 이후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냉전종식	외환위기, 월드컵	코로나19		
인구규모 (비중)	14,667천명 (29.2%)	13,071천명 (26.1%)	10,330천명 (20.6%)	5,969천명 (11.9%)		
미디어 이동	아날로그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전후세대, 이념적	물질주의, 경쟁사회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중시		

출처: 통계청(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3. 정보·기술

■ 따뜻한 사회혁신을 가져다 줄 4차 산업혁명 주력 디지털 정보기술

- 4차 산업혁명 시대(Industry 4.0) 도래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Untact)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계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 혁신을 불어넣는 기술 융합화
 - 과학기술 문명의 눈부신 발달로 사물과 공간이 초지능·초연결·초실감화되면서,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복잡계를 구성하는 필수 유·무형자원인 데이터와 원천기술이 소셜벤처 서비스 근간을 이룸([그림 3-3] 참조)
 -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과 스마트한 기술혁신이야말로 소셜벤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탄생 및 진출 분야 생태계 외연 확장을 가능케 함

- 상대적 기술변화 속도가 느린 소셜벤처는 국가·산업·계층 간 불평등 악화의 사회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를 활용한 중간 수준인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T) 도입 활발
 - 소셜벤처는 취약(소외)계층 복지향상과 사회 전 생활영역의 서비스 격차 해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주로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가상 및 증강현실(Virtual & Augmented Reality: VR/AR), 드론 등 미래 차세대 유망 단일기술을 활용(주재욱·윤종진, 2020; 김창완·서용운·박영자, 2021)
 - 일반적으로 사업모델 설정과 신기술 사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층 대상 소셜벤처라면, 오히려 고사양 첨단기술보다 지역사회 공동체 눈높이에 맞춘 착한기술을 응용한 혁신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가치 창조의 잠재력 발견
 - 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만드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선결조건이자, 사회적-고객-경제적 가치 관계를 연결해주는 핵심역량으로써 전략적 접근 필요(김태영 외, 2021)

[그림 3-3] 산업혁명 발전단계

	18C	19C	20C	21C	(복잡성)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이후	
사회변화	농업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	초스마트사회	
특징	기계화 혁명	대량생산 혁명	디지털혁명	만물지능혁명	
동력원	증기기관	전기, 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Data, IoT, CPS, AI	
생산방식	공장 	컨베이어벨트, 분업화 	부문 자동화 	시뮬레이션 자동생산 	
생산주체	사람	사람	사람	기계 자율	

출처: 저자 작성

1. 4. 제도 및 정책

1) 윤석열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 새 정부(2022~27) 출범의 키워드는 공정·실용의 기치 아래, 청년 창업지원 정책과 벤

처생태계 구현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다룸

- 110대 국정과제(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5) 중 5대 기본목표 내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정책, 벤처생태계 조성 등 37개(33.6%) 세부과제가 LH 유관업무로 파악 ([그림 3-4] 참조)
 -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도전과 창의,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육성, 성장지원 등 민관공동 벤처생태계 조성(국정과제 102번)으로 역동적 경제 도약 포부
 -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100번, 국토부 등 7개 기관 부처협업)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청년 창업기반 강화의 실행과제로 LH 소셜벤처 선정(LH 관리과제 103번)
- 디지털기반 산업 플랫폼 혁신을 당면한 미래로 인식하고, 스마트한 사회문제 해결도 구로 시장참여자인 정부·기업·국민들이 찾는 소셜벤처 가수요가 대폭 늘어나 청년 창업아이템의 촉매(Catalyst)로 작용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국정과제 104번)을 목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공급·전달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 표방
 - 공적 사회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개방연결, 끊임없는 소통, 고객 상호작용 촉진의 디지털 플랫폼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가·스타트업·소상공인에 충분한 성장기회 무대 제공 및 업무효율성 향상 등 비금전적인 사회후생 편익 증대(관계부처 합동, 2023)

[그림 3-4] 110대 국정과제 중 LH 유관 업무현황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5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든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과제 (110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9개 과제	18개 과제
LH과제 (37개)	[1] 반부패 개혁 [2] 열린혁신 [3] 서비스 행정 [4] 사회적 가치	[1] 일자리 창출 [2] 동반성장 [3] 스마트시티 [4] 공정 시장질서	[1] 공적임대 공급 [2] 주거비 경감 [3] 재·난안전관리	[1] 국가균형발전 [2] 도시재생뉴딜 [3] 귀·농귀촌단지	[1] 신경제지도 [2] 경제통일 구현 [3] 해외진출 지원
	9개 과제	8개 과제	12개 과제	5개 과제	3개 과제

출처: LH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국정목표6(지방시대)은 발표당시 미 확정사안으로 제외

2)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지원책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10) 이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혁신창출을 꾀하고자 소셜벤처 육성, 창업·성장촉진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동원
 -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2018.05)의 주 골자는 판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⁷⁾, 실태조사,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중간지원조직 운영 보육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로, 연간 20억원(국비 전액) 예산 집행
 - 부처내 연계사업으로 소셜벤처 창업(예비창업패키지),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 IR) 개최, 임팩트 투자 및 보증(모태펀드 출자 및 융자·보증상품 신설), 기술개발 프로그램(R&D 과제), 판로진출도 병행 지원하여 2021년까지 3,444개사가 수혜를 받는 등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시너지(Synergy) 효과 모색(중소벤처기업부, 2021)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소셜벤처 각종 지원제도 유형은 통상적으로 시설공간, 금융자금, 경연대회 프로그램 운영, 교육·컨설팅 등 4가지 항목으로 집약([표 3-2] 참조)
 -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대기업·금융권 주도로 소셜벤처 기업에게 물리적 시설공간 대여, 보조금 및 임팩트 투·융자 등 자금공급, 공모전·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신가 인재양성 및 창업 장려
 -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인 협력 아래, 분야별 심층교육·멘토링(경영·재무·법률·기술), 투자유치, 네트워킹(입주·졸업기업 간담회, 박람회),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셜벤처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사업화 전문역량 함양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소셜벤처 지원책

No	유형	내용	담당기관
1	시설공간	· 독립형·공유오피스, 회의실, 제작실, 라운지, 사무집기류 구비 · 성수 소셜벤처 벨리 거점으로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소셜벤처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2	금융자금	· 소셜벤처 청년창업가에 바우처(Voucher) 지급의 사업비 지원 · 소셜임팩트 투자펀드 결성, 저리 대출우대, 특례 보증상품 가입 · 정책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유인과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경연대회 운영	·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기업 공모선발 · 비즈니스 모델 설계,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자금 등 유·무상 공급	사회적기업진흥원 SK, 현대차그룹
4	교육·컨설팅	· 성장단계별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교류,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영컨설팅, 기술개발(R&D) 과제 추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진흥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19), 소셜벤처스퀘어(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후속 성과로 소셜벤처스퀘어 플랫폼 오픈(2019.12)

3) 서울시, 성동구 소셜벤처 지원 조례

- 서울시는 민선7기 공약 청사진(박원순, 2019~22)으로부터 시작된 에이블테크(Able Tech) 특화 사업분야 전문 육성과 시민참여 중심 공공서비스 행정추진에 있어 소셜 벤처를 육아돌봄·일자리·주거·환경·정보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대두
 - 청년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지원협약 체결(2018.11)에 따라 서울시(총괄 운영)는 자산 관리공사(공간개발), 한국장학재단(교육·일자리_학자금 대출자), 공공상생연대기금(시설 구입비) 간 공동연대·협업체제로 공공 유헴자산에 전용 거점공간인 소셜벤처허브를 조성
 - 서울형 소셜벤처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술개발인 에이블테크로 설정하고(주재 욱·윤종진, 2020), 임대공간 무상제공(최장 2년)은 물론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투자유치 연계, 교육·멘토링·컨설팅, 홍보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2023년 예산편성: 1,367백만원)을 두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종합지원(「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 시행)
 - SK와 함께 서울시(2018)가 발굴하는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한 후, 이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Incentive)로 보상받는 시스템(Social Progress Credit: SPC) 제안·실험
- 성동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⁸⁾ 구호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셜벤처 지원 조례(2017)를 만들고,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신설 전담부서(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팀)를 꾸려 선도적인 지원 정책(공약사업 1-④번)을 펼치는 등 국내 최대 탄탄한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공헌했다는 고무적 평가
 - 성수동 일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첨단기술, 로봇, 패션, 문화·예술 등 525개 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조직, 협력사들이 잘 어우러져 혁신일 자리를 창출해 성공적인 소셜벤처 밸리로 거듭났으며, 나아가 글로벌 ESG 스타트업 구심점 도약 준비(성동구, 2023)
 - 2017.09월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민간 헤이그라운드(Hey Ground) 조성, 임팩트 투자펀드 출자(구 20억원), 청년 내일찾기 사업(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취·창업교육,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행사개최, ESG 스타트업 민간협의체 구성 등 다양

8)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지내몰림) 방지책으로 건물주·임차인 간 자율상생협약을 맺어 기업들의 안심 경영환경을 뒷받침

그림 3-5] 추

[그림 3-5] 성동구 소셜벤처 밸리 허브(Hub) 육성계획



출처: 루트임팩트(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LH 내부여건

2. 1. 정부경영평가

■ 사회적 가치 축소에서 재무성과로 무게

- 금번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개편방향은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를 줄인 대신, 생산성·효율성·비용절감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재무성과 비중 대폭 확대 및 혁신가점 신설([표 3-3] 참조)
 - 정부는 재무성과관리(재무관리+업무효율 통합) 비중을 2배 확대(10→20점)하며, 혁신계획 수립·이행 노력(5점)⁹⁾에 가점 부여
 - 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안전·재난 관리 등 폭넓은 가치들을 내포하는 사회적 책임 배점이 비록 하향(25→15점)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문재인 정부시기, 경영관리 부문의 낮은 재무예산 운영·성과(5점) 대비 사회적 가치 구현(24점, 43.6%) 위상이 현저히 높아 공기업 방만경영을 부추겼다는 날센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 이전상태 회귀로 해석
 - 특히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일부로서 ESG 요소인 안전 및 윤리경영의 정부경영평가 배점(5→2점대)이 다소 줄었으나,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 시 최하등급(0점 부여) 엄중처리로 재난관리, 반부패·청렴교육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야 함
- 공사 부채감축 관련 이윤창출과 공공성 확보 양립의 조화로운 균형속에서 차질없는 내실경영이 요구되므로,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제고 부각
 - LH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2021.03)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 만연하고, 사실상 우량 사업후보지 고갈과 전형적 수익사업(3기 신도시, 택지개발, 주택분양) 매출 감소 영향에 따른 중장기 재무수지 악화가 우려¹⁰⁾되어, 비계량지표인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속 및 만회하는 전략 승부
 - 소셜벤처는 사회적 책임 구성요소 중 동반성장 목표하에 우수 혁신물품·용역구매, 청년 창업공간 지원으로 희망상가를 내주어 고용창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공헌 지표와 밀접할 뿐더러,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재무부담 가중 없이 상기 부문의

9)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07)은 비핵심 기능축소, 조직·인력감축, 예산삭감, 자산매각, 복리후생 정비 등 5대 분야의 고강도 개혁 주문

10) 2022~31년까지 대형 정책사업(3기 신도시, 2.4대책) 물량증대에 기인한 투자·회수역전으로 당기순이익(1.8→△1.3조원) 적자, 부채(116→147조원) 누증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예고(LH 경영공시, 2022)

뚜렷한 실적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 공사 보유공간(유희자원)을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조직(청년, 협동조합)들이 창업플랫폼으로 이용해 일자리 생산 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권 내 임대료 감면책이 양측에 유익하리라 판단

[표 3-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전·후, 재무성과 및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구분	평가항목(2017, 文 정부)	배점	평가항목(2022, 尹 정부)	배점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8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9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	② 사회적 책임	15
	기관 경영혁신	3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국민평가	2	안전 및 재난관리	2
	정부 3.0	1	친환경·탄소중립	1.5
	경영정보공시	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정부권장 정책	6	윤리경영	2.5
	② 업무효율	5	③ 재무성과관리	20
	③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④ 조직·인적자원관리	4
	④ 재무예산관리	10	(기존 3,4번 통합)	
주요사업 가점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주요 사업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50	주요 사업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45
	일자리 창출	10	혁신계획 실행노력·성과	5

출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7, 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 ESG 경영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가치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정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손익 위주 회계적 성과를 벗어나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경영도입 장려 촉구

- 글로벌 화두인 ESG 경영활동은 이제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업가치 향상 및 경쟁력 확보와 직결
- 공공기관에게 ESG 경영공시가 강화되어, 신설·보완 항목으로는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봉사·기부실적), 상생협력(혁신조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포괄해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지속가능경영 네트워크, 2023)
- ESG 평가항목 점수(동반성장, 상생협력 등) 또한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되므로 이와 공통점을 지닌 소셜벤처 지원사업(ESG 경영전략 과제 S-3-3번)은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서 꾸준히 확대할 분야임

○ LH는 전사적인 ESG 경영 내재화 돌입(2022.02)으로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입주민, 협력사, 지역사회, 국민)과 아울러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신뢰 및 가치제고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속가능성 담보([그림 3-6] 참조)

- 공사 내부 ESG 부문별 전략체계 수립현황은 본업 가치와 연관성이 큰 S(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안전 강화)에 집중된 반면, E(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와 G(청렴윤리·투명경영 확립) 영역의 목표달성 이행은 미약한 실정
- 2021년 비재무적 활동 성과인 ESG를 화폐가치로 측정된 결과, LH 추정액 15.4조원 중 청년 일자리 창업의 소셜벤처는 사회공헌(374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47억원)과 맞닿음(LH, 2022)
- 사회적 가치를 다룬 소셜벤처 경우, LH 업역의 도시재생·주거 외 친환경·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관광, 복지, 시민소통·참여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E, G 영역 성과관리에 도움
- 선제적인 ESG 대응태세가 잘 갖춰진 대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경쟁역량으로 사업기획(Blue Ocean)라 받아들여져, 그렇지 못한 미래 중소기업·소셜벤처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ESG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관리전략 접근 필요

[그림 3-6] LH ESG 경영전략 체계

비전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내일		
전략목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 (부·패비리 발생 Zero)
2023년 ESG 경영 추진계획			
목표	국민이 체감하고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ESG 가치창출로 LH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구축		
추진방향	정책선도	국민체감	투·명·윤·리·경·영 확산
전략과제	Eco LH	Hope LH	Clean LH
	[1] 저탄소 녹색도시 확산 [2] 제로에너지 주택 선도 [3] 청정에너지 사업 확대 [4] 환경 복·원보전 강화	[1] 포용적 주거안전망 구축 [2] 국민재·난안전관리 강화 [3] 국민소·통고객만족 혁신 [4] 지역상생 균형발전 강화	[1]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2]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3] 공정한 사업체계 마련 [4] 건강한 윤리경영 선도
실행과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19개 과제)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25개 과제)	자율 청렴문화 실천 및 투기방지 (16개 과제)

출처: LH 경영공시(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3. 사회공헌 종합계획

■ CSR, CSV를 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공헌 브랜드 재정립([그림 1-1] 참조)

- 국민중심 경영실천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주택·도시 등 고유 업역의 전문성 및 가치 전달 연계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헌 브랜드로 전면 개편 움직임
 - LH의 부정적 이미지 인식을 불식할 만한 미래 희망적인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 기획·발굴부터 정부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인정받고자 대국민에게 성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까지 종합적 처방 당부·주문(CEO 말씀, 2023.06)
 - 공사와 무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 부서별 획일화·일회성의 산발적인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조직 본연 핵심가치 실현 및 국가적 현안이슈 과제들과 업(業)의 뛰어난 전문성(보유역량) 결합¹¹⁾으로 브랜드 차별화
- 종래 “사회적 책임 지원”의 6대 분야(창업·일자리, 지역상생 외)에서 (1)국민주거 안심, (2)저출생 대응, (3)행복한 사회만들기를 사회공헌 중점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하위 프로그램 체계화 정비
 - 최근 6년간(2017~22) 사회공헌 현황¹²⁾은 소셜벤처가 포함된 창업·일자리(33.4%), 주거복지(22.2%), 지역상생(20.1%)에 몰두하였으나, 정책적 수혜를 받은 기업성이나 브랜드 존재감 의문시
 - 이러한 반성에서 사회공헌 브랜드를 주거안심, 저출생, 행복한 사회(소셜벤처 청년 창업지원)로 통합·일원화시키되, 비사업 분야인 사회공헌의 고도화 전문역량을 겸비한 전국 단위 비영리법인 및 국가단체(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 외)와의 우호적 파트너 협업관계 구축
- LH 사회공헌 지출 비중은 예년과 유사한 매출액의 0.1%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림 3-7] 참조),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비 수준 미달¹³⁾로 공공성 향상을 위해 예산증액 상향 편성이 불가피
 - 올해 공사 기부금(공익사업 지원형) 예산집행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는 212.1억원 책정

11) 공유가치창출을 내세우며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건축도시분야 공공사업 연계방안을 찾는 이여경·심경미·차주영(2018) 연구도 동일 연장선상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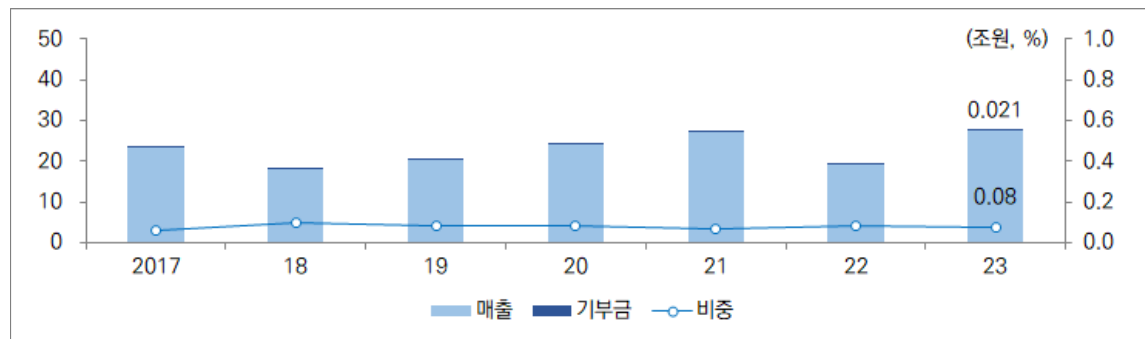
12) 노후주택 개보수, 임대주택 아동급식 지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급이 가장 전형적이며, 세부내용은 with LH(기획특집: 사회공헌, vol.69) 웹진을 참고하기 바람

13) 2021년 기준 KT&G 540억원(1.6%), LG생활건강 686억원(1.4%), 코레일 333억원(0.6%), 한국전력 673억원(0.1%)에 뒤쳐짐

(0.07%)에 불과해, 2021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평균 0.13%(180.0억원)/500대 기업 0.12%(133.6억원) 소요와 대조할 시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열세임을 미루어 짐작(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¹⁴⁾

- 이 중 전국 단위 중장기적인 소셜벤처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해마다 5억원(2.4%)의 예산지출로 30~40팀을 계속 선발해 왔으며, 적은 투입비용 대비 사회공헌 성과창출이 우수한 편
- 코로나19 종식과 ESG 확산이 맞물려 비상경영에 접어든 기업들의 매출호전으로 잠시 위축되었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들이 신설·재개되어, 이전 수준의 회복세가 조심스레 점차적

[그림 3-7] 연도별 LH 사회공헌 지출액 및 비중 추이



출처: LH 내부자료(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전·후(문재인 정부, 2017)와 시점 일치

14) LH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가한 임직원 봉사활동(나눔봉사단, 2009년 창단) 시간은 6.8시간으로 점점 감소세이나, 대기업(4.0시간) 대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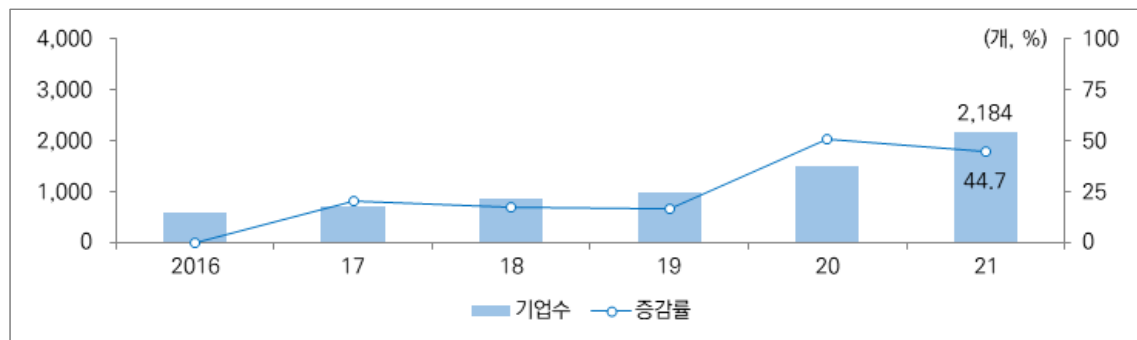
3. 소셜벤처 시장동향

3. 1. 일반현황

■ 착한 기업의 대명사, 소셜벤처 2년 사이 2배 꺽증 올라 외연적 성장세

- 국내 소셜벤처 기업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2019년 기점으로 단기간 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2천여개사가 남짓 활동 중임
 - 2021년 국내 소셜벤처 판별기업 수는 [그림 3-8]과 같이 공식 최초 실태조사(2019년, 998개)가 시작된 이래 2배 가까이 신장한 총 2,184개사가 현존하며,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Profit)만 대략 5.1조원¹⁵⁾으로 잠정 추계(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 마찬가지로 부동산기술 스타트업인 프롭테크 매출액이 3.5조원(306개사)인 점을 견주면(송기욱 외, 2023), 소셜벤처가 영리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수성 때문에 수익창출 능력이 떨어짐을 여실히 알 수 있음
- 비록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규모에서 소셜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후발주자임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을 증명
 - 광의적 범주인 사회적경제부문 기업(30,225개) 중 소셜벤처 점유율은 7.2%에 지나지 않지만(고용노동부, 20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최근 5년간(2017~21) 연평균 성장속도는 전체 평균치(15.2%)를 넘는 40.3%로 폭발적인 면모를 과시
 - 소셜벤처 성립요건은 충족시키나 외부 정보공개를 꺼려 후속 판별절차 미이행 기업들이 적잖음을 감안할 때, 실제 빈도수 및 구성비가 현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8] 국내 소셜벤처 판별기업 수 및 증감률 추이



출처: 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산술적으로 기업수(2,184개)에 평균 매출액(2,348백만원)을 곱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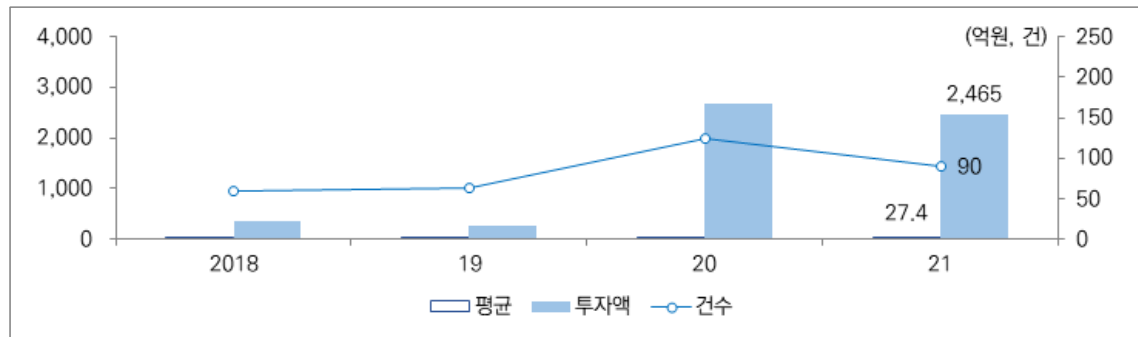
3. 2. 투자시장

■ 선진국 대비 국내 자본시장에서 임팩트 투자는 아직 태동단계로 미성숙

- 소셜벤처의 주요 자금원인 국내 임팩트 투자시장은 소수의 비주류화로 여겨져, 해외 대비 절대적 규모가 협소하고 질적 발전이 더딤
 - 2021년 전 세계 3,349개 기관이 단행한 임팩트 투자시장의 순자산(AUM) 운용규모는 1.2조원달러(1,557조원)에 육박하며, 2019년(715억달러) 보다 10배 이상 기하급수적 팽창(GIIN, 2022)
 - 동기간 국내 소셜벤처는 임팩트 투자로부터 2,465억원(90건)을 유치해 첫 집계가 이루어진 3년 동안(367억원) 7배 가량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그림 3-9] 참조), 기업당 평균 투자액 역시 4.5배(6.1→27.4억원) 늘어나 사회혁신의 깊은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음(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 이처럼 해외 선진국(英, 美, 日)과 격차가 심화된 원인에는 역사가 짧아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기법(대출·보증 편중) 및 객관적 성과평가 측정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고, 투자(중개)기관 등 시장인프라 환경도 미비해 공급불일치(공급 < 수요) 문제 초래
- 자금유입 다각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수단 진보와 주요 기관들의 가치 있는 임팩트 투자 독려로 자본시장 내 민간 재원을 이용한 실험적인 소셜벤처 투자 활성화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유수 컨설팅 회사(Exactitude Consultancy, 2023)에 의하면 장차 전 세계 임팩트 투자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9.5%의 견조한 흐름의 활황을 이어가 2029년 5.2조원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셜벤처 기업 투자가치 상승에 대한 내적 기대심리 반영
 - 소셜벤처의 외형적인 성장배경에는 정부 및 공공재원 출자 모태펀드 결성(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과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연기금·공제회 주도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행보에 힘입어 민간 대기업·금융권도 ESG 경영차원에서 사회공헌 예산을 활용한 임팩트 투자분위기 고조로 설명
- 임팩트 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안착하는데 공공기관이 소셜벤처의 실험적 투자를 견인하는 모험(인내)자본 기능을 적극 수행하되, 스케일업을 위해 반드시 민간참여의 자금유입 확대 병행 추진
 -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 경계구간에서 가장 많은 민간 투자유치가 일어나며, 대개 소셜벤처 업력이 길고 유치단계가 상향될수록 투자액수도 정비례하여 커지는 경향성 관측

- 소셜벤처의 궁극적인 자금회수 및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오랜시일이 걸려 선풍 보험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 상, 펀드 존속기한(10년 이상 만기)을 장기 안목으로 설정하는 금융구조화 설계전환 검토가 뒤따름
- 상업적 원리 기반의 일반 사적금융과 달리 재무적 수익보전과 동시에 사회·환경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착한자본인 임팩트 투자가 재조명받아, 재단·비영리기구 출연 외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설립,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자산군(Portfolio Asset) 대체편입으로 소셜벤처 금융상품 출시가 활기를 띄며 자금 동원방식(Channel)이 다원화될 전망

[그림 3-9] 국내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규모 추이



출처: 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자금조달 방법 중 임팩트 투자 수혜기업에 한함

4.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 소셜벤처와 친밀한 외부시장 환경, 내부여건은 고강도 혁신이행으로 제약

-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동향을 종합 고려해볼 때, 외부시장 환경은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적 평가이지만 공사 내부여건 상 수요는 제한적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둔화된 (1) 글로벌 경제지표가 완만한 회복, (2)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신흥 소비계층인 MZ세대 출현, (3) 디지털 정보기술 발달이 이용수요를 양산하며 플랫폼 영역 확장, (4)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정책 및 규제 완화 또한 소셜벤처 시장 활성화 유도에 긍정적 신호
 - 거듭되는 대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 견실한 영업이익 실현 대비 중장기 재무건전성 위협, (2) ESG 경영목표 지향과 정합성을 떠나 정부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배점 축소로 불리, (3) 사내 소셜벤처 관심 및 연계성이 낮고 혁신안에 의거한 신규 사업전개가 녹록치 않은 실정
- 따라서 SWOT분석 토대로 소셜벤처의 당면과제 대응전략을 도출하면([그림 3-10] 참조), 포스트 코로나, ESG 메가트렌드에 맞서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경제활력을 복돋아 공적 위상 재확립 도모
 - 민간 소셜벤처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이 후방에서 직·간접지원 하에 사회혁신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로써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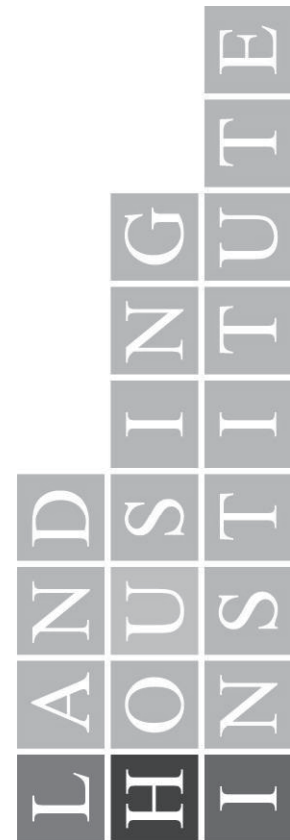
[그림 3-10] LH 소셜벤처 분야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SWOT	내부역량	
	강점(S)	약점(W)
외부환경	[1] 우수한 자본력과 창업공간 보유 [2] 주택·도시·건설분야 전문성 특출 [3] ESG 경영, 동반성장 문화 내재화	[1] 사회공헌 예산의 낮은 지출 [2] 관심, 수행능력 부재 등 동력 약화 [3] 비재무적 리스크 노출로 신뢰 추락
기회(O)	역량확대(SO)	기회포착(WO)
[1] MZ세대 소비층과 정보기술 발달 [2] 소셜벤처 전문 VC설립 및 투자확대 [3] 사회적경제 육성 및 창업지원 정책	유망 소셜벤처 육성·발굴로 ESG 경영실천 선도	민간협력 강화로 소셜벤처 활성화의 정부 정책수입 목표 완수
위협(T)	선택집중(ST)	약점보완(WT)
[1] 정부경영평가 내 사회적 가치 축소 [2] 경기침체로 스타트업 피해 우려 [3] 강도 높은 사업기능 조정개편 요구	기업 창업혁신거점 공간제공으로 지역 경제활력 도모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확산

출처: 저자 작성

제 4 장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효과 분석



&

제4장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효과 분석

1. 분석의 틀

1.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내용

- 본 장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LH Social Venture: LHSV)¹⁶⁾의 현주소 실태를 살펴보고, 객관적인 성과를 중간 점검·진단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수립에 활용코자 함
 - 주요 분석내용은 LHSV의 전반적인 총량 규모와 분야, 업력, 지역, 소셜미션 등 세부 특성을 짚어본 후, 기업 운용성과를 수익·재무성, 사회적 가치, 혁신성 등 3가지 표준척도에서 중점 계량평가
 - 지원시기 전·후로 소셜벤처 산업과 타 기업군(중소, 벤처기업, 부동산 스타트업) 또는 기관별 유사 경쟁사례 프로그램 간 지원성과를 비교하여 LHSV 정책의 실질기여도에 관한 검증

2) 분석범위 및 대상

- 공간적 범위(Scope)는 국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1기) 부터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총 243팀(신규 161팀) 조사에 한정
 - 국내 현존하는 사회적벤처기업 전수 2,184개사(Population)가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 특성을 대변하는 LHSV 표본 설명력(Coverage)은 11.1%로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아래 [그림 4-1]처럼 탄탄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대상 판별의 실험군에 적합
 - 시간적으로 박근혜 정부(2013~17) 때 LH 소셜벤처를 처음 선보인 2015년부터 최근 종결시점인 2022년까지 장기에 걸쳐 연속형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 구득이 가능한 총 8년간을 설정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 반복하며 유동적

16) 자주 반복되는 용어의 번거로운 쓰임을 피하고자, 이하 “LHSV”로 통칭

패턴

[그림 4-1] 실험군 연구대상 범위 선정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1: 괄호 안은 모집단 개체 수(N)

주2: 후면 음영색은 LHSV 참여팀 기수별 명단으로 구성된 기업 포트폴리오

1. 2. 자료 및 방법론

1) 조사항목 및 자료

- LHSV 현황은 회사경영에 필수적인 기업정보(개황)와 재무특성을 밝히고, 핵심 운영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심층 분석하는 등 크게 세 파트로 대별
 - 기업정보가 회사명, 소재지, 업종, 설립일 등 분석에 기초적인 경영현황이라면, 재무는 회계 상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지표를 말하며, 운영성과는 고용창출, 지식재산권, 생존율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소셜벤처가 개인사업자 창업이 많고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신생 스타트업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주어질 뿐, 재무·금융정보 이력이 전혀 없거나 휴폐업 상태로 전환되어 일부 항목 조사불가(N/A)하고 표본 수 상이
 - 분석자료는 일차적으로 LHSV 내부자료(2022) 준용하되, 부가적으로 국내 유일 최대 기업정보 플랫폼인 C사¹⁷⁾ 소유 데이터와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통계간행물을 열람·참조해 소셜벤처 창업생태계의 동태적 변화 관찰이 쉬울 뿐더러 동종업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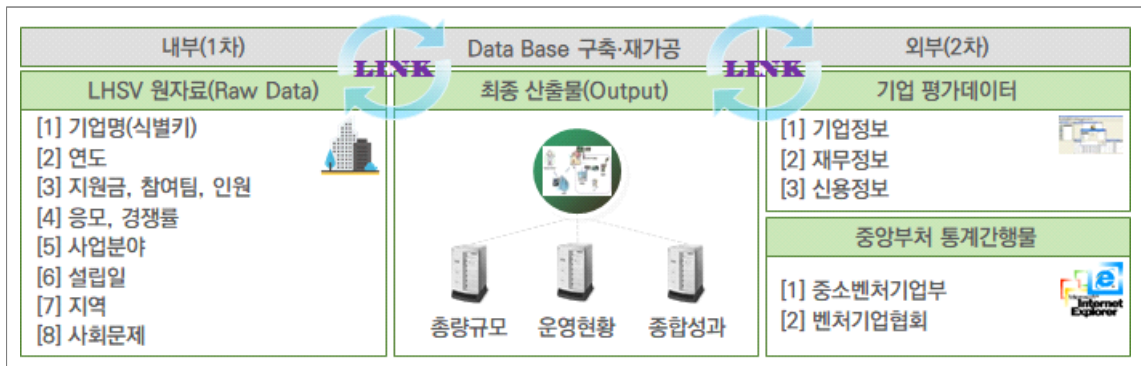
17) 한국평가데이터(K0DATA)가 축적한 등록업체 수가 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통틀어 1,100만개에 달해 기업실상, 신용등급, 산업정보 조회서비스로 대중화 인기

정확성 및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

2) 방법론

- 방법론(Methodology)은 LHSV 내부 제공 원시자료에 기업 평가데이터를 상호 연동(Linkage)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종합 DB 관리시스템(DBMS) 구축·재가공한 뒤([그림 4-2] 참조), 조사항목에 따라 선별적인 통계분석 수행
 - LHSV 선정기업 명단(기본키) 토대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방대한 양의 외부 기업 평가데이터와 병합(Join) 연산시켜 각종 항목별 정보 추출·전처리(Data Preprocessing) 작업 실시
 - 사회과학 분야 내 범용적인 모델링 도구로 PASW 24.0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인들의 기술통계량(빈도·교차·분산분석) 결과 해석

[그림 4-2]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DB 구축



출처: 저자 작성

2. 일반현황 및 특성

2. 1. 사업소개

1) 개황

- LHSV란 LH-소셜벤처가 공익·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공통분모에 착안해 설계된 혁신·창의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지원사업이자([그림 4-3] 참조), 대중적인 사회공헌서비스의 한 부류를 담당
 - LHSV를 매개로 LH와 소셜벤처가 복잡다난한 사회문제 공동 해결 및 ESG 경영실천에 앞장서는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 공유
 - 국민적 신뢰와 보유자원을 바탕으로 LH 기부재원을 활용해 혁신·진취적 아이디어·기술력을 갖춘 적격 소셜벤처를 선발하고, 창업~성장기까지 자금, 교육, 컨설팅, 사무공간, 크라우드펀딩, 기타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
 - 사업 추진체계는 LH 사회공헌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공사(총괄기관)와 주거복지재단과 협약으로 2016년경 전문성을 띤 산하 전담기구인 따뜻한경제지원센터(위탁사, PM 3명)가 실무 운영관리를 도맡음

[그림 4-3] LH 소셜벤처 지원모델 설계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2) 연혁 및 변천사

- 일자리 문제 고민에서 출발한 LH 마을형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후속으로 당시 부족했던 추진력을 청년·대학생 대상의 LHSV로 획기적 개편 운영

- LHSV의 정책적 효시(발단)는 2010년 임대단지 입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주거복지의 실험적인 모델로 기획된 LH 마을형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함께일하는재단: WT) 유래에서 찾을 수 있음([그림 4-4] 연혁표 참조)
- 생산활동 주체인 임대단지 거주민들이 노인층 다수로 수입발생 시 기초생활대상자 탈락을 염려해 참여를 거부,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창의성과 동기부여가 떨어져 단순 부업수준에 머무른 한계 봉착
-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결(~2016.04)에 따라 이를 대신해 2015년부터 청년 실업해소와 창업자립 도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인 LHSV로 변혁 추진
- 요컨대 과거 2015년 태동기(따뜻한경제지원센터 출범)부터 시장 진입기(2016~17: 지원 일관성 확보)를 지나 2018년 성장기(Phase 3: 안정적 사업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까지 진행 중이며, 이제 ESG와 결부한 고도화의 성숙기 도래

[그림 4-4] LHSV 주요 연혁 및 추진경위



주: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출처: 연대기별 주 이벤트만 간추려 나열

2. 2.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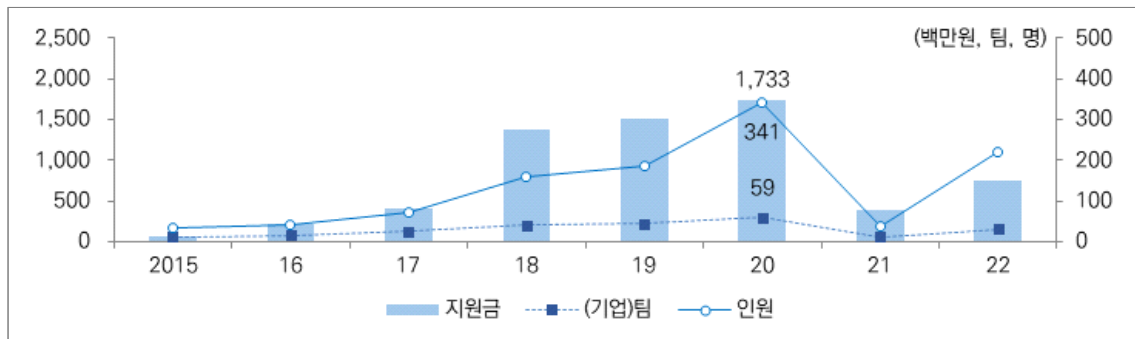
1) 규모

- 지난 8년간 LH 소셜벤처 지원금은 60억원(창업가 1천명)을 돌파하는 등 민간 주최 유사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공모전)들과 견줄 시, 단일사업으로 양적 규모가 큰 축에 속함
- LHSV는 2022년까지 8년 동안 신규공모 11회를 통틀어 161팀(730명)의 소셜벤처를 발굴하였고, 누적 중복기준으로 243팀(1,088명)에 총 64.5억원 지원(평균 8.1억원/년

지출)

- 업계 내 소셜벤처 창업 등용문으로 널리 알려진 H-온드림(현대, 191.0억원), LG소셜 캠퍼스(111.7억원)와 비등한 계위(Tier)이며, K-water(13.6억원)나 SH(1.0억원)와는 격차를 벌려 국내 최고 권위의 공기업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오랜 전통과 명성 자랑¹⁸⁾
- 개별 기업당 지원금 환산 시 정부 창업패키지 지원사업(1~3억원)보다 낮지만, 민간이나 공공기관 주관의 공모전·경진대회(최대 2천만원) 범위와 비단 비슷하거나 많아 매력적
-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¹⁹⁾ 들어와 해를 거듭할수록 소셜벤처 지원금이 괄목할만한 성장가도를 달렸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LH 부동산 투기사건 여파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재차 반등([그림 4-5] 참조)
- 올해 LHSV 지출규모는 평년과 비슷한 6.7억원(창업지원 7기 중 10팀) 내외 집행으로 현상유지 기조를 이어가, 무난히 누적 지원금 70억원을 넘어설 예정

[그림 4-5] LHSV 규모 추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경쟁률

- 지금까지 LHSV 응모팀이 대략 3천팀(선발 161팀, 11개 기수)으로 평균 경쟁률 20대 1에 근접하는 등 고용절벽 위기에 처한 청년층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고공인기 체감
 - 전국에서 총 2,822팀(16,342명)²⁰⁾이 응모해 18:1(≒5.7%)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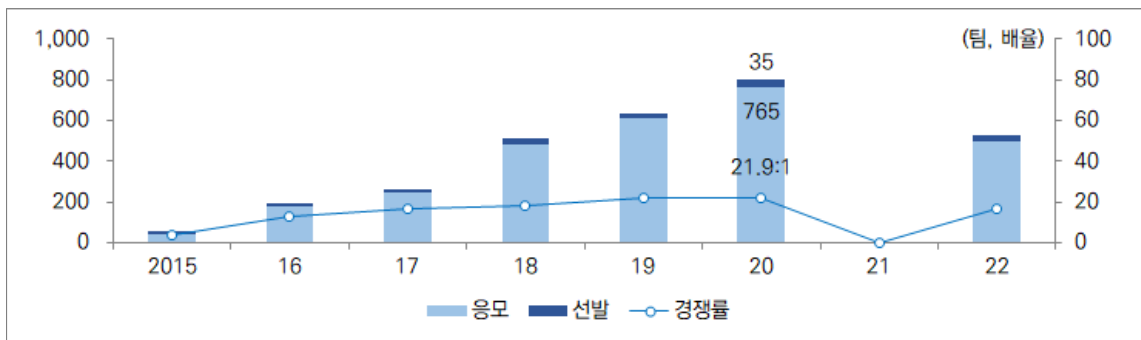
18) 기관별 연차 성과보고서 및 인터뷰 참조

19)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8번)를 내세움

161팀(730명, 연평균 20팀)만 신규 선발, 청년창업가들의 소셜벤처를 향한 드높은 열정과 도전의지 확인

- 특히 코로나19 경제한파 속 예산증액(+25%, 17.3억원)으로 역대 최다 팀과 인원(765팀, 7,008명)이 몰려 22:1의 빼어난 경쟁률 기록(㈜게릴라즈, 이노버스, 플리옥션 외) 등 춘추전국시대(Peak)를 구가하다가 2년 만에 신속 재개([그림 4-6] 참조)
- 기부금 계정에 한정된 예산책정으로 물리적인 사업운영 및 확대 한계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치솟는 인기로 당분간 경쟁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4-6] LHSV 연도별 신규공모 응모현황 및 경쟁률 추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21년은 LH 부동산 투기사건에 의한 지원금 단절로 신규선발 전무

20)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소셜벤처 전부가 한 번씩은 공모에 응찰한 셈

2. 3. 세부 특성

1) 사업분야

- 소셜벤처 업력 및 대상에 따라 [표 4-1]처럼 창업(Start-up)과 성장지원(Scale-up)의 2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차등 적용
 - 창업지원이 예비 및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2년간 4천만원을 단계별 지급배분(승급제²¹⁾: 최초 1천만원 + 2년차 3천만원)이라면, 성장지원은 7년 미만 도시재생·주거복지·지역상생 등 LH 업역과 연관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익 프로젝트에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마찬가지로 전자(184팀, 75.7%)가 신규 소셜벤처 성장모멘텀 창출과 창업기업 육성에 도모하는데 반해, 18년 4년차에 신설된 후자(43팀)는 기존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강화 및 상생협력 파트너십 형성 지원에 방점을 둠
 - 일례로 창업에 성공해 성장지원 분야로 넘어가 중복 선정된 기업은 윈윈, 꿈틀협동조합, 잇마플, 파란공장 등 단 4개팀(2.5%)임

[표 4-1] LHSV 사업분야별 지원요건 및 내용

분야	창업지원(Start-up)	성장지원(Scale-up)
취지	창업의지 및 사업아이템이 탁월하나, 자금 및 경영의 전문지식 부족	기업성장 견인의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있으나, 내부 역량만으로 실행 불충분
응모자격	예비 및 3년 미만 초기 창업자(팀) 만19~39세 이하 청년(개인 및 5인 이하 단체)	7년 미만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법인) 도시재생·주거복지·지역상생 분야 공익프로젝트
기본방향	신규 소셜벤처 성장모멘텀 창출, 창업기업 육성	기존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강화
목표	소셜 비즈니스 모델 혁신(씨앗 1년차) 정책 연계 및 제도권화 (새싹 2년차)	LH 업역 관련 사업모델 발굴 및 공익가치 향상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형성
신설시기	2015년	2018년
지원금	최대 2년간 4천만원(단계별 지원)	1년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수혜규모	184팀(571명, 75.7%)	43팀(397명, 17.7%)
심사기준	소셜미션, 3종(문제인식,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본 3종 + 실행전략, 수행역량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한시적 시범사업(2019~20)의 후속지원(16팀, 6.6%)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제외

2) 기업형태 및 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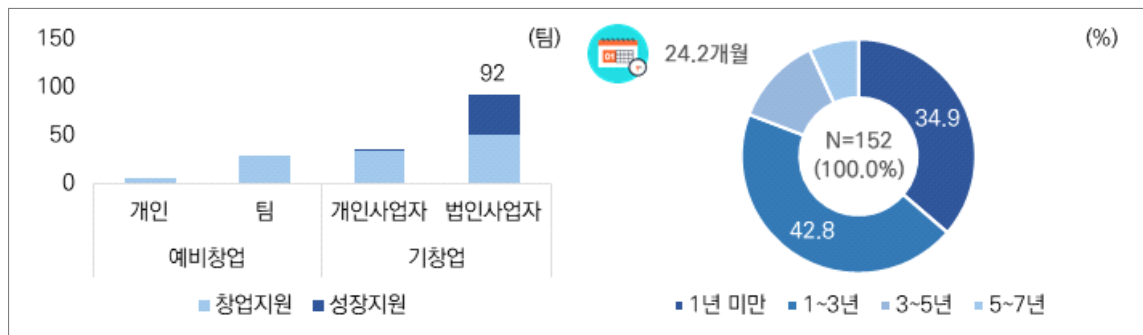
- LH 소셜벤처는 기업체 모습을 갖춘 기창업의 법인과 주식회사 설립이 많았으나, 업력 3년 미만으로 짧아 초기 창업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21) 미승급도 36차례로 엄격한 심사관리

TEA)에 집중하는 등 공적기관(정부·지자체)의 사업화지원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²²⁾

- 조직형태는 개인/팀(5인 이하) 단위 모집의 불완전한 예비창업(34팀, 21.1%)보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적의 기업체 모습을 꾸린 기창업(127팀, 78.9%)이 보편화되었는데, 다수 구성원 참가 아래 자금조달(융·투자), 신뢰·투명성, 정부 지원제도 수혜측면에서 법인설립이 몹시 유리한 구조인 까닭
- 사업기간으로는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 존속의 초기 창업기업이 118팀(77.6%)로 압도적이고 평균업력(Firm Age)도 24.2개월(M)에 불과해([그림 4-7] 참조, 우리나라 3개년(2019~21년) 간 사회적벤처 연령 증가(4.5→6.2→7.1년)와 7년 미만 창업기업 비율(79.1→66.4→60.3%)이 낮아진 상반된 현주소를 암시(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 업력이 짧은 이유는 국내 소셜벤처의 정식 입법화가 오래 지나지 않아, 수적으로 성장지원(49.8개월)에 비해 사업화 경험이 전무한 창업 이전 준비단계인 신생 극초기(1년 미만, 34.9%)와 창업지원 분야(14.0개월, 73.3%)²³⁾에 쏠리기 때문임

[그림 4-7] LHSV 기업형태 및 업력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1: 업력=당해 지원금 지급말일-개업일

주2: N/A(9개) 사유는 제도 초창기나 최신으로 미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3) 신용등급

- LH 소셜벤처 중 시장에서 안정적(Stable)이라고 느낀 소위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의 상위 기업체가 (주)댄스플래너, 선랩건축사사무소 등 고작 8팀(10.1%)에 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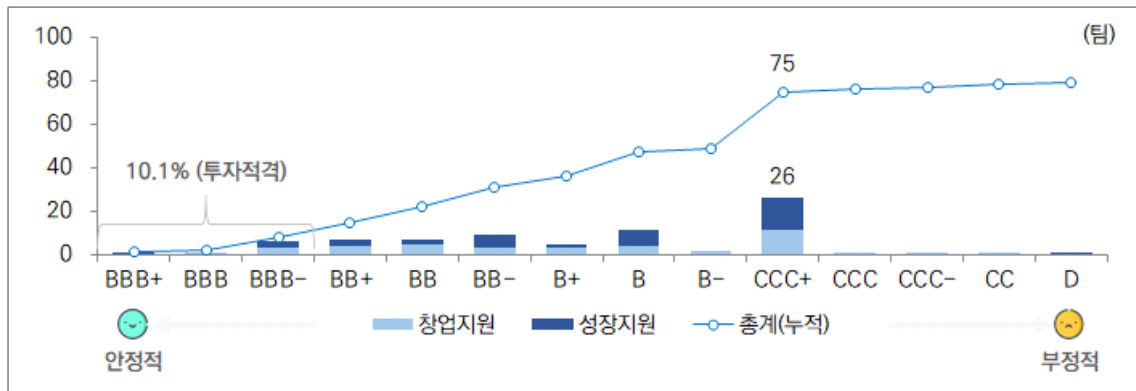
22) 소셜벤처 육성사업(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서울숲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서울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은 업력 최장 7년(84개월) 이내로 모집제한 조건을 둠

23) 개인사업자 형태로 득한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지원시기보다 설립일이 늦은 경우, 최초 선발 당시 신고일 적용

는 등 일반기업 대비 신용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창업 및 사업
회자금 융통이 힘든 여건임을 고스란히 방증

- 신용등급(Credit) 구간별로는 하단 히스토그램(Histogram)에서 알 수 있듯이 투기의
심(BB+ 이하)이 무려 89.9%에 달하고 이 중 30팀(38.0%)이 장래 채무불이행(Default)
위험가능성을 내포한 CCC+이하(불량)²⁴⁾에 포진(e.g. 공생공사, (주)안테나 외)한데 반
해, 우량기업(A-급 이상)은 부재([그림 4-8] 참조)
- 이를테면 대기업 계열사나 일반 상장리츠(BBB+~AA-) ²⁵⁾ 수준의 안정적인 회사채 발
행이 가능한 소셜벤처 기업체는 10곳 중 1곳으로 신용등급 미달이 압도적
- 재무실적만을 이용한 기존 신용등급 체계는 사회적 가치 소홀로 소셜벤처의 기업가치
가 저평가된 경향이 다분하므로(중소벤처기업부, 2019),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 적용기준(B+이상: 보통)을 낮추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4-8] LHSV 신용등급 구간별 현황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C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전체 10개 등급(AAA~D)으로 분류, AA~CCC 등급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표기

4) 지역

- LH 소셜벤처 선발기업들은 지리·공간학적으로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분산적 집중
(Dispersed Concentration) 구도 하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광역권 단위를 주무
대로 열렬히 활동 중임
- 소셜벤처의 사업장 소재지 분포는 행정구역 상 전국 7개 광역권 도처에 골고루 산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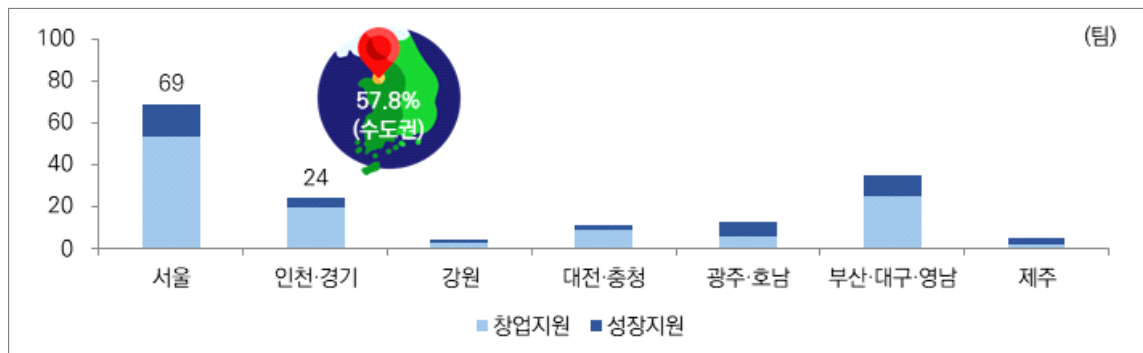
24) 신용등급이 조사된 기업은 79개(49.1%)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등급(NR)을 반영할 시 이 값은 훌쩍 초과할 것임

25) SK(AA+), 삼성전자(AA-), 홈플러스(BBB), 한화-롯데리츠(A+), 이지스레지던스리츠(A-) 참고

형국이나, 서울(42.9%, 69팀)을 포함한 수도권(57.8%, 93팀)과 LH 본사(Headquarter)가 자리한 부산·대구·영남권(21.7%)에 대거 밀집 양상([그림 4-9] 참조)

- 서울에 국한해서 세부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생적 발원지인 성수 소셜벤처 벨리를 필두로 테헤란로 일대의 강남(GBD), 도심(CBD), 여의도(YBD) 등 전통적 3대 업무지구
- 에 집결하며 강한 혁신클러스터(Cluster) 중심지 형성
- 그 이유로는 서울 강남과 성수 입지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금융·투자·IT업종이 모여 동종산업 간 인프라 공유, 숙련된 인재 풀(Skilled Labor Pool) 공급, 기술 및 정보교환 취득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이점을 풍족히 누릴 수 있어, 소셜벤처 창업에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해석
- 이러한 사실은 지식기반형 산업일수록 수도권 대도시 지향성이 소셜벤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스타트업, 프롭테크 기업군의 입지성향을 경험적으로 밝힌 여러 연구결과들(박민진·김태영, 2018a; 권재연·남진, 2022; 송기욱 외, 2023)과도 맞닿음
- 이미 국내 소셜벤처의 탈수도권화(54.1%, YoY: +11.1%p)²⁶⁾ 움직임이 관측된 점에 미루어보면, LHSV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 편중을 벗어나 전국 지방거점으로 입지 다각화 유도가 바람직함

[그림 4-9] LHSV 입지 및 권역별 분포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기업체 본사 소재지(홈페이지 주소) 분류

5) 소셜미션

- LHSV가 해결하고자 한 사회문제는 전 지구적 공통 관심사인 환경·에너지부터 동물 복지까지 광범위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²⁷⁾와 ESG에 적극 부응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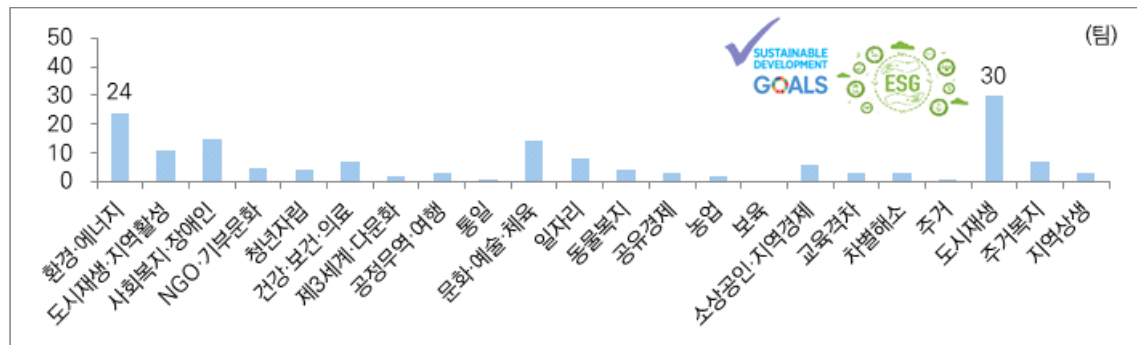
26) 소셜벤처스퀘어가 구축한 맵(GIS Map)에서 상세한 위치, 밀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27) 제70차 UN총회(2015.09)에서 결의한 국제사회 최대 공동규범으로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한 모든 인류

창출 공동이행 노력을 펼침

-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생활 속 급속한 변화로 환경오염, 기후위기, 빈부격차, 실업, 인간소외, 성차별 등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할 중점 사회문제는 23개 분야로 집약([그림 4-10] 참조)
- 이 중 사업유형별로 창업지원이 환경·에너지(14.9%), 사회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건강·보건 등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와 밀접한 범분야(19개)라면, 성장지원은 LH 업역과 친화적인 도시재생(18.6%), 주거복지, 지역상생의 특정분야(4개)를 다름
- 국내 소셜벤처들이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관심 1순위로 둔 점에서, LHSV는 본업과 연계성이 큰 도시, 주거, 지역 부문에 특화되어 높은 비중을 점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소셜미션(Social Mission)의 특징은 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반대중의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임팩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대부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라 삼을 수 있는 UN SDGs와 ESG 방향과 일치²⁸⁾
- 즉 사회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수많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제품·서비스 제공, 고용촉진, 플랫폼 운영 등) 개발의 기회창출로 이어져 소셜벤처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 영향

[그림 4-10] LHSV 사회문제 해결 유형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지속가능발전포털(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분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를 주제에 맞게 변형·재구성
 주2: 기타(2), 자율주제(3)는 차트 시각화 생략

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 제시

28) GIIN(2019)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의 77%가 UN SDGs를 소셜임팩트 범주로 택해 사회적 가치의 통용된 표준으로 사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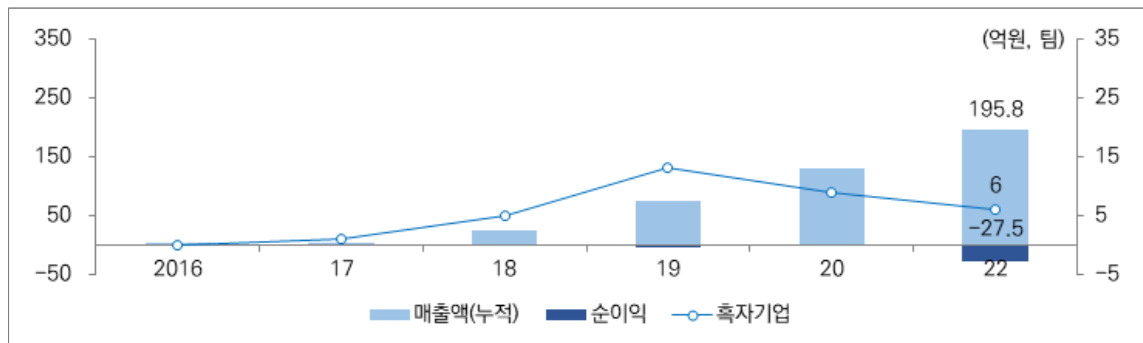
3. 운용성과

3. 1. 수익성

1) 매출 및 성장률

- LHSV 선발기업들의 누적 매출액 200억원 달성에 육박하고, 단기간 내 순이익을 거두기 어려운 재무여건²⁹⁾하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Cash Flow: CF) 상 흑자 경영기업이 과반 차지
 - 지난해까지 LHSV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195.8억원(N=67, 평균 2.9억원/社)³⁰⁾으로 신규 성장지원 분야(5.2억원/社)를 선보여 본격적인 프로그램 면모를 꾸린 5년전(24.4억원)에 비해 8배 가량 신장([그림 4-11] 참조)³¹⁾
 - 시장진입 초기 창업 및 성장단계의 소셜벤처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확립을 위해 제품·서비스개발, 투자, 판촉 등 사업화자금을 수반하므로 연중 당기순이익(Net Income)이 적자인 가운데, 전체의 50.7%(34팀)가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BEP)을 넘어 금전적 영업이익(+)을 시현 중
 - 한편 기업 재무구조는 총자산 4.3억원으로 자본(1.2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261.0%에 달하고, 심지어 31팀(46.3%)이 잉여금 누출에 따른 자본잠식(Capital Impairment) 우려로 타인자본 의존도가 극심함을 말해줌

[그림 4-11] LHSV 매출 및 흑자기업 추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C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신규 선발당시 회계·재무제표 보유기업(N=67)에 한함

29) 창업 후 이익성취까지 보통 25.7개월 소요로 전해짐(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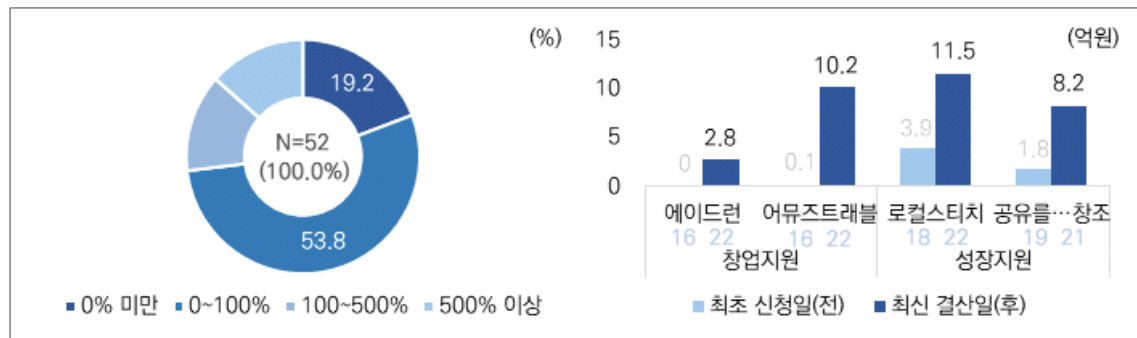
30) 3억원 미만 구간(67.2%)에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중위수(Median, 50%)는 126백만원임

31) 예시적으로 주차장만드는사람들(14.3억원), 잇마플(13.7억원), 딜리버리랩(13.2억원)처럼 대개 2020년 경과시점의 성장지원 사업 부류일수록 매출액이 높은 경향

- 기업별 지원시기 전후로 LHSV의 연간 매출액 변동률(Fluctuation)³²⁾은 2.7배가 급증해 동종산업 실적 전망(20.8%) 대비 미래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이 우수하다고 평가³³⁾를 내릴 수 있음

- 최초 지원신청~최신 결산일의 재무성과에 대해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 조사가 능 기업(N=52)³⁴⁾을 도출한 결과, LHSV 매출액 증감률(270.3%)이 전체 소셜벤처 산업 컨센서스(Consensus)를 훨씬 웃돌았는데 그 원인은 창업지원 분야(32팀, 404.2%)의 절대적 규모 크기가 현저히 작아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임
- 사업분야별 선두주자인 에이드런(창업1기, 5,540.0%), 로컬스티치(성장1기, 709.3%)를 비롯해 42팀(80.4%)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그림 4-12] 참조), 나머지 10팀(e.g. 휴먼축연연구소살림㈜, △33.6%)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냄

[그림 4-12] LHSV 매출액 변동률 구간별 분포 및 상위권 고성장 기업



2) 투자유치

- 올해 LHSV 참여기업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120억원 초과 달성하였고, 독립계 벤처캐피탈, 임팩트 금융기관 등 투자주체 다원화와 펀딩 규모 대형화로 20개 남짓한

32) 최근 3년간(2019~21) 사회적벤처 매출액(1,659→2,260→2,348백만원) 증감률을 계산한 후, 기술보증기금(2022)의 가치평가모형 중 성장성 판별항목에 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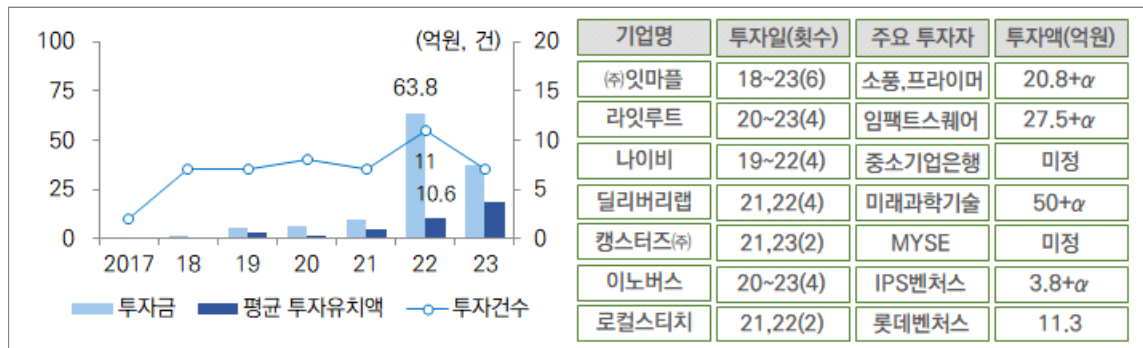
33) 종종 일반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척도로 쓰이는 순이익의 경우 이제 막 사업을 개시한 현장 소셜벤처 재무성과 기술에 맞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시점이 각기 다른 자료의 일관된 비교가 용이하도록 매출액 증감률 지표를 권고한 소풍(2019)의 대안 차용

34) LHSV 전체 모수(Parameter)의 32.3%를 설명하며, 표집추출(Sorting)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 오랜 시일이 흘러 매출액을 모르거나 발생하지 않는 사례와 (2) 2022년 선발기업은 대조군 부재로 최종 탈락시킴(N=15)

소수 유망 소셜벤처에 선별적 투자가 이루어져 성장 견인

- 금년 3분기까지 LHSV 참여팀 중 피투자기업(Investee) 21팀(성사율 13.0%≒벤처법인 12.7% 동등)에게 총 49건의 투자를 단행하여 누적 투자금(Investment Amount)이 최소 124.7억원(+ α)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상당수 투자건수(55.1%)가 대외비 성격의 미정임을 참작하면 이를 거뜬히 경신할 예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로 2022년 신규 투자액이 급증해 이례적이란 의견이 증론이지만(관계부처 합동, 2023), (주)잇마플(Eatmapl: Eats My Pleasure)³⁵⁾, 라잇루트, 나이비, 딜리버리랩, 캔스터즈(주) 등이 시리즈(Series)별 후속 투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자본시장 내 소셜벤처 고유의 사회적 가치가 높게 인정받음을 시사(그림 4-13] 참조)
- 소셜벤처 투자는 주로 시드(Seed)~프리 A(Pre-A) 이하의 창업 초기단계에 약 2.3회 라운드(Round)를 밟아 평균 5.9억원/社을 유치함으로써, 기업 성장기반 마련

[그림 4-13] LHSV 참여기업 투자유치 실적 추이 및 주요 사례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기업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1: 투자액 미정(N/A=27)은 투자건수에 산입, 금액 미반영

주2: 투자유치 사례는 외부 기밀정보로 언론보도 노출기업에 한정

3. 2. 사회적 가치

1) 일자리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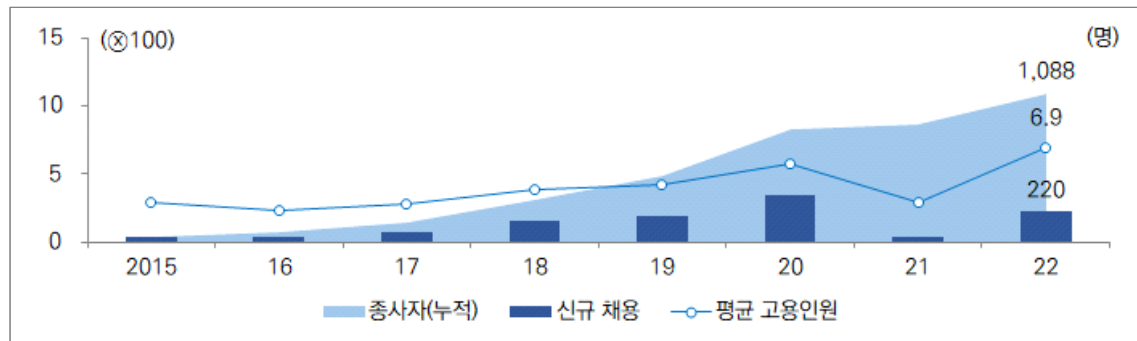
- LHSV는 1천명 넘게 사회혁신을 꿈꾸는 창업가(인재)를 양성·배출하였고, 30대 이하 근로자 청년, 여성,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취업유발 효과가 높아 구성원

35) 데이터·ICT 기반 헬스케어(Health Care) 플랫폼으로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 추천 및 정기배송 서비스(맛있저염 브랜드: 신장병 저염식 개발) 표방하에 3만여명 고객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어, 2017년 예비창업 후 소풍, 프라이머, 나우IB캐피탈, 카이스트 창업투자지주, 프론티어랩스 등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6번째 시리즈A까지 누적 30억원 투자유치 마무리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탁월

- LH소셜벤처에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임직원 종사자 수(Employee)는 누적 1,088명으로 평균 고용인원(4.5명)³⁶⁾ 증원세가 뚜렷하며, 지원금(사업비) 십억원 당 168.6명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발휘([그림 4-14] 참조)
-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형³⁷⁾의 기준 적용 시, LHSV의 순고용효과는 132.5명/십억원(생산 1단위)으로 추정(고용노동부, 2023)³⁸⁾되며, 산출액(Output) 십억원 당 취업유발계수인 전산업(10.1명), 사회복지(28.9명)를 추월(한국은행, 2019)
- 이렇듯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소셜벤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 노력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

[그림 4-14] LHSV 고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사회적경제조직

- LH 소셜벤처 창업·성장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통해 과반이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와 주거·도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 그간 LH 지원을 받았던 소셜벤처 161팀 중 87팀(54.0%)이 아래의 [그림 4-15]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과 협동조합 법단체의 공식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으로 발돋움해 제도권 연착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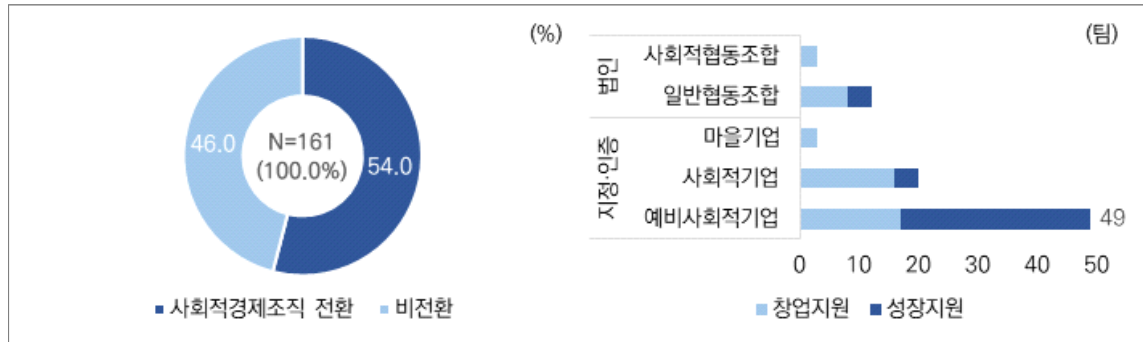
36) 창업지원은 팀당 5인 이하로 신청제한을 둔 영향이 큼

37) 오계택·류성민(2015)에 따르면,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2011~14)의 간접 고용효과는 예산 십억원 당 15명 정도임

38) 산출식은 지원업체 수(243팀)에 창업기업 당 순고용기여율(창업초기지원: 0.56, 사업화지원: 0.5)을 곱함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유형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49팀, 부처·지자체형)과 사회적기업 인증(20팀)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일반·사회적협동조합(15팀), 마을기업(3팀) 등 다양한 조직형태로 진출

[그림 4-15] LHSV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및 설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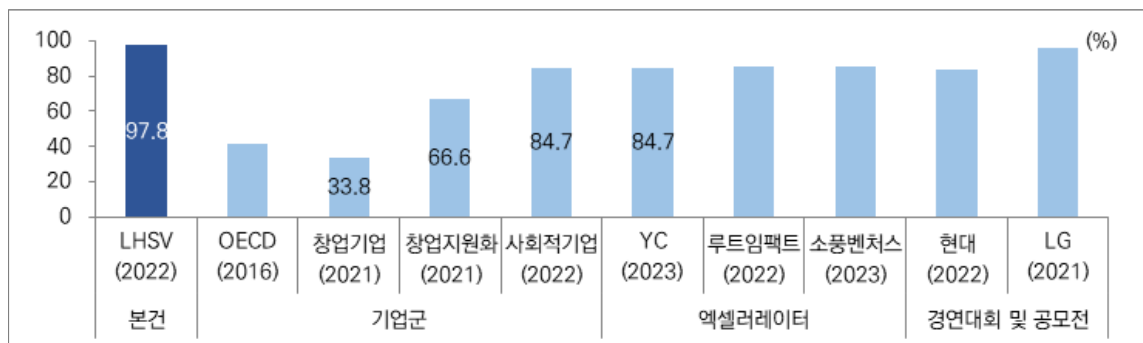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인증과 법인은 중복(e.g.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복수 지위 인정)

3) 생존율

-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척박한 풍토에서 LHSV 출신 소셜벤처 졸업기업의 97.8%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한 채, 타 유형(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 66.6%) 보다 꽤 높은 생존율(Survival)로 죽음의 계곡 탈출(창업진흥원, 2022)
- LHSV 승급·졸업을 무사히 마친 소셜벤처 92팀(창업지원 59팀, 성장지원 33팀) 중 2곳만 중도 휴폐업(진주새뜰협동조합, (주)클래식온)할 뿐, 창업 후 97.8%가 존속하므로, 공사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성과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그림 4-16] 타 유형 대비 LHSV 출신기업 생존율 비교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통계청(2021), OECD(2016), 고용노동부(2022), 창업진흥원(2022) 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본건 창업지원 분야는 승급팀(2년차) 집계, 기관마다 비교대상별 조사시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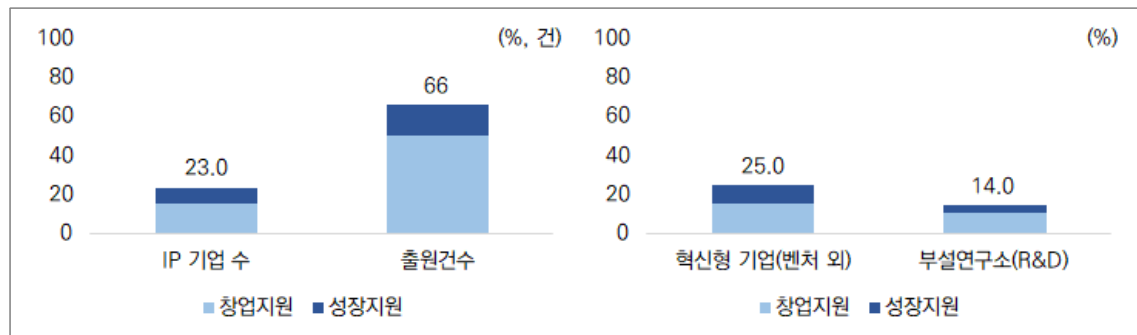
- 놀라운 점이라 하면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³⁹⁾ 문턱 구간인 5년차 생존율 지표 경우([그림 4-16] 참조), OECD 주요국 평균(41.7%)은 물론 국내 일반 창업기업(33.8%), 창업지원사업(66.6%), 사회적기업(84.7%),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 피투자사(루트임팩트: 85.2%, 소풍벤처스: 85.0%, Y-Combinator: 84.7%) 및 각종 경연대회 주관사(현대: 84.0%, LG: 95.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충분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3. 3. 혁신성

1) 지식재산권

- LHSV에서 출원한 지식재산권은 60건 이상(IP 활동기반 23팀)으로 시장경쟁력을 우위 선점한 만큼,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기술혁신 역량도 구비
 - 창 의 와 혁신의 산출물이라 일컫어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유기업 비율은 LHSV 전체의 1/4 정도(23팀)에 그치나, 등록건수는 특허, 실용신안, SW저작권 등 66건(평균 0.66건)에 달함([그림 4-17] 참조)
 - 평소 벤처·이노·메인비즈 등⁴⁰⁾ 혁신형 중소기업(25.0%)과 부설연구소(14.0%) 등 기술개발(R&D) 조직 인력도 보유(어뮤즈트래블: 12건, (주)와이닷츠: 11건, (주)리하베스트: 7건, 주차장만드는사람들(주): 4건)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

[그림 4-17] LHSV 지식재산권 등록 및 혁신역량 유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C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출원건수=4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권)+SW프로그램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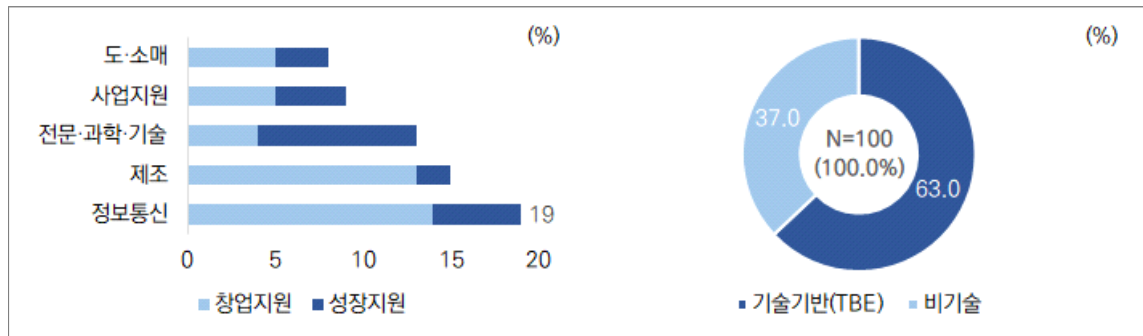
39) 예컨대 업력 3~5년차 기업은 연구개발 성공 뒤에 극심한 매출부진과 자금조달 난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결국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뜻함

40)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혁신성장성 판별요건 1번(법령 인증)에 해당(기술보증기금, 2022)

2) 기술기반 업종

- LHSV는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사회 급진전에 따라 제조, 정보통신 등 대체로 경제적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기술기반 업종⁴¹⁾을 영위하여, 전체 소셜벤처 업태 결과와 합치
 - 통계청(2017) 한국표준산업(KSIC, 10차 개정) 대분류에 근거한 LH 소셜벤처 주력 업종은 아래 [그림 4-18]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정보통신(19.0%), 창업자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조(1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0%), 사업지원(8.0%) 차례 순
 - 창업동기 상 고소득과 사업화 목적 설립의 기회추구형인 기술기반(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TBE) 업종이 대세(63.0%)로, 부동산, 도·소매, 숙박·음식업 위주의 선택여지가 없는 생계형 창업과 이질적임
 - 이종업역 간 융복합과 민관협업 프로젝트 증가로 생활혁신 창업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플랫폼 개발 혹은 제품·서비스 생산 등 미래 신산업 개척을 이롭게 함

[그림 4-18] LHSV 주력 업종 및 기술기반 비중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C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기술기반 업종은 제조업(C) 중 24개, 지식집약서비스업(J, M 등) 중 15개

3. 4. 기타

1) 임대료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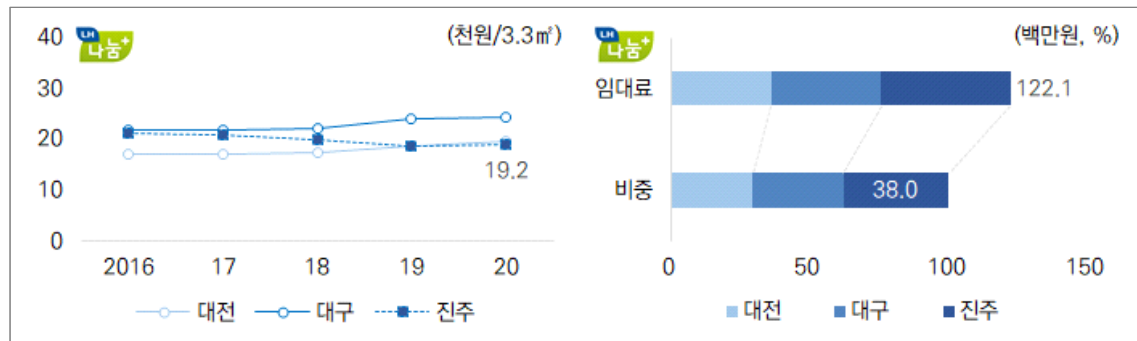
- 공사 사옥 내 나눔플러스 청년 창업센터 조성(행정자치부 협업모델)으로 소셜벤처 25팀이 입주를 마쳐 업무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및 무상임대 시 1.2억원의 임대료 지불

41) OECD, EU 분류체계를 재구성한 창업진흥원(2023) 기준 차용

액 절감 등 사업주 경제적 부담 경감

- LH 지역본부에 사무실(독립·개방형), 회의실, 휴게공간, 부대 편의시설(OA존)로 구성된 나눔+ 청년 창업센터(2016~20, 대전·대구·진주 등 3곳)를 두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주)윙, 빅코지, 목소리또 등 최종 25팀(10.3%) 입주완료
- 청년 창업센터를 평당 2만원에 상응하는 주변 업무시설(Office) 시세 대비 무상임대료 공급·대여할 시⁴²⁾, 입주사의 임대료 절감액은 총 122백만원(기업 당 5백만원 이내)으로 추산([그림 4-19] 참조)
- 청년 창업센터에 입주한 소셜벤처 기업들은 임대기간(기본 1년+추가 연장심사) 동안 전액 면제로 창업 초기 임대료, 시설이용에 소모되는 고정비 지출 절감 혜택을 누려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4-19] 청년 창업센터 공급에 따른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절감액



출처: LHSV 내부자료(2022), 젠스타메이트(2020), 한국부동산원(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보증금 운용이익, 관리비 차액을 배제한 순 임대료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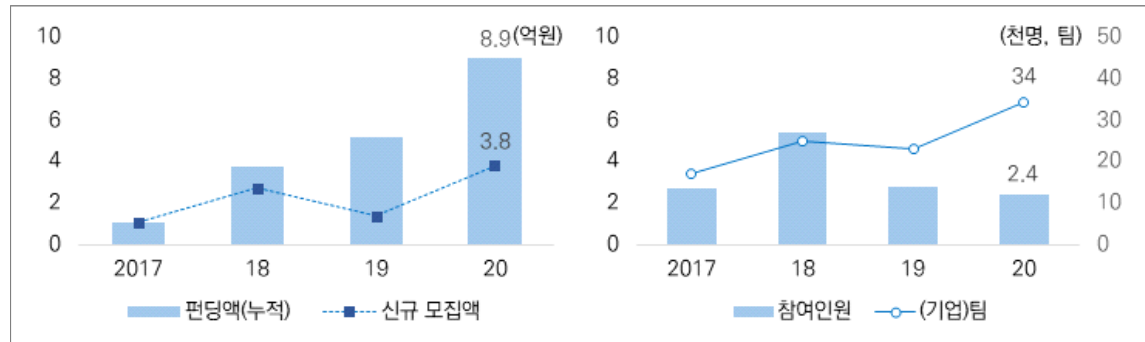
2) 크라우드펀딩

- LH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 행사에 참가한 청년 창업기업 대다수 모집금액 초과로 가치향적 소비자에게 시민운동 동참 전파 및 따뜻한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임팩트 투자시장 활성화 일조(이선화·이상윤, 2023)
 - 지난 4년간 LH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Crowd Funding, 2017~20) 행사로 위세임, 프로젝트 기억, (주)선랩건축사사무소(투자형), (주)공유를위한창조(LH 사업영역) 등 총 99팀의 사업 프로젝트가 개설, 참가인원(Sponsor) 13,223명이 후원하여 누적 펀딩액 8.9억원(903만원/팀)달성([그림 4-20] 참조)

42) 기본가정(Assumption)은 건물 연면적(334㎡)에 공급시점 연도별 지방권 오피스 임대료 평단가(17.1~24.3천원/3.3㎡)를 곱해 시산

- 소셜벤처 제품·서비스 기업과 가치소비를 희망하는 이용자 매칭의 리워드(Reward)형
- 43)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주)오마이컴퍼니, 텀블벅)을 통해, 창업가들은 외부 자금조달, 사업성 검증 기회로 삼아 판로확대, 고객소통 등 지원성과의 대외홍보 마케팅에 유익

[그림 4-20] LHSV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및 참가인원 추이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21~22년은 미 실시

43) 온라인 플랫폼(SNS)에서 불특정다수 투자자로부터 문화·예술창작 분야 등 사업 프로젝트의 소액 펀딩금액 대가로 소셜벤처(체인지메이커)가 만든 제품·서비스로 보상받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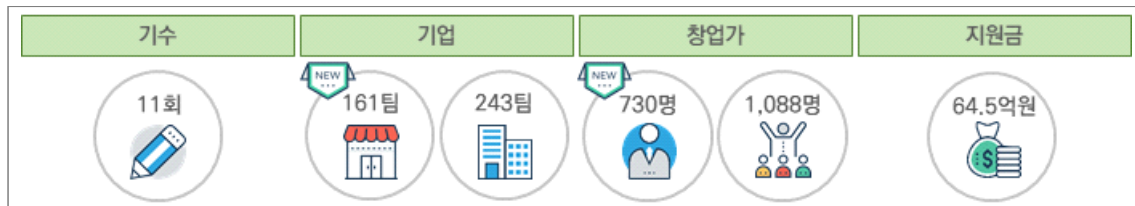
4. 소 결

■ LHSV는 역대 243팀에 지원금 64.5억원을 지급해 사회·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성과

○ LH는 청년 소셜벤처 창업준비와 기업 성장을 돕는 지원사업 정책을 추진, 시기나 외형적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정착

- LHSV는 2015년부터 9년간 11개 기수에 걸쳐 다음의 [그림 4-21]처럼 누적 약정기준 소셜벤처 기업 243팀, 창업가 1,088명(신규 공모 161팀, 730명)에게 지원금 총 64.5억(평균 8.1억원/년)원 전달하였고, 규모로는 현재 존립 중인 사회적벤처기업(2,184개)의 11.1%를 점유
- 응모신청 기업만 2,822팀(16,342명)이 몰려 경쟁률 17.5:1의 높은 호응 속에서 제2차 벤처붐(Boom)이라 불릴 정도로 고용절벽을 마주한 청년 세대들의 소셜벤처 창업에 도전하려는 열망 실감
- 소셜벤처 판별기준(소셜벤처스퀘어, 2022)의 사회성 항목에 LHSV가 공식 등재·산업(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주최 수상 또는 육성사업 참여: 8,9번 20~30점)되어 규모면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21] LHSV 총량 규모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중복 누적기준(NEW는 신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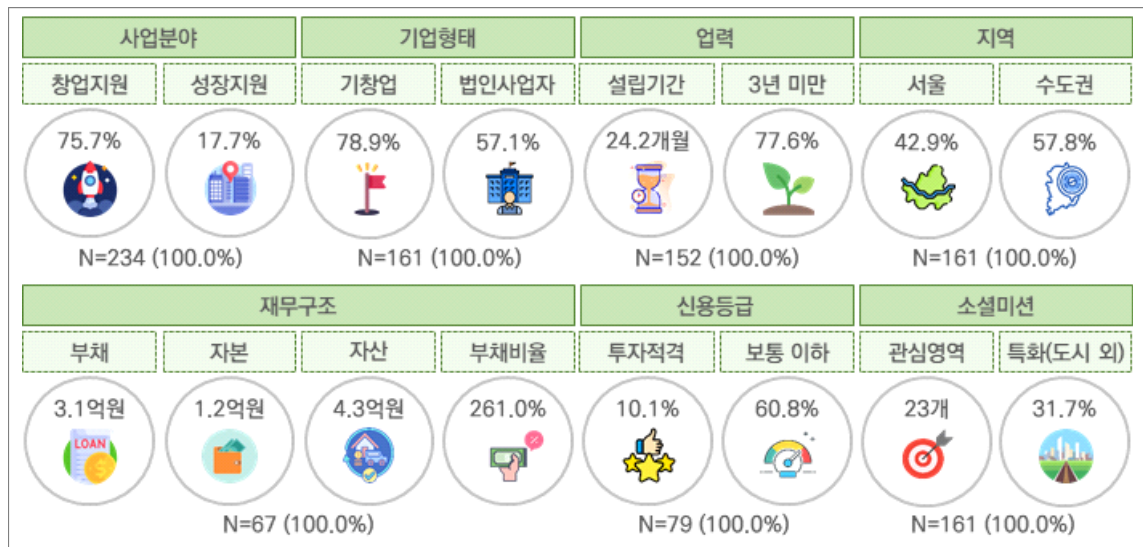
○ LH 소셜벤처의 주된 특징을 도출하면 전국 광역권 단위로 다양한 소셜미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활동범위가 넓으나, 대부분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 스타트업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등급이 낮아 열위

- 사업분야는 창업지원(75.7%, 184팀)과 성장지원으로 크게 양분하며, 기업형태는 기창업의 주식회사 혹은 법인화(57.1%) 지위를 취함
- 지역은 서울(42.9%), 경기 등 수도권(57.8%, 97팀)에 지리적으로 밀집하되 전국 지방도처로 뻗어나가고, 이들이 관심있는 제반 소셜미션 23개 영역 역시 LH 업역과 긴밀

한 도시재생·주거복지·지역경제(31.7%), 환경·에너지(14.9%), 사회복지(9.3%), 문화·예술·체육(8.7%), 건강·보건(4.3%)을 두루 섭렵하여 전 지구적 인류 공통목표인 UN SDGs나 ESG 가치 추구의 지향점과 정합

- 통상 2년(24.2개월) 남짓한 3년 미만 초기 창업기(77.6%)로 업력이 짧아 정부 창업지원사업 요건(7년 이내)을 만족하나, 재무구조(자산: 4.3억원, 부채율: 261.0%) 취약성으로 신용등급이 저조해 겨우 10.1%(BBB- 이상)만이 투자부적격을 간신히 면한 형국 ([그림 4-22] 참조)

[그림 4-22] LHSV 세부 운용특성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정보를 공개한 사업장 표본 수(Sample), ()는 모집단 설명력

- LH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 노력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 이윤확대, 신규 고용창출, 민간 투자유치 성사로 사회적 가치(공익), 경제성(수익성), 혁신성이 뛰어난 사업모델이자 정책적·재정적 지원 효과의 타당성 입증([그림 4-23] 참조)

- LH 소셜벤처가 올린 매출액은 195.8억원⁴⁴⁾으로 영세(3억원 미만: 67.2%)하나 절반이 흑자(Surplus, 50.7%) 경영기업에 속하고, 지원시기 전후 증감 변동률이 매해 2.7배(동종산업: 20.8%)씩 신장하는 점에서 인상적(경제성_i)
- 외부 자본시장에서 소셜벤처가 조달한 투자유치액 또한 최소 124.7억원(+ α)으로 우

44) 매출액, 투자유치금 성과는 표본부족으로 인한 조사결과 과소 해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량 피투자사 21팀((주)잇마플, 라이트루트, 나이비 등)에 49건이 집행되었고, 주로 5억원 미만 소액의 Seed~Pre A 이하 단계에 선별적 투자가 이루어져 성사율 13.0%에 달함(경제성_ii)

- 고용인원은 1,088명(4.5명/팀)으로 청년, 여성,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신규 채용이 활발하고, 지원금 십억원 당 17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사회적 가치_i)
- 사업기간 동안 LHSV 출신팀의 54.0%(87팀)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로 제도권 내 진입하였고, 졸업기업 97.8%⁴⁵⁾가 타 기관대비 월등한 생존율(5년차 사회적기업: 84.7%)로 데스밸리 극복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사회적 가치_ii)
- 소셜벤처의 창조적 경제활동에서 생성된 지식재산권 획득기업은 23.0%로 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 66건을 출원하였고, 벤처인증과 부설연구소(R&D 조직) 설립(39.0%)까지 더해져 기술혁신 역량을 뒷받침(혁신성_i)
- 산업구조는 정보통신(19.0%), 제조(1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0%), 사업지원(8.0%) 등 비대면·디지털 ICT를 적극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기술기반(63.0%) 업종이 강함(혁신성_ii)
- 청년 창업센터(LH 대전·대구·진주사옥 3개소)를 소셜벤처 업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해 25팀(10.3%) 기 입주, 운영기간(2016~20) 내 주변 경쟁 부동산시세 대비 입주사의 임대료 지원 절감액은 1.2억원(5백만원/팀)으로 특히 코로나19처럼 경기침체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시기에 창업 초기 불필요한 고정비 지출을 줄여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기타_i)
- 크라우드펀딩(리워드형) 캠페인 4회 시행으로 개설된 사업 프로젝트 99팀에 후원자 13,223명이 참가해 목표치를 상향한 8.9억원 모집성료. 온라인 플랫폼 상 고객(소비자)들에게 소셜벤처 제품·서비스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 전달로 마케팅 홍보 및 판로개척, 투명성 진작, 고품질 자원 선순환 분배 극대화(기타_ii)
- 이를 종합해보면 소셜벤처의 객관적인 성과지표에서는 수익·혁신성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약진이 돋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보육기능이긴요한 기업 성장초기(엑셀러레이팅 투자단계) 창업분야 지원 치중에 기인
 - 공공의 정책적 수혜대상으로서 바람직한 (예비)초기 시점 창업지원 분야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경영실적 악화 등 기업성과가 잠식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LHSV 운용제도의 양면성(Ambilaterality)이자 제도적 모순점이 발견

45) 타 기업이 그러하듯이, 해가 지날수록 업력이 쌓이면서 생존율 70~80%로 점점 낮아질 확률 농후

- 위에 언급한 여러 지표 중에서도 사업분야는 매출, 신용등급, 투자유치, 지적재산권 등 4가지 항목의 경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불가분의 의존관계가 성립되어 실적이 저조한 바, 창조적 지식과 사회혁신 창출 원천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재생산성 구조로 귀착되는 연쇄적 악순환 고리(Doom Loop: 지적재산권 감소→매출하락→신용등급 저하→투자위축→기업부실)를 끊어내야 할 것임

[그림 4-23] LHSV 부문별 성과지표 정량적 평가



출처: LHSV 내부자료(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정보를 공개한 사업장 표본 수(Sample)

제 5 장

가치창출형 소셜벤처 모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LAND
INDUSTRY
INSTITUTIONS
LHI

&

제5장 가치창출형 소셜벤처 모델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

1. FG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및 내용

1) 조사목적

- 내년 LHSV가 10주년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그간 수혜성과가 미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셜벤처를 둘러싼 수많은 내·외부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운용체계의 제도 개편 및 정비 필요성 대두
 - 2015년에 탄생한 LH 소셜벤처는 오랜 기간에도 대중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현황조사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본 설문조사 목적은 LHSV의 객관적인 중간 성과평가 사전점검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등 대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성공적 사업실행의 기초자료 수집·분석과 정보 제공에 활용코자 함
 - 실무관점에서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계획과 맞추어 한층 정교화된 LHSV 모델 고도화 설계로 미래경쟁력 강화의 지속가능한 사업화방안 모색

2) 조사내용

- FGI 조사내용은 (1) 현 LHSV 인식 실태 및 성과평가 진단(As-Is), (2) 제도 발전방안 기본구상(To-Be), (3) 응답자 일반특성 등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대별하여, 총 40문항 (30~60분 소요)으로 구성
 - 우선 전자가 소셜벤처 업태 트렌드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큰 틀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행 LHSV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목적, 중요도 및 수행성과 현황, 한계점 등 인식 실태 조사
 - 후자는 LHSV 구조의 이상적인 개편방향과 관련된 계획요소 정비(찬반의향 및 이유, 예산규모, 사업분야, 응모자격, 모델유형), 성과홍보 방안(지표 발굴, 브랜드 공모), ESG 연계 실천전략, 기대효과, 공적 역할, 해결책 등 세부 논의사안을 폭넓게 다룸(그

림 5-1] 참조)

- 그 밖에 응답자 배경질문은 소속기관(부서), 직군(직위),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등 필수 인적사항을 망라

[그림 5-1] FGI 조사내용

구분	현 인식 실태 및 성과진단(As-Is)	미래 발전방안(To-Be)	응답자 특성
문항	소셜벤처 현황 트렌드 대외 인지도 사회공헌 프로그램 관계 ...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목적 중요도 및 수행성과 한계점	계획요소 정비(규모, 단계, 영역) 성과 홍보방안(KPI, 브랜드) 가치창출형 모델유형 정립 ... ESG 연계 실천전략 기대효과 및 공적 역할 해결책	회사명(담당부서) 소속기관 직군(직위) ... 성별 연령 근무기간

출처: 저자 작성

주: 상세 내용은 보고서 말미에 부록(설문지)으로 게재

1. 2.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 전국 소재 소셜벤처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민관 학계 및 실무 전문직 종사자로 조사대상 집단을 한정하고, 직군별 균등 할당(Quota Sampling) 집계
 - 소셜벤처를 창립한 대표(CEO)나 임원진 필두로 사회적경제주체인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시중은행, 임팩트투자사 심사역, 대학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육성기관), 비영리재단 소속의 상위 관리자급을 직군(Occupational)마다 최소 1~2인씩 안분해 각계각층의 직군별 대표성 반영([표 5-1] 참조)
 - 외부기관 협조 의뢰를 받아 실제 응답인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전문가 명단(예비후보자 포함: 25명) 작성 후, 섭외 수락의사를 타진한 최종 13명 표본 추출
 - LHSV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가 경험과 식견이 뛰어나 구체적 대안제시 및 공정히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직·간접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타당성 확보

[표 5-1] 조사대상 선정

NO	분야	직군	성명	연령	회사명	담당부서	직책	참여
1	민간	소셜벤처	아**	35	(주)원원	-	대표	유
2		대기업	최 *	38	LG전자	CSR팀	선임	무
3		금융권	김**	40	하나은행	SG경영부	차장	무

4		“	김**	47	기업은행	창업벤처지원부	부장	무
5		임팩트투자사	조**	53	더이노베이션랩(주)	-	대표	유
6		중간지원조직	전**	48	지역활성화랩마르텔로	-	대표	유
7		연구원	권**	39	사회적가치연구원	SPC운영팀	팀장	무
8	공공	“	주**	49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무
9		공공기관	김**	49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부지점장	무
10		“	유**	49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부장	유
11		지자체	안**	51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팀장	무
12		교수	삼**	5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유
13		비영리재단	최 *	48	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유

출처: 저자 작성
주: 성명은 무기명 처리

2) 방법론

○ 방법론은 소수 전문가 심층의견(Expert Survey)에 기초해 정량조사만으로 미처 알 수 없었던 질적 자료를 획득하는데 널리 쓰인 표적집단면접(FGI)⁴⁶⁾을 채택하고, 아래의 [표 5-2]와 같이 일련의 설문조사 절차에 따라 실시

- 대기업 사회공헌 행태의 연차보고서(전국경제인연합회, 202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나 FGI 선행문헌(성지마·황준욱·안주엽, 2014; 김륜희 외, 2018; 중소기업연구원, 2018; 이상준 외, 2021) 또는 사례분석에서 유의미하게 경험적으로 거론된 질문내용을 예비선별 검토 후, 수차례 실무부서와 전문가 좌담회를 거쳐 연구모형의 최종변인 재구성·확정
- 개방형(주관식)의 반구조화 설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 설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서면조사⁴⁷⁾ 방식(1차: 취합·수거) 대체하되, 현장 의견청취의 개별 인터뷰 방문실사(2차: 피드백 수정·확인) 병행
- 조사기간은 10.19~31일까지 2주에 걸쳐 총 13명이 참여하여 유효 사례표본 목표 초과치인 전량(100%) 응답 회수 및 모든 문항에 논리적 오류 발생이나 결측치(Missing) 전무⁴⁸⁾
- FGI는 정성적(Qualitative) 조사의 전형적인 기법으로써 “LH 소셜벤처”란 특정주제를 두고 동질특성을 지닌 6~12명 참석자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및 상호작용을 통해 생

46) 1937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 전파연구실에서 소비자 마케팅 조사로 고안되었는데, 일반화가 어려운 단점과 함께 사회자(Moderator) 역량이나 자질, 타인 발언에 영향을 받기 쉬워 자칫 조사결과가 편향될 여지 상존

47) 코로나19 상황, 잦은 업무출장, 기업소재지 분산(서울, 부산, 대전, 진주) 사유로 한 장소·일정에 모여 대면회의가 여의치 않음

48) 2022년 LHSV 제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 e-인쇄물(Brochure) 송부로 누락 및 불성실응답 방지 유도

동감 있는 시장반응 탐색, 심도 깊은 정보수집,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도출에 효과적이라 판단

- 설문조사 답변 검수 및 코딩변환 작업 후, 소속기관, 직군별에 따른 응답결과 차이 여부를 검증하고자 PASW 24.0 전산장비를 이용해 간략히 빈도, 기술통계, 교차분석,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수행

[표 5-2] 설문조사 설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조사목적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수립	탐색 접근
지역	· 서울, 지방을 비롯한 전국 소재 광역권 단위	부산, 대전, 진주
대상	· 소셜벤처 업계에 종사하는 민관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대기업, 은행, 임팩트투자사,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지자체, 재단, 교수, 연구원)	성·연령대 비제한
기간	· 2023.10.19~10.31(2주)	응답률 제고(연장)
설문문항	· 40문항(3개 파트)	30~60분 소요
유효표본	· 총 13명(전량 회수)	목표치 2명 초과
표본추출	· 소속기관 및 직군별 균등 할당(최소 1~2인 안분)	특정집단 편중 제거
조사방법	· 온라인 서면조사(이메일) 원칙 및 현장 인터뷰 실사 병행	복수 검증
수집도구	· 개방형(주관식) 구조로 반구조화 설문지 이용 및 응답자 명단 작성·배포	객관식 혼합
자료처리	· 편집·코딩(Coding) 과정 후 통계분석 및 결과해석	PASW 24.0 Pro
수행기관	·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자체수행

출처: 저자 작성

1. 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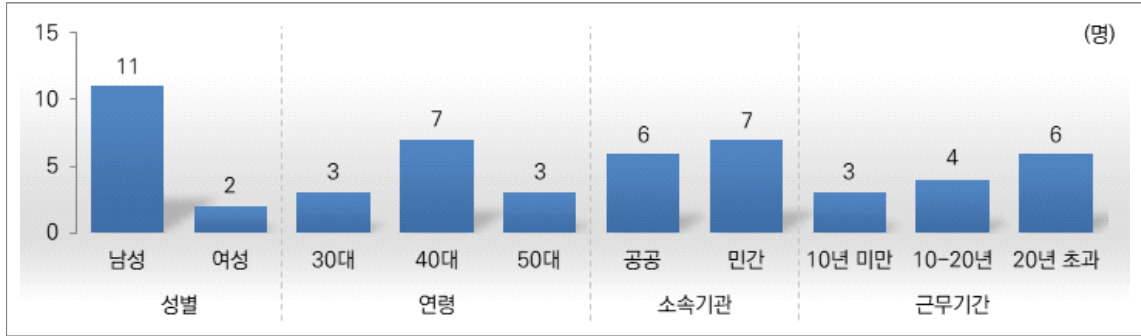
■ 소셜벤처 생태계 일원(Player)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수요-중개-공급자 입장 대변

- 전체 13명의 인구·사회통계학적(Socio-Demographic) 변수로 설문응답자가 속한 기관, 직군, 성별, 연령, 근무기간, LH 사업참여 경험 등에 따른 그룹별 빈도수와 구성 분포는 다음의 [그림 5-2]처럼 요약 정리

- 젊은 소셜벤처 청년 창업의 특성 상 30~50대 남성 연령층과 소속기관은 민간과 공공 비율이 7:6으로 고른 균형을 보임
- 직군으로는 실수요자인 소셜벤처와 긴밀한 협력 아래 정책 입안 및 후방 지원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비영리재단, 대학교, 연구원(이하 공급자)부터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중개하는 금융권, 임팩트투자사까지 산학연관을 아우름
- 근무기간은 평균 17.2년(부서장급 수준)으로 오랜 기간 동종업계에 몸담고 있으며, 절반이 LH 사업(소셜벤처 졸업팀, 기업 선발심사 및 운영)에 왕성히 참여(46.2%)할 정도로 친숙

- 이러한 응답자 특성에 미루어보면 소셜벤처 실무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정책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끼친 심층전문가 집단으로 유추된 바, 조사설계 시 소속기관 및 직군별 형평성도 충족시켜 표집에는 전혀 무리가 없음

[그림 5-2] 응답자 구성 및 분포



출처: 저자 작성

주: 전체 응답 수는 13명(100.0%) 기준

2. 주요 분석내용

2. 1. LHSV 인식 및 실태 진단

1) 소셜벤처 업황 현안이슈 및 트렌드

- 21세기 국제사회의 소셜벤처 업황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0대 이슈 및 메가트렌드(Megatrend)로 코로나 팬데믹, 금리인상, UN SDGs, ESG 경영, 임팩트투자, 지방소멸, 저출산, 청년 창업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기술 부상이 공통적으로 강조
- 오늘날 코로나19, SDGs, ESG 경영,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이 거스를 수 없는 지구촌의 시대적 기류라면,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 창업 일자리는 우리나라 소셜벤처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화두임([그림 5-3] 참조)
- 국내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⁴⁹⁾은 소셜벤처 생태계를 뒤흔들며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직격탄으로 비유되기에(한국농정신문, 2023), 정치·경제·사회·환경·기술 측면의 시장동향 계속 예의주시를 당부

[그림 5-3] 소셜벤처 산업계 중대 현안이슈 및 메가트렌드



출처: Google 이미지
주: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예시(①,②,④번은 국제, ③번은 국내 이슈)

2) 대외인지도 및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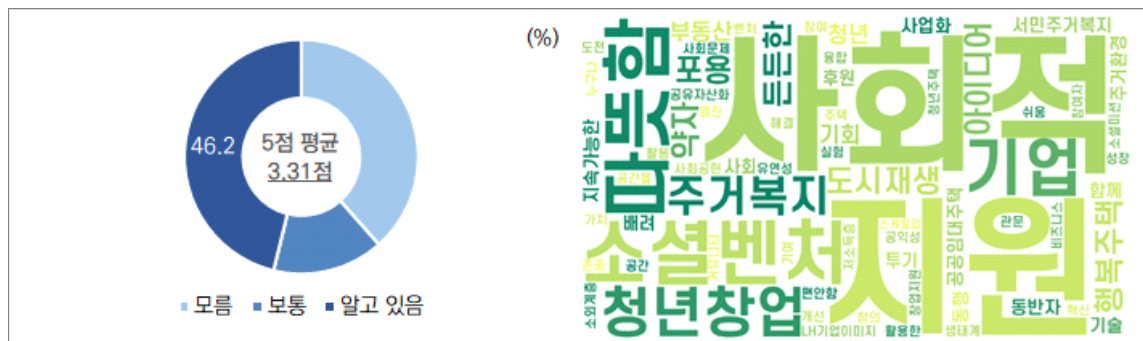
- LHSV는 대중적 인지도(66.2점)가 높아 시장저변이 확대됨은 물론,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창업, 따뜻함, 든든함을 연상시켜 호감적인 이미지로 각인
- 외부에서 바라본 LHSV 인지도는 3.31점(5점 만점)으로 전체의 61.5%가 대체로 “들어

49) 2024년 정부 예산 중 사회적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91%, 고용노동부 59%, 중소벤처기업부 전액 삭감하여 국제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셉

봤거나 안다”고 응답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LH가 시장상황에 개의치 않고 소셜벤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선한 데 기인

- LHSV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의 단어(형용사 어휘 포함)나 이미지로 공사 본업인 주거복지, 도시재생과 무관치 않고,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아이디어, 지원을 상기하거나 포용, 따뜻함, 든든함이란 감성과도 연결(LH, 소셜벤처, 사회공헌의 혼종성 표출)
- LH 부동산 투기사태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부실시공(2023.07) 악재에 연이은 기업이미지 실추를 감안하면, 워드클라우드⁵⁰⁾ 시각화 결과([그림 5-4] 참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상반된 긍정적 여론(부정적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으로 나름 선방한 것이라 자평

[그림 5-4] LHSV 대외인지도 및 연상 이미지



3) LH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위상

- 기업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면에서 LH 사회공헌 지출규모가 현저히 적다고 느끼지만, 연례적으로 펼쳐온 내부 다수 프로그램(봉사활동, 노후주택 개보수, 아동급식 지원)들과 비교 시 LHSV 위상이 높아 공공기관의 나눔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층 더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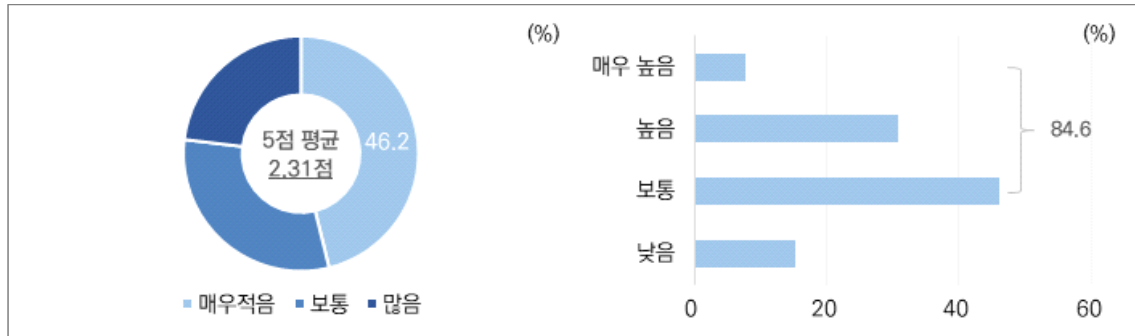
- LH가 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일반기부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한 2021년말 사회공헌 금액(179.6억원)은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과 동등한 수준(한국사회복지협의

50) 불용어(어미, 조사 등) 제거 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Tex Mining)를 분석,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데 유효한 도구

회, 2023)⁵¹⁾이나, 하단의 [그림 5-5]과 같이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으로서 20조원대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매우 적다(46.2%)고 신랄히 지적하며 겨우 2.31점에 그침

- 이 중 소셜벤처 지원사업 경우 한 해 10억 안팎의 적은 비용투입만으로 내부 산재한 여러 프로그램보다 위상이 높게 인식되어(보통 이상: 84.6%, 3.31점), 일찍이 LH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측

[그림 5-5] LH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프로그램 위상



출처: 저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점수 부여(매우 적음: 1점~매우 많음: 5점 |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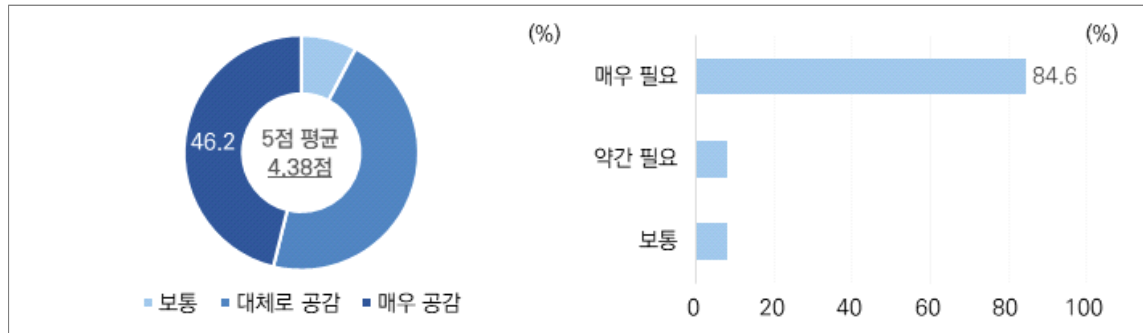
4) 공감도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 공기업과 소셜벤처가 만나 사회적 가치, 경제적 활동 지향의 중간자 지위란 닮은 점에 착안된 사업취지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어, 공공의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찬성이 가히 지배적임
 - LHSV가 공익, 수익성 공유에 밑바탕을 둔 의도(본질)에 92.3%가 깊이 공감한다(4.38점)고 표해, 이로부터 사회공헌 성격과 공기업 장점을 살려 국민적 신뢰 및 설득력을 가진 건실한 사회공헌 비즈니스 모델임을 시사
 - 참여자 대부분 사기업보다 재무실정이 열악한 소셜벤처에게 정부,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매우 필요: 84.6%)고 답하는 등 거의 만점(4.77점)에 가까운 절대적 지지를 받음([그림 5-6] 참조)
 - 그 이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 마땅히 풀어야 할 각종 사회문제를 도전정신 이 투철한 소셜벤처가 대신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정부 개입의 정책적 지

51) 기업 경영성과에 기반한 사회공헌 특성상 상·하위그룹 간 지출액 차이가 큰 까닭으로 중앙값(Median) 51.0억원이고, 실상 180억원 이상은 단 14개(16.1%) 뿐이란 사실에서 LH 사회공헌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

원이 당연시되고(주재욱·윤종진, 2020),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 청년 일자리 창출, ESG 실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들 수 있음⁵²⁾

[그림 5-6] 사업취지 공감도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출처: 저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점수 부여(전혀 비공감: 1점~매우 공감: 5점 | 전혀 불필요: 1점~매우 필요: 5점)

5) 중요도 및 수행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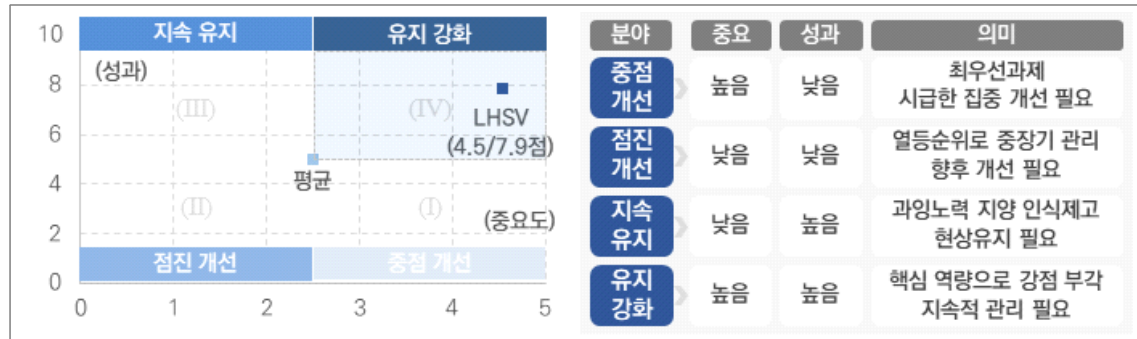
- IPA⁵³⁾ 항목별 분석결과, LHSV는 중요도(Importance)와 수행성과(Performance)가 뛰어나(H-H) 상대적 우위를 점한 강점(IV 사분면: Keep up the good work)의 포지셔닝 설정으로 전력투구 및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지속관리 요망([그림 5-7] 참조)
 - 국민중심 경영실천의 공사 조직비전이나 고유 사업영역(토지·주택·도시)을 고려할 시, LHSV는 사업취지 공감도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응답(Q.5~6)과 마찬가지로 전부 일관되게 긴중하다(100.0%, 4.54점)고 인지
 -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관점에서 예로부터 다년간 LH가 추진한 수행성과는 6~10점(표준편차: 1.46점)까지 고득점에 몰려 왼쪽으로 긴 꼬리가 늘어진(왜도<0) 비대칭성 정규분포를 취하며, 7.85점(10점 만점)으로 양호
 -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사안을 좀 더 냉철하게 지각하는 보수적 태도 성향 탓에 기대요구치(Expectation)가 높아진 만큼 수행성과 실적이 중요도 영향력에 다소 뒤떨어져 1.23점 차이(Gap)의 불일치(I > P) 발생⁵⁴⁾, 두 변인 간 강한 양의 상관성(Correlation: +0.45)를 띄어 일종의 기저효과(Base Effect)로 설명

52) 다행히도 불필요의 회의적 응답은 없었으나, 비 고유업무와 미진한 수혜실적으로 추론

53) Martilla and James(1977)가 개발한 기업경영·마케팅 전략기획의 고전 통계방법으로 보통 중요도(X)-수행성과(Y) 축을 4사분면 좌표에 교차시켜, 제한된 자원의 최적배분 및 개선과제 시급성을 정할 때 자주 쓰임(송기욱 외, 2020)

54) 종래 IPA분석의 단점을 보완, 차이(G=I-P)를 산출해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그림 5-7] 중요도-수행성과(IPA) 분석에 의한 LHSV 포지셔닝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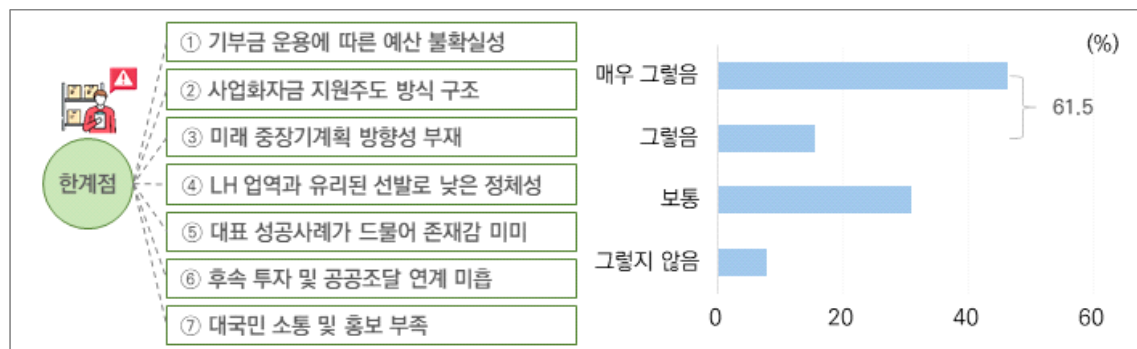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주: 매트릭스(Matrix) 상에서 우선순위는 Ⅰ > Ⅱ > Ⅲ > Ⅳ 순으로 개선

6) 한계점 및 ESG 수단 잠재력

- LH 사회공헌 중장기계획 부재, 소셜벤처 자생력을 저해하는 재정지원 주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관계부처 합동, 2023), 미래 ESG 실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자신감도 비취 무한 잠재력 보유
 - 사업화자금 지원 중심의 정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 설계된 기존 사업모델은 기부금 예산 불확실성이 내재된 가운데, 공사 사회공헌과 참여팀 기업활동 간 동떨어져 정체성이 낮고, 그에 따른 성과 측정 및 국민홍보 미흡으로 후속 투자유치·판로·파트너십 연계가 미미하여 매력도(Attractiveness) 저하라는 고질적인 한계점 봉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생존을 좌우할 ESG 경영에 LHSV가 효과적인 실천 참여수단이 되리라 동의(4.00점), 응답자의 6할이 호의적(매우 그렇다: 46.2%, 그렇다: 15.4%)으로 여겨 전망이 밝음([그림 5-8] 참조)

[그림 5-8] LHSV 제도 한계점 및 ESG 수단 잠재력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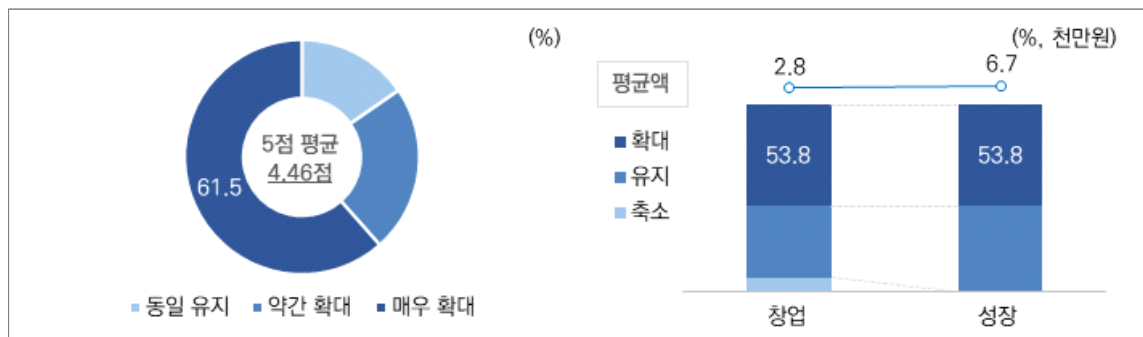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 점수 부여(전혀 아님: 1점~매우 그렇음: 5점)

2. 2. LHS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1) 예산편성 방향 및 팀별 지원금

- 현재보다 LHSV 연간 재정 수혜규모와 팀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확대 운용기조 이고, 코로나19로 잠시 위축된 기업들의 경영성과 호전에 사회공헌 투자활동 재개 및 공격적(Aggressive)인 예산편성 투영 촉구
 - 기업경기 침체와 공사 재정건전성 위협에도 LHSV 연간 총액 지원금 수혜규모(2022년 8억원)는 4.46점으로 축소가 아니라 증액(매우 확대: 61.5%, 약간 확대: 23.1%)을 강력히 표명해, 사회공헌 부문의 지출액(Q.3)이 과소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증([그림 5-9] 참조)
 - LH 소셜벤처 선정 기업당 분야별 최대 적정 지원금은 창업지원 2.8천만원, 성장지원 6.7천만원으로 종전(2~5천만원) 대비 140% 이내 상향 책정(53.8%)을 주문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사업비로 5천만원~1억원 미만(72.7%)을 선호한 김륜희 외(2018) 연구 결과에 근접
 -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예비·초기창업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5천만원~1억원)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 5천만원), 공공기관(KT&G: 5천만원, K-water: 3천만원, SH: 6백만원)이나 민간기업 공모전·경진대회 입상팀(2천만원 한도)에도 밀리지 않음

[그림 5-9] LHSV 예산편성 지출규모 및 팀별 적정 지원금



출처: 저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점수 부여(매우 축소: 1점~매우 확대: 5점)

2) LHSV 체계 정비 필요성 및 이유

- 정부 정책방향, 메가트렌드 부상, 사회공헌 추진계획 전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하고자 정제기에 도래한 LHSV의 근본적인 사업체질 개선 등 전면 정비(Renewal) 필요성에 수긍

- 현행 LHSV 체계를 고쳐야 한다(3.54점)는 의견이 61.5%에 달하고, 당초 설계시점과 달라진 미래 사회여건 변화를 현 지원시스템이 수용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전략수정 불가피([그림 5-10] 참조)
- 반대로 불필요의사(38.5%)는 급박한 변화로 인한 시장혼선 차질의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LH 사회공헌 철학의 연속성(Consistency) 유지가 중요하고, 아직까지 한정된 예산범위 내 창업자 위주 정책 지원체제로 틀거리가 잘 잡혀 별다른 문제없이 구현되고 있음을 논함
- 전문가로부터 60% 초과 동의율은 공사 경영목표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LHSV 체계 정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합법적 추진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림 5-10] LHSV 체계 정비 필요성 및 이유



3) 소셜벤처 대체어 및 추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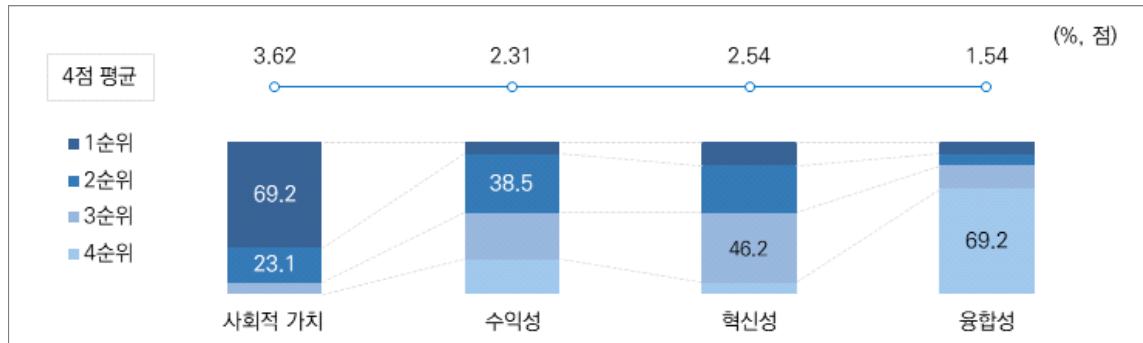
- 소셜벤처 대체 명칭으로 공익벤처, 사회적벤처, 사회혁신기업, 임팩트 비즈니스가 손꼽힌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최고 지향점 삼아, 영업이익의 20%를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권장하여 선순환경제 유도
- 문제인 정부시절에 정식 입법화된 소셜벤처를 대체할만한 용어로는 임팩트 비즈니스(Impact Business) 활동을 영위하는 소셜임팩트 기업⁵⁵⁾이 단연 두각, 그 외 일반벤처와

55) 2020년 소셜임팩트 포럼(김동연 초대 이사장, 前 경제부총리)을 발족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아우르는 총체적 상위개념으로 지칭

LH 공공성이 가미된 공익벤처(Public Venture)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2021, 2023)가 차용한 우리말 순화어인 사회적(정의)벤처, 사회혁신(창업)기업(Social Innovative Enterprise), 사회적가치창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언급

- LH 소셜벤처 기업팀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공동체 이념을 추구하는 사업구조상 종종 이중가치가 충돌·공존상태에서 압도적으로 3.62점(4점 만점)을 획득한 사회적 가치(1순위: 69.2%, 종합순위: 92.3%)가 가장 우선시되고, 뒤를 이어 혁신성(2.54점), 수익성(2.31점), 융합성(1.54점) 차례 순임([그림 5-11] 참조)
-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기부 환원, 근로조건 개선, 시설투자용 등 사회적 목적 재투자율로 사회적기업(2/3 이상 권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⑦)의 약 1/3인 평균 20.0%가 알맞음

[그림 5-11] LH 소셜벤처 기업팀 추구가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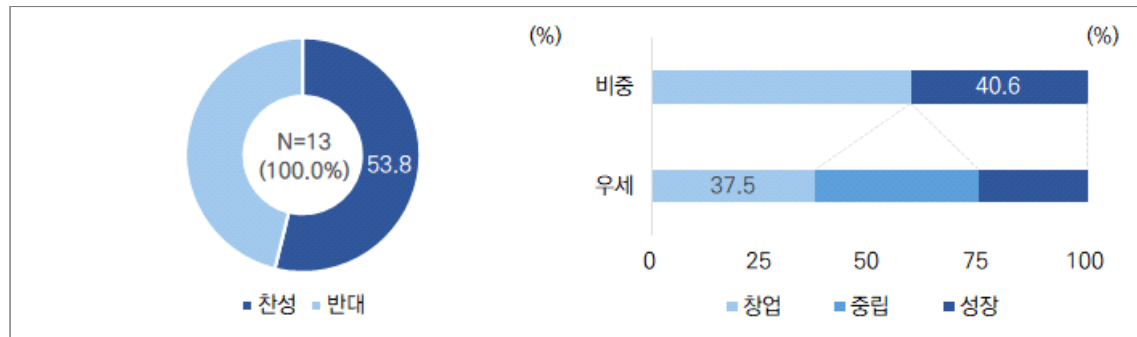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주: 1순위는 단일, 종합순위는 2순위까지 합산한 복수 응답

4) 사업분야 찬반의향 및 비중

- 소셜벤처 업력·대상에 따른 창업과 성장지원 분야의 이원화 체제를 놓고 찬반 경합 (접전) 치열,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스케일업 육성을 위한 추가 후속지원의 심화 과정 개설 일부 희망
 - 지금처럼 사업분야가 창업과 성장지원의 두 단계(Two Track)만으로 충분한가에 관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찬성(53.8%)이 조금 앞서 시 각자 분명([그림 5-12] 참조)
 - LHSV 소셜벤처 동료(Fellow)들은 사업안착 궤도에 오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고, 동질적 그룹일지라도 성장지원 분야 내 현격한 수준(Level) 차가 벌어져 이분법적 대립구도 부적당

- 제조나 판매 계통의 대학생·청년 대상 예비 및 초기 창업지원(73.3%→59.4%)에 과도하게 치우친 선발비중을 줄이는 반면, LH 사업영역과 직결된 업력 3년차 이상 기업 성장지원(26.7%→40.6%)은 늘려 이전 7:3에서 6:4 비율까지 완화된 포트폴리오(피투자사) 안분 리밸런싱(Rebalancing: 재조정)이 적합
- 이는 시기가 경과할수록 성장지원 팀의 점증적 하향 흐름세(18→15→10팀, 10→7→5천만원)와 정확히 역행하며, 과거로 회귀(Reversion)를 뜻함
- 그렇지 않다면 입문과 성장을 거쳐 고급 심화발전 3단계로 개방형 혁신분야를 별도 신설(e.g. IBK 1st Lab)하거나, 청년에 밀려 배척되기 쉬운 신중년층, 실패기업인의 재창업(Reboot: 재도전), 글로벌 대도약(Quantum Jump) 패키지 지원(e.g.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등도 강구할 수 있음

[그림 5-12] LHSV 분야 찬반의향 및 배분 비중



출처: 저자 작성

주: 명목척도로 더미(Dummy=0, 1)화하여 변환

5) 소셜미션 중점 영역

- 소셜벤처가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사회문제 해결분야로는 LH 핵심가치 및 업역의 전문성을 살린 저출산 대응, 주거안심, 도시재생, 지역경제, 공유공간, 탄소저감, 불평등 해소에 역량 결집하며, UN SDGs 9(산업·혁신과 인프라),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3, 8, 13번과 밀접하게 연관([그림 5-13] 참조)
 - 주변 일상의 삶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문제들 중 환경파괴(에너지 자원, 기후위기), 주거·일자리 불안, 도시재생(빈집, 유헬공간), 인구구조 급변(저출산·고령화 심화)이슈는 LH가 앞다투어 해결해야 할 소셜미션 중점 영역임(김륜희 외, 2018)
 - 소셜임팩트 범주들은 보편적으로 인류사회가 당면한 범국가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글로벌 이니셔티브 표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준수와 ISO 26000, UN PRI, SDGs, ESG 이행을 책임질 미래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사회공헌 의제(Agenda)라 할 수 있음

[그림 5-13] LH 소셜미션 중점 영역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2023)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주: ③ 건강과 웰빙,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⑬ 기후변화 대응

6) 소셜벤처 유형화 분류기준 및 특화모델

- 소셜벤처 유형의 세분화는 추구가치와 기술력 등급, 사회혁신 단계(임팩트 영향력 크기)⁵⁶⁾, 미션범위(보편 vs 특수성)에 따라 분류, LH 특화모델을 ESG 문제해결, 로컬 기반, 공간환경 개선, 혁신기술 등으로 정립한 신(新) 가치창출(소셜임팩트)형에 대다수가 동조
 - 소셜벤처 유형을 상호배타적 판별기준인 우선 추구가치(사회적 가치, 수익성)와 기술력(하이테크, 적정기술, 저급기술)으로 구별할 시(주재욱·윤종진, 2022; 김형민·김진수, 2022), LHSV는 다음의 [그림 5-14]처럼 두 섹터가 만나는 중간지점에 드넓게 자리하며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시대적 요구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LH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을 ESG 문제해결⁵⁷⁾, 로컬기반(e.g. 넥스트로컬: 지역연계 청년 비즈니스창업), 공간환경 개선(도시·주거·건설 분야), 혁신기술 등이 속한 신 가치창출형으로 도출한 점에서 좋은 반응(84.6%)을 얻음

56) 문제인지 및 촉발(Prompt)부터 제안, 검증, 지속성장, 확대, 종착점인 시스템 변화(System Change)를 발현하기까지 6 단계의 나선형(Spiral of Innovation)으로 묘사(Murray et al, 2010; 박민진·김태영, 2018; 최용석·백보현, 2020)

57) LG전자, SK 이노베이션, 신한/하나금융그룹, 현대해상, 성동구청, 대전시는 미래 ESG 선도할 소셜벤처 분야를 신설하여 운영 중으로 LHSV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상기 전술한 4가지 유형(Segmentation) 외 기타(LH 임대단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기여형 창업아이디어)를 심화트랙의 자유주제(e.g. 매년 시장선도형 핵심이슈 조기 발굴)로 지정해 모의시범 적용 혹은 제안 시 심사항목(문제인식, 소셜미션, 실행전략, 해결방안, 수행역량 등)에 가산점(5~10%) 부여로 우대하는 방안을 구상
- 이들은 (1)글로벌 ESG 문제해결 조류에 적극 동참하면서, (2)지방시대 로컬기반 농촌·문화·관광부문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역 청년 활동가 인재양성, (3) LH 사업 영역인 도시재생·주거환경 정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4) 포용적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정보접근성 보장 행위로 소셜임팩트를 증대시킴

[그림 5-14] 소셜벤처 분류기준에 따른 특화모델 유형



출처: 저자 작성

주1: 음영색은 STP 전략 상 LHSV가 취급하는 영역

주2: 이론적 모델 예시일 뿐, 정책결정의 확정사안이 아님

7) LHSV 상징성 및 ESG 연계 추진전략

- LH 사업기능 및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개선(G) 요소를 접목한 공익적 협력프로젝트를 미래 고객인 청년 세대의 소셜벤처와 동행함으로써 ESG 가치 실현 지원
 - 글로벌 대기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시 협력사의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책임(인권 침해, 환경훼손 여부)까지 전부 떠안아, 정부 공공조달 계약의 최대 응찰자인 중소기업·소셜벤처들도 예외 없이 ESG 경영지원 및 평판 통합관리에 능동적인 대처 자세가 요청
 - 이 과정에서 ESG 지속가능경영을 비추어 볼 때, LHSV가 청년 창업의 미래세대 일자리 마련과 혁신창출 지원 등 사회변화를 일궈나가는 공익적 투자활동이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
 - 단언컨대 LH와 소셜벤처 간 개방형 혁신이 필요한 사업부서별 중점 비즈니스 협업분

야의 과제선정을 근간으로 수요기업 매칭 후, 기술검증 시연을 무사히 마친 유망 보육 기업 제품 및 서비스 대상 판로개척 지원은 ESG 연계 실행의 주요한 전략(e.g. LG 소셜 캠퍼스)이 될 수 있음(이로운넷, 2021)

- 소셜벤처가 에너지 자원·폐기물 재활용(Recycling) 및 온실가스 저감(E), 안락한 주거 복지·사회서비스 공급(S), 집합적 임팩트 접근이나 상향식(Bottom-up) 시민참여 플랫폼 개발(G)⁵⁸⁾로 ESG 친화형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도전하여 한층 성숙된 기업 조직문화 전파 및 자긍심 고취([그림 5-15] 참조)

[그림 5-15] LH 소셜벤처와 지속가능한 ESG 부문별 연계 추진전략

영역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활동주제 (키워드)	[1]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저감 [2] 신재생 에너지 [3] 자원·폐기물 관리 [4] 생태계 보존 [5] 청정기술 개발 및 구매조달	[1] 인권·노동 [2] 산업안전 보건·재해 예방 [3] 동반성장 [4] 지역사회 공헌 [5] 고객만족	[1] 이사회 감사 [2] 주주권익 보호 [3] 윤리경영·반부패 [4] 정보 투명성·소통 [5] 시민참여
SDGs			
대표사례			

출처: LH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기업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대표사례는 소셜벤처 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8) KPI 후보군 설정 및 성과제고 방안

- LHSV 제도 운용성과를 객관적 측정할 수 있는 KPI로 (1)자원 투입량(Input: LH)의 수혜규모로부터 (2)종결 후 일차적 산출물(Output: 소셜벤처)인 매출액, 고용창출, 생존율, 투자유치, 지식재산권에 그치지 않고, (3)기업 활동에서 파생된 소셜임팩트 창출 기여도 결과(Outcome: LHSV)를 환산해 질적 보조지표(Subsidies)로 선제 도입 검토
 - 소셜벤처 기업성과를 견인하는 핵심지표로 시장성, 사회성, 경제성, 혁신성의 대리변수(Proxy)인 역대 참여팀, 누적 지원금, 매출액(증감률), 고용인원 창출, 생존율, 투자유치액,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추출([표 5-3] 참조)
 - 국내 소셜벤처 창업이 신생 스타트업 부류가 많고, 후속 투자재원을 받아 성장하기 때

⁵⁸⁾ 기업·대학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서비스 솔루션 실증의 국토교통부 스마트챌린지 사업(Smart Challenge, 2021), LHSV 졸업팀 중 창업지원 1기로 4회를 지원받은 ㈜윙윙(도시재생 스타트업)이 통속적인 G형에 해당

문에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주류로 택하거나 액셀러레이팅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와
 순응하는 패턴을 보임

- 양적 성과만으로 형용할 수 없는 폐기물 배출 저감, 취약계층 소득증대, 교육·건강·장애인 보조 서비스접근성 개선 등 정성적인 사회성과의 화폐계량화(Monetary Value)에 관한 소셜임팩트 측정⁵⁹⁾이 시기상조이나, 도입 시 기업가치 평가 향상(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반영) 및 투자유치·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질적 성과 열거·기술 만회
- 소셜벤처 기업성과 및 생산성(Productivity)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명·구체적으로 목표 달성가능한 KPI 정의 및 설정, 측정방법과 주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표 5-3] LHSV 양·질적 성과 측정지표

구분	단계	속성	지표명	의미 및 측정산식	비고	공시
양적	투입 (LH)	시장성 (수혜규모)	참여기업 수	LHSV에 참가한 기업 수(배출팀)	●	재무제표
			지원금	사업비 명목지원금	●	
	산출	경제성	매출액(증감률)	(당해-전년 매출액)/당해 매출액	●	
			투자유치액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속 투자유치 금액	●	
		사회성	소셜미션	사회문제 해결영역의 다양성	●	
			고용인원	취업 종사자 수(정규직)	●	
			생존율	졸업팀 중 정상영업 유지율(휴폐업제외)	●	
		혁신성	지식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	●	
			기술기반 업종	표준산업대분류 중 제조, 지식집약서비스	●	
		기타	고객만족도	프로그램 운용에 만족한 점수	○	
			홍보활동	매스컴 언급량 또는 홈페이지 방문자수	○	
질적	결과	환경적 영향	탄소배출 저감	폐기물 재활용 공정 처리비 감소액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적 영향	근로소득 증대	장애인 고용 전·후 임금증가분 순편익	○	
			건강증진	(기존-동사) 환자 의뢰서비스이용 절감액	○	

출처: 저자 작성

주: 비고란은 통계 정시성, 사례 유사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판단(●: 상, ●: 중, ○: 하)

9) LHSV 경쟁력 및 선도기업 벤치마킹 요소

- LHSV 경우 주된 특징이라면 한발 앞서 나간 승급제 시행, 운영의 유연성과 더불어, 타 기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11기 소셜벤처 배출로 전국구 240개가 넘는 다양한 섹터의 탄탄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생태계 보유가 독보적임

59)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보고는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방법론을 준용, 사회적 성과에서 기존상태를 뺀 다음, 대상 수와 측정기간을 곱한 화폐단위 산정금액으로 조작적 정의(중소벤처기업부, 2022: 소셜벤처스퀘어, 2023)

- LHSV만의 본업 전문성을 내세운 도시·주거복지 분야 외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발한 사업아이템만으로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폭넓은 지원대상, 기술개발 실증(Proof of Concept: PoC)·구매의 든든한 최종 수요처란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⁶⁰⁾
- 여타 분야별 특성을 매칭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요소로 선발대상 명확화, 투자·사업연계, 자질 있는 운용사 참여, 창업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 LG, IBK, 포스코, K-water 등과 강도(Intensity)만 다를 뿐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그림 5-16] 참조), 오히려 공공기관 미션과 어울리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무분별한 모방 경고

[그림 5-16] LHSV 차별화된 경쟁력 및 타기관 벤치마킹 요소

기업	프로그램명	분야	특·장점 및 벤치마킹 요소
LH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도시·주거	승급제, 지역·업종 무차별, 실증·구매, 낮은 진입문턱
K-water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물산업	종합시스템 활용, 부서매칭(테스트베드), 후속지원(3단계)
기업은행	IBK 창공	핀테크	지역거점 공간, 금융지원·투자유치, 디지털경영플랫폼
LG전자, 화학	LG 소셜캠퍼스	기후환경	수시모집, 임팩트투자, 성과 인센티브, 오픈 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모빌리티	고액 지원금, 동료 간 네트워크, 리브랜딩, 스타기업 산실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사회·문화	최다 사회공헌 지출액, 투자·사업연계, 운용사 역량 출중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과학기술	지방 산학연 인프라 협업(TIPS), 벤처펀드 출자, 해외진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기업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주: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역사, 규모, 브랜드, 운영성과를 토대로 6대 경쟁사 추출

10) 브랜드 공모 및 홍보·마케팅 방안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개편안에 걸맞게 지향가치 및 컨셉(Concept)을 담은 리브랜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 개최와 SNS 매체 등 온·오프라인 양방향 채널(Channel)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마케팅 강화
- 현재 LHSV는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⁶¹⁾로 사업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기 힘들며 브랜드평판이 낮아 창업주들의 존재감이 미미, 특유 정체성과 간단명료한

60) 졸업팀 중 소셜벤처 CEO와 인터뷰(2023)에 의하면, LHSV는 과다한 성과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리 부담도 덜어내 기업이 사업에만 오로지 전념하게끔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다고 전함

61) 다국적 명품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ouis Vuitton Moët Hennessy: LVMH)와 흡사하다는 비평

함축적 메시지(Message) 전달로 대중들에게 역동적이고 희망찬 이미지(e.g. IBK 창공: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위해)⁶²⁾로 각인되기 위한 가령 LH 임팩트 챌린지(LH Impact Challenge)처럼 브랜드 네이밍(BI) 공모변경 제안([그림 5-17] 참조)

- 모빌리티 선봉장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2012년 출시한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오디션”을 과감히 교체 결정, 9기(2021년)에 “스타트업 그라운드”란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이미지 변신의 표상화와 상동
- LHSV를 거쳐간 수많은 배출팀 중 우수사례(Best Practice: BP) 발굴로 상품/서비스 만족·전사·체험의 정례적인 대규모 행사(e.g. 엑스포, SOVAC⁶³⁾)를 열어 소셜벤처 기업들과 이룩한 정책성과 공유·확산
- 대국민 홍보(Public Relation: PR) 역시 신규 기업모집⁶⁴⁾과 사업소식 안내 위주였던 전통매체(언론보도, 홈페이지)에서 탈피해, 콘텐츠 다양화 및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채널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SNS: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기반 입소문 마케팅(Viral Marketing) 병용
- 이를테면 LH 사회공헌 유튜브 개설 후, 이색적인 테마(Theme)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하거나 저명인사 인터뷰 취재를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낸 에피소드(Episode)별 동영상 촬영 제작·게시

[그림 5-17]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리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방안

기업	브랜드명	슬로건(문구, 표어)	홍보매체
LH (본건)	LHSV 임팩트브릿지	(舊) “LH가 착한기업 소셜벤처를 지원합니다.” (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전의 첫걸음, LH가 동행합니다.”	언론 일방향
기업은행	IBK창공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위해(기업을 앞으로)”	SNS 쌍방향
LG전자, 화학	LG소셜캠퍼스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바이럴
현대차	H-온드림 사회적기업	“Turn on Your Dream(당신의 꿈을 켜라)”	
KT&G	KT&G상상플래닛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포스코	2020 NEW MARKET PLACE	“Good to Great(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출처: 기업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1: 브랜드와 슬로건은 예시일 뿐, 확정사안이 아님

주2: 6대 경쟁사에서 K-water는 브랜드, 표어 부재로 제외

62) LH 소셜벤처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키워드로 바꾸는, 함께, 새롭게, 착한, 따뜻한, 도전, 변화, 임팩트, 꿈, 비상을 추천

63) 2019년 SK 최태원 회장 제안으로 기획된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사회적가치 연결 플랫폼으로 판로개척 고민 해결

64) 사회적 가치를 추동하는 기업 일원이란 자부심과 참여팀끼리 유대감을 돈독히 쌓는데 유용한 ESG 분야 굿즈(Goods: 노트, 펜, 텀케이스, 가방, 텀블러 등)로 구성된 일종의 웰컴키트(Welcome Kit) 증정, 언박싱(Unboxing) 영상은 부수적 홍보 및 흥미 유발

11) 파트너십 협력으로서 공적 역할 및 예상 기대효과

- LHSV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선도 기업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추후 공사가 주축이 되어 다자간 사업 참여주체(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간지원조직⁶⁵⁾, 대학, 연구소, NGO, 국제기구 등)들과 민관협력 파트너십 아래 건전한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선순환기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 충실(송기욱 외, 2023)
 - 내적 기대효과로 공기업 조직미션인 사회적 책임 준수, ESG 목표실천, 동반성장 문화 착근, 반기업정서 완화⁶⁶⁾에 이롭고, 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관심 환기 및 저변확대 기여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이자 조력자(Facilitator)로서 공적 역할은 소셜벤처 공간제공자(Developer: 입주시설 대여),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자금 투·융자), 운영관리자(Incubator: 창업보육·훈련기능)까지 도맡아 사업전반의 기획총괄 조정자(Coordinator) 수행이 바람직
 - 소셜벤처 혁신동력을 이끌어내려면, 민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과 산학연관의 끈끈한 상호 유기적인 연대 협의체인 거버넌스(협치시스템) 구조가 잘 지탱해주어야 함([그림 5-18] 참조)

[그림 5-18] 민관협력 파트너십에서 LH 수행 역할 및 예상 기대효과



출처: 저자 작성

12) 지원책 애로사항 및 기타의견

- 소셜벤처마다 관심사안 및 성장단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 전주기 맞춤형

65)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소셜벤처 간 사회혁신의 가교(Bridge) 역할로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애쓰며, 그 수만 95개에 달함(소셜벤처스퀘어, 2023)

66) 근래 몇 년 간 추락한 기업이미지와 신뢰회복을 의식하는 결과로 점쳐짐

지원 프로그램의 종합적인처방책(Remedy)이 절실하며, 제도 운용 상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상시 소통창구(전담인력·조직 배치) 구비로 고객만족도를 증대시켜야 함

- 소셜벤처 육성 및 성장과 관련해 LHSV 지원책 중 애로사항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컨설팅, 후속 투자유치, 판로개척, 네트워킹 교류, 물적 자원연계, 거버넌스 미흡으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불평 토로
- LHSV 경쟁력 강화 및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건의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방향성 제시, 다수 기업들과 공동 목표하에 협업(Collaboration)을 통한 성과홍보 확산으로 브랜드가치 상승을 바라는 의견 개진([그림 5-19] 참조)

[그림 5-19] LHSV 운용 시 제도적 개선책 및 기타 의견




(종합평가) “지원금을 도구 삼아 소셜벤처에 과한 성과요구는 옳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상당수 또한 정부부처 소관 사회적 기업과 민간시장 벤처에 치우쳐, 중간영역인 소셜벤처 지원이 부족해 힘듭니다.”
(이○○: 30대 男, 소셜벤처 6년차 대표)

(공간지원) “LHSV를 적극 홍보하고 관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상징적인 소셜벤처 입주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김○○: 40대 男, 금융권 22년차 부장)

(금융지원) “LH가 은행·보증기관에 특별출연, 이차보전(이자·보증료 지원) 형태로 재무형편 사정이 어려운 소셜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합니다.”(김○○: 40대 男, 공공기관 23년차 부지점장)
(이하 생략 ...)

(인력지원) “더 나은 소셜벤처 기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운영관리, 후속 지원하려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전○○: 40대 男, 중간지원조직 25년차 대표)

(기타사항) “LH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와 국민신뢰도 추락은 소셜벤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LHSV 참여팀으로써 자긍심과 선발 후광효과(Halo Effect)가 줄어든 듯 합니다.”(조○○: 50대 男, 임팩트투자사 26년차 대표)

출처: 저자 작성

주: 문항별 인터뷰 의견진술 내용 무작위 발췌(익명 인용표기)

3. 소 결

■ LHSV 운용체계 개편, 가치창출형 특화모델을 중심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 LHSV 제도개편의 큰 틀은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제 및 사회환경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운용과정 상 노정된 문제·미비점을 시정(보충)해 쇄신, 실용주의 가치를 내건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체질 개선
 - LHSV 성과평가(4장)를 통해 하단의 [그림 5-20]과 같이 긍정적 부분은 그대로 계승·보전(사회적 가치)하되, 비즈니스모델에서 드러난 근원적 한계나 취약점을 수정·보완(수익성, 기술혁신 심사 강화)
 - 업계 고위 전문가들의 심층의견을 수렴·청취한 FGI 조사분석 결과(5장)에 의거, 미래 중장기 LHSV 고도화 설계 시 올바른 발전방향(공사 내부 경영목표 및 사회공헌 전략 부합, 고유사업 특색 반영, ESG 활동 연계, 국민체감형 성과홍보 확산) 및 세부 추진계획 갱신(Update)

[그림 5-20] LHSV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1 수익성 	2 사회적 가치 	3 혁신성 	4 기타 
 “낮아 몸집 키워 상승”	 “우수해 꾸준히 유지”	 “저조해 기술집약 증대”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출처: 저자 작성

- 현 LHSV 인식 및 실태는 범대중적 인지도 아래 사업취지에 공감을 얻으며, 청년창업과 따뜻한 온정(Compassion) 베풀 이미지를 떠올려 우호적인 여론 조성, 뿐만 아니라 중요도-수행성과도 훌륭해 향후 글로벌 기업 사회공헌 의제(Agenda)가 될 ESG 수단으로 활용 잠재력이 무궁무진
 - 코로나19 시절 투자시장 급랭기로 소셜벤처 지원에 일시적 자금이 끊긴 위기도 있었지만, 일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기업의 장수(Long Run) 사회공헌 브랜드사업으로써 나름 유구한 역사와 전통적 명맥을 유지한 채 익년 10년차를 앞두고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낙관적 평가 우세
 - 국가-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선한 영향력을 부단히 행사해야 할 공기업 본연 설립목적(존재이유)과 임무를 헤아리면, 사회적 책임 구현, ESG 경영실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란 제한적 테두리 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한

공공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합당

- LHSV 경쟁력 강화의 발전방향은 리브랜딩과 함께 예산규모, 사업분야, 특화모델, 성과지표 선정, 홍보·마케팅까지 골자로 한 일원적인 기업 성장단계(트랙 1~3)별 제도 운용체계 정비를 필히 수반해 내실화 추진
 - LHSV가 속한 사회공헌 지출액이 낮은 바, 민관을 막론하고 경기등락(Up & Downs),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규모 이상 예산확대(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에 상응) 편성이 선결되어야 함
 -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 여겨 임팩트비즈니스 스타트업, 사회혁신기업으로 통용되며, 탄소저감, 도시재생, 주거안심, 지역경제, 공유공간이 LHSV가 역점을 두어야 할 미션 영역으로 UN SDGs 9(산업·혁신과 인프라), 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과 맞닿음
 - 사업분야는 교육·문화·복지 등 전 업종의 창업지원(Track 1: 기초)을 줄인 대신 기존 도시·주거·지역으로 국한된 성장지원(Track 2: 중급) 계속 유지, 그 이후에도 글로벌 도약에 도전하는 기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Track 3: Jump-up, 심화)을 신설해 성과제고([그림 5-21] 참조)
 - 소셜벤처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민간 액셀러레이터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부류이기 때문에 참여팀, 지원금, 매출액, 고용인원,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생존율은 핵심성과지표임에 큰 이견이 없으나, 일부 현장에서 이들의 양극단과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건설적 성찰도 상존

[그림 5-21] LHSV 운용체계 개편 구상안

구분	기존트랙		신규트랙(개편 후)
단계	1단계: 창업지원(기초입문) Start-up	2단계: 성장지원(중급) Scale-up	3단계: 개방형 혁신(심화) Jump-up
응모자격	전 분야 제한없음(제조 및 판매)	본업 기능(도시·주거·지역)	협력분야(ESG, 로컬, 공간, 기술)
지원금	 2천만원	LEVEL UP  5천만원	 1억원
비중	75% ▶ 50% (▼)	25% ▶ 30% (▲)	0% ▶ 20% (▲)
규모	30팀/6억원 ▶ 20팀/4억원 (▼)	10팀/5억원 ▶ 12팀/6억원 (▲)	0팀/0억원 ▶ 3팀/3억원(▲)
운용특성	사업 양적규모 확대, 성과 미미	착근 단계로 소기 성과 발현	탁월한 성과(MOU) 및 홍보 확산
개편방향	점진적 축소	유지 또는 통폐합	소수 기업선발로 순차적 상향

출처: 저자 작성

주: 신규트랙 개설은 미확정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추구가치와 기술력에 따라 중위구간(Middle Class) 표적시장을 형성한 LH 특화모델(소셜임팩트 가치창출형)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ESG 문제해결, 로컬기반, 공간환경 개선, 혁신기술형으로 분류 차별화, 매년 LH 정책과제나 현안이슈 해결, 그리고 사업에 접목가능한 지정주체들을 자유롭게 공모 발굴함으로써 시민사회 관심 독려
- CSV·ESG 차원의 개방형 혁신은 지원금 한도를 대폭 증액한 소수 기업선발(최소 1억원 지급, 총 3팀 이내)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때 LH와 소셜벤처가 상호 협업해야 할 비즈니스 분야에서 보유자원 및 역량 교환(공공: 공간, 자본, 데이터, 인프라+민간: 아이디어, 인재, 기술)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호혜적 동반자 관계 진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공유
- LH 가치사슬(기획-생산-유통-마케팅, Pipeline)에 사회적 가치를 입힌 소셜벤처 제품·서비스 실증과 판로지원 경우, 하단 [그림 5-22] 롯데그룹의 프로젝트루프(Project LOOP)⁶⁷⁾에서 보여지듯 양측 모두가 손쉽게 ESG를 달성하는 현실적 실행방편이 되므로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지원기관 우수사례 대외홍보 및 브랜드 확산의 시민 친화적 계기 마련

[그림 5-22]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과홍보 확산 모범사례



출처: 프로젝트루프(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결론적으로 LHSV를 운영하는 공급자와 소셜벤처 수요자 입장에서 급진적 변화는 도리어 시장 혼선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다소 일정이 늦더라도 기업 생애주기별 계단식 상향지원(e.g. LG, KT&G)의 일관된 방향 아래 점진적 변화 유도

67) 2020년 롯데케미칼(화학군)과 소셜벤처 LAR(친환경제품 제조업)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경제목적으로 전 공정(배출-분리수거-선별-원료화-제품-판매)에 이르는 전사적 협심의 결과물로 리사이클(Recycle)용 가방·신발·의류·잡화품을 만들어 롯데백화점 숍(온라인몰)에 입점, SNS상 저명인사(신동빈 회장) 착화가 노출되면서 품절사태 초래

- 사업구조가 예비 및 초기 창업지원에 열중할수록 자칫 사회공헌활동 기조와 역행하는 우후죽순 양산되는 백화점식의 외형적 규모(Volume)만 키울 뿐, 정작 기업실적은 부진해 지원금의 실질적 수혜효과 저하 원인으로 작용됨을 규명
- 결국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 지원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과를 가장 극대화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사업분야 배분 비중의 조화로운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균형점(e.g. 창업지원 : 성장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 = 5:3:2)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함
- 공공이 창업자금, 금융·투자, 사무공간, 교육·컨설팅, 크라우드펀딩 등 아낌없는 전후방지원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다양한 민관 사업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소셜벤처 성장 발판의 튼튼한 디딤돌 역할 기대

제 6 장 결 론

LANDS Housing INSTITUTE

제6장 결 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1. 연구요약

■ LHSV는 투입비용 대비 무형적 기업가치가 큰 사업으로 성장단계별 선택과 집중

○ 오늘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혁신에 앞장선 소셜벤처가 신성장동력원으로 주목받으며 ESG 경영선도 관점의 민관협력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LH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온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면밀히 점검하여 개편방향 모색 대두

- 본 연구의 내용은 (1) 소셜벤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2) 대내외 시장환경 동향과 여건 진단, (3) LHSV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검증, (4) 가치창출형 사업모델 기본구상 및 발전방안, (5)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적 기능 확립에 토대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

○ 첫째, 사회적 가치, 수익성을 양립한 소셜벤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상업자본 원리의 벤처기업 속성이 혼종된 중간섹터로 그간 정부 수혜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왔으나, ESG 지속가능경영 투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공공성 강화란 큰 틀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보편타당

- 소셜임팩트 담론의 인문학적 고찰로부터 미래 청년세대 창업지원 및 지역경제 부흥, 사회문제 해결 동참 및 혁신성장, ESG 경영과 연계한 대안적 사회공헌 사업모델 발전, 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목표 이행이란 대의적 명분하에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 배려 필요성과 LH 사업참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박민진·김태영, 2018b; 주재욱·윤종진, 2020)

○ 둘째, 소셜벤처를 둘러싼 대내외 동향을 비추어볼 때 외부시장 환경(PEST)은 실적 호조세로 당분간 우호적 국면의 분위기가 점쳐진 가운데, 공사 내부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소 낮은 사업매력도를 보이거나 미래 성장잠재력 풍부

-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 완만한 경기회복, 디지털 정보기술 가속화, 윤리가치 소비성향의 MZ 세대 출현, 소셜벤처 육성 장려책에 힘입어 임팩트 투자시장 활황으로 사회

적 지원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무건전성 위협, ESG 경영리스크 잔존(부동산 투기, 건설안전 사고), 산발적 단위 사회공헌, 고강도 혁신안(기능분리·인력감축)에 의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산업지형을 뒤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등극 예상

- 셋째, LHSV가 운용 중인 외형적 규모 물량(기업수, 참가자, 지원금)은 단기간내 비약적 성장세를 거듭하였고, 이윤확대, 고용창출, 생존율, 투자유치 성사,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대변된 수익성·사회적 가치·혁신성 등 핵심성과지표가 양호해 소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들여 재정지원 시기 전후로 실질기여도의 효과성 입증

- 첫 해인 2015년부터 11기수에 걸쳐 역대 누적 2,822팀이 응모해 평균 18: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022년 기준 지금까지 243팀(신규 161팀) 선발로 총 64.5억원을 지급할 만큼 청년층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꽤 높음, 이 수치는 국내 현존 사회적벤처기업(2,184팀) 개체의 11.1%를 점유해 막강한 LHSV 시장지배력 행사 실감
- LHSV 참가팀의 주된 특징은 전국 7대 광역권 도처(서울 42.9%)에서 문화·예술, 동물복지 등 23개 영역 소셜미션 수행으로 광범위하며, 대부분 업력 3년 미만 기술기반(제조·정보통신 계통) 초기 창업 스타트업(77.6%)이 많아 재정상태(자본 1.2억원, 부채비율 261.0%)·신용등급(BB+ 이하: 89.9%)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형태를 띠
- 지난 9년간 개관 이래 운용성과 결산은 매출액 195.8억원(흑자 50.7%, 증감률 2.7배), 투자유치액 124.7억원(49회). 창업가 양성 1,088명(지원금 십억원당 170여명 간접고용, 사회적경제조직 87팀 배출), 생존율 97.8%(5년차 일반창업기업 33.8%, 루트임팩트 85.2% 상회), 지식재산권 66건, 창업공간 임대료 절감액 1.2억원(무상입주 25팀), 크라우드펀딩 8.9억원 달성으로 부가가치(생산성)가 뛰어나 여타 기업군 대비 경쟁력 우위 선점 타진, 소셜벤처 활약상이 남다른 이유로 LH의 공간·자금·컨설팅·판로개척 등 두텁고 체계적인 밀착형 지원이 기업창업과 성장에 한몫을 담당한 것이라 여겨짐

- 넷째, 당초 시점과 달라진 정부 정책기조, 대내외 환경 및 미래 사회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현 시스템 상 수혜성과가 미진한 부분 수정·보완 방향으로 LHSV 전반의 운용 체계 제도 개편의 리브랜딩에 찬성, 다만 세부적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설계를 놓고 이해관계자별 뚜렷한 입장과 의식수준 차이 확인,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분야 3단계 확장과 LH 특화모델로써 ESG를 접목한 신가치창출(소셜임팩트)의 기업성과 공유·홍보확산 극대화에 차별성 강조로 집약

- 사회적경제 직군별 전문가 집단 FGI(CEO·부서장·관리자급 13명 추출)는 따뜻한 청년 창업의 대명사로 알려진 LHSV 인지도(3.31점, 61.5%)와 위상(3.31점, 84.6%)이 고평가되며, 전원에 가까운 사업취지 공감(4.38점, 92.3%)을 불러일으켜 ESG 수단(4.0점, 61.5%) 인정, IPA 기법에서도 중요도(4.54점) 및 수행성과(7.85점)가 상대적 우위를

점한 강점(H-H) 포지셔닝으로 존립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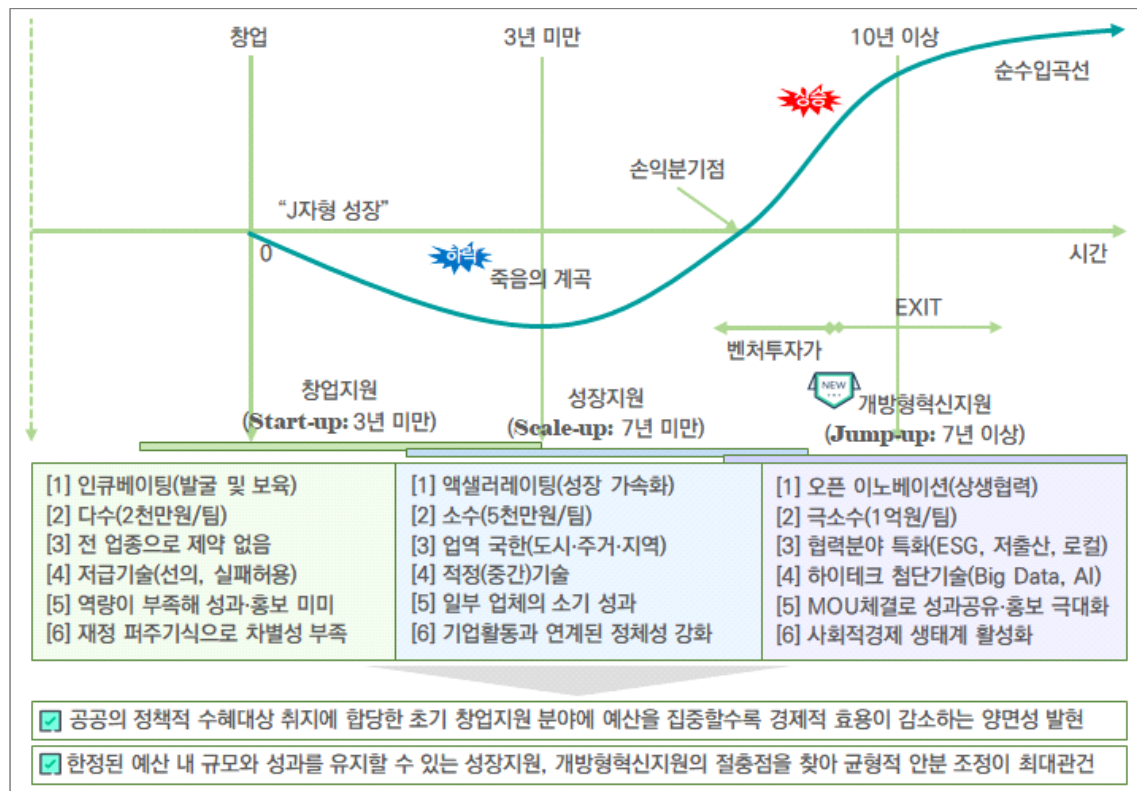
- 기업경기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사회공헌 예산 지출액과 팀별 지원금(2~5천만원/년, 1.4배 상향) 증액 편성 속에 창업과 성장 이후 도약기에 접어든 후속팀의 지속적인 지원이 단절되어 아쉽다는 중론을 숙고하여 종착점인 개방형 혁신분야 신설을 전제로 개혁(3.54점, 61.5%) 동조 경향
- 사업분야가 대체로 정부지원 충족요건인 업력이 짧은 예비 및 초기 창업지원에 과도하게 치우쳐 수혜기업만 양산할 뿐 정작 성과하락 부진이 두드러진 이른바 양면성(딜레마)이 발현, 이보다 LH 본업과 밀접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업력 3년차 이상 도시·주거·지역에 국한된 성장지원과 심화단계인 기업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관계의 개방형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시너지 발휘⁶⁸⁾
- 이미 대기업에서는 유망 소셜벤처들과 비용 효율성, 신수종사업 발굴, 성장촉진 목적 하에 더 이상 경쟁대립 구도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로 개방형 혁신이 열렬히 채택되어 눈부신 가시적 성과·업적을 일궈낸 상당수 벤치마킹형 지원프로그램들(IBK 1st Lab, LG 소셜캠퍼스, KT&G 상상스타트업캠프)이 본 주장을 경험적 지지(역설적 반증)
- LH 특화모델(가칭 소셜임팩트형)의 경우, 이웃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대응, ESG 문제해결, 로컬기반, 공간환경 개선, 혁신기술형으로 분류해 모의 적용을 시도하거나, 정부 국정과제 현안(도시재생뉴딜, 균형발전 외)과 기타 공익성을 부양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으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제안 시 심사 가산점 요소로 우대방안 검토
- 계획부터 생산, 운영·관리까지 일련 제반 프로세스 융복합 탐색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역량을 겸비한 민간 스타트업과 밀도 있는 프로젝트 공동협업(자원순환·탄소감축, 지역커뮤니티 취약계층 고용, 시민참여 활동)의 업무협약을 맺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공공조달 판로개척 지원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ESG 실천 전략이 됨
-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LH 사회공헌 철학과 상징적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e.g. LH 임팩트 챌린지) 공모와 대국민 체감형 혁신BP 사례를 만들어 대외에 널리 소통·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셜벤처를 키워낸 인큐베이팅 기관을 각인시키는 친화적 계기로 분위기 쇄신 유도
- 결국 성과경로별 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영속적인 LHSV 경쟁력을 모색하려

68) 만약 기획의도대로 창업기업이 성장해 지원기관과의 협력적 발전관계로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최선안(Best Case)임

면, 기업가정신 함양 및 기술역량 고취, 투자유치, 분명한 KPI 목표치 설정, 홍보·마케팅채널 소통 강화, 실력 있는 민간 위탁운용사 참여 보장, 특히 사업분야를 무분별한 다수 창업지원 비중을 낮춘(씨뿌리기 중지) 대신 소수 성장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분산적 집중으로 시간여유를 갖고 점진·탄력적 운용을 피하되, 절충점(Equilibrium)을 포착해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재조정 접근([그림 6-1] 참조)

- 이에 따라 부수적인 시행시기나 추진속도를 비롯해, 사업규모, 분야, 응모자격, 지원내용, 선발방식, 심사기준 등 사업구조 개편안 작업은 해당 실무부서(총무고객처, ESG전략부)와 원만히 사전협의로 의견조율 후 결정

[그림 6-1] 소셜벤처 기업성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LHSV 운용체계 개편방향



출처: Kazanjian R. K.(1988), 이윤준 외(2013)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주: 소셜벤처 기업 성장주기 곡선에 LHSV 사업분야별 특징을 대입해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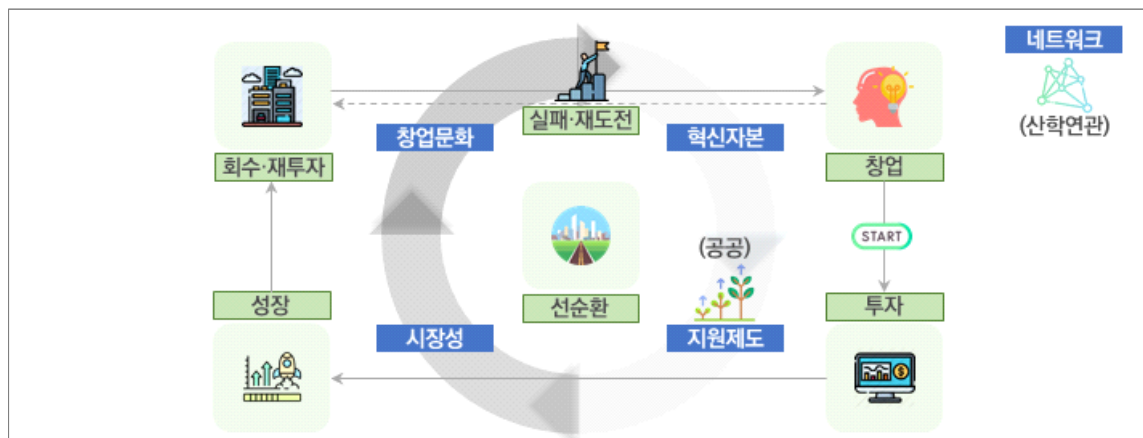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도전 과정으로 원활하게 이어진 양질의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선순환기제 구축 및 민간주도 역동적인 혁신성장의 시장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 정립([그림 6-2] 참조)

- 소셜벤처 스타트업 주축으로 정부, 대기업, 금융·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대학 및 연구

소, 재단, 학·협회 등 임팩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생태계 구성원들간 돈독한 파트너십과 유기적인 상호작용 아래 마음껏 만나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창업지원허브 플랫폼 조성의 공간제공자로서 공공의 중추적 역할 매진 전념

- 이렇듯 상기사항을 간추려보면, 본 과제는 LH 소셜벤처 제도 현황 및 성과평가, 전문가 인식 실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까지 총괄 집대성한 최초 실증분석 연구로써 ESG를 가미해 공사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의 미래 청사진 조망했다는데 정책적 함의(Implication) 제공
 - LHSV가 연간 10억원 내외 기부금 용도로 충당되는 비주력 영업부문을 감안 시 당장 눈부신 성과를 기대하기 무리인 듯 싶으나, 기업가치 증대와 사회후생의 가성비 면에서 대단히 유익(Beneficial)하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소모성 적자사업이란 오명을 불식시킨 선제적인 ESG 경영투자로 이해해야 함
 - 무엇보다 LH가 추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현 주소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과학적인 사후 성과측정 평가시스템 발전 초석을 다져 공론화 장(場) 마련의 시발점이자, 미래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공적 사업실행에 귀납적 논거로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줌

[그림 6-2] 건전한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선순환구축 기제



출처: 저자 작성

1.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ESG 실천과 정부경영평가 실적반영, 대외홍보로 기업이미지 개선 및 위상 강화 기대
- 연구결과물 활용방안은 사회공헌부에서 LH 소셜벤처 생태계 동향과 특성 이해의 학

술적인 기초자료로 쓰이며, ESG 성과와 연동되는 정부경영평가 등급 상향 및 기관브랜드 가치창조에 일조

- 2023년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시, 소셜벤처와 포용적인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혁신계획 실행노력(가점) 지표의 배점 획득⁶⁹⁾
-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로써 이색적인 스토리텔링형 LH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연말 성과공유회로 우수팀 시상)해 ESG 체감성으로 부각 등 대외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및 경영평가 지표관리에 BP 활용 추천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제도소개, 추진현황, 운용성과를 총망라해 최신화한 후 공사 중인 홈페이지 실적 공시⁷⁰⁾로 정보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안내할 수 있는 휴대용 발간물(LHSV 2024 브로슈어/리플릿)로 제작·배포하여 마케팅
- 실무직원들의 소셜벤처 지식과 인사이트(Insight) 함양, 업무부서별 유망한 신성장 사업아이템 고안(e.g. LH희망상가를 청년 창업지원의 소셜벤처 임대공간 공급)에 유용하고, 연구결과 공유 혹은 가시적 성과 확산차원에서 논문발표, 세미나 행사개최로 전문가 네트워크(Humint) 구축 및 LH 위상 제고

69)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23)은 상당 수준(e.g.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의 사회공헌 취급으로 인정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 상향조정 명시

70) LHSV 전용 메인화면과 LH 홈페이지 ESG경영_동반성장_소셜벤처 창업지원란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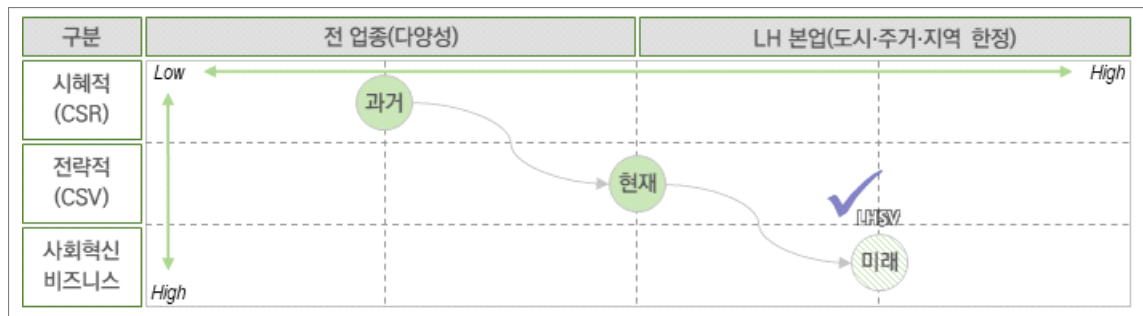
2.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2. 1. 제도개선 방안

■ 규제샌드박스 특례제도 활용과 LH 사회공헌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방향성 제시

- 포괄적 접근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인 LH 사회공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최소 5년 단위)과 지속가능한 정상운영 작동기제(Mechanism) 실현을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 등 하위 관련 공모지침 정비방안 상세 검토
 - 전자가 상위계획으로 공적 미션 아래 사회공헌 비전, 목표, 원칙(방침), 수혜대상, 분야별 전략, 실행과제, 예산의 종합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담은 거시적 방향성을 준다면, 후자는 LHSV 모델 고도화 개발(수혜자 정의, 사업내용, 응모자격, 선발방식, 지원기간, 평가기준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변경 공모지침의 구체적 실천행동(Action Plan)으로 현실화
 - 과거 무차별로 시행되었던 전 분야의 시혜적 사회공헌에서 탈피해, LH 업무특성과 어울려 고객사와 협력하는 ESG·전략적 사회공헌(노후주택 개보수, 지역 커뮤니티시설 건설) 활동방향 진화로 LHSV 미래 중장기 로드맵(Road Map) 구상할 수 있음([그림 6-3] 참조)

[그림 6-3] 사회공헌 전략과 사업기능을 고려한 LHSV 중장기 로드맵



출처: 저자 작성

-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 영역과 ICT 기술요소가 결합되는 융복합 분야인 만큼, 혁신적 서비스에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규제샌드박스 제도(Regulatory Sandbox) 도입으로 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기업성장 견인(관계부처 합동, 2020)
 - 정부 당국으로부터 소셜벤처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부가조건(안전·유효성 결점 無)하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게 ICT 규제샌드박스의 한시적 면제·유

예로 신속처리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인정(e.g. 코엑터스(주): 고요한 모빌리티⁷¹⁾)을
통과해 이중산업 간 신기술 촉진

2.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적은 표본자료와 FGI 조사로 결과 일반화 한계, 추후 정기적 KPI 통계생산 관리 과제

- 소셜벤처 시장을 대변하기에 LHSV 모집단 크기가 작고 자료구득이 어려울 뿐더러, 현실적인 시간·비용제약 상 실시된 FGI 질적조사 방법론은 결과의 신뢰성 담보 부족 등 원천적 한계점 봉착

- 분석대상인 LHSV 선정팀 명단(243팀) 중 국내 최대 기업 평가데이터 C사에 등록이 완료된 회사개황·재무·경영정보 추출로 각종 이력·성과의 역추적(Back Tracking)을 시도했지만, 개인과 신생 스타트업 창업이 많아 데이터가 없거나 제공주기(5년 미만)도 짧아 완전한 복원에 못 미침
- 사회적경제 내 직군별 전문가 집단(13명)의 고른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FGI 경우 주관적 경험 판단에 입각한 소수 응답($N \leq 30$)에 그쳐 전체 성향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 일반 수요자인 소셜벤처로 확대 추진하여 실질적 지원책 문제점 및 대처방안 모색에 심도 깊은 고민 요구
-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소셜벤처 활동에서 창출한 비계량적 사회성과 측정의 화폐화 역시 이루어져야 하나, 모든 분야에 항목별 일괄 적용이 힘든 사유로 간과(배제)된 점은 한계로 남기고자 함

- 향후 과제로는 소셜벤처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 타 사업군과 비교해 LHSV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공신력을 가진 벤치마킹 성과지표 자료수집, 통계생산 및 축적이 급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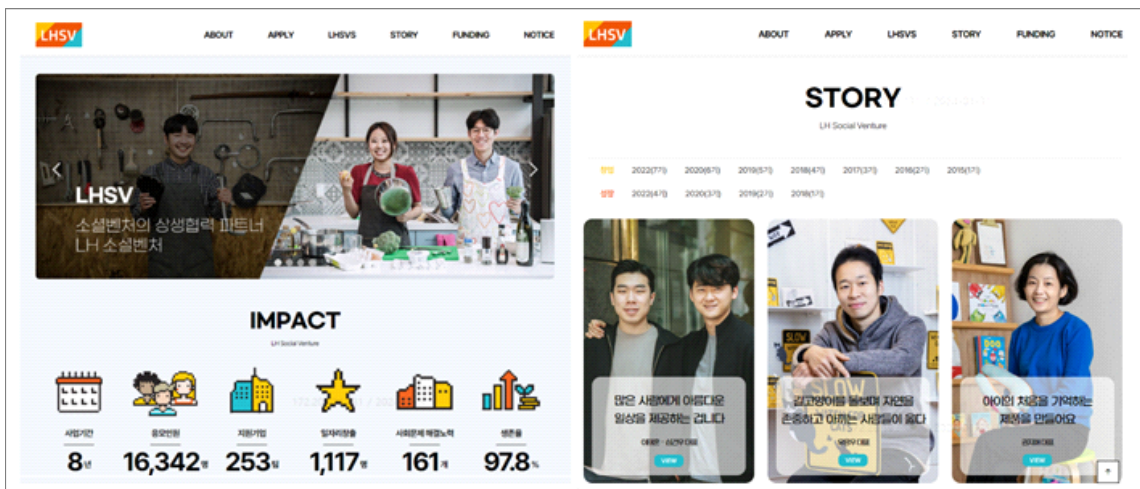
- 지원사업 수혜기업들의 경제·사회적 가치 부문의 매출, 자산, 일자리, 업종, 생존율을 연차별로 설문조사하여 정례적 DB화 갱신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창업 스토리텔링 질적 기술 수행
- LHSV 참여계기,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소재지 이전, 취약계층 고용, 생멸, 휴폐업 사유 등 추가 현황조사로 지속적인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마치 [그림 6-4]처

71) 서울시 내 청각장애인을 채용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빌려 의사소통하는 플랫폼으로 SK텔레콤 ADAS 첨단장비(도로위험 진동전달) 지원에 힘입어 소셜벤처 성장저해의 혁신적 규제 타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알선 금지→최대 100대 차량예약 호출 영업허가)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럼 홈페이지 구동 작업과 연결한 분석결과의 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 탑재 노력 필요

- 소셜벤처 성장경로(Growth Path)별 하위시장으로 세분화하여 종속변수인 기업성과와 투자유치에 유의미한 결정요인 차이를 상호 검증하려는 미시적인 후속 연구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함

[그림 6-4] LHSV 운영현황 및 KPI 대시보드 구현의 홈페이지 개정화면



출처: LHSV(2024)

참고문헌 Reference

- 강민정(2018),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경영교육연구』 33(1): 97~123.
- 강서진(2019), 착한 스타트업 소셜벤처 생태계와 지원 현황, 『KB 지식비타민』 20(1), 1-11.
- 고용노동부(2022), “2022년 사회적기업 428개소 인증”, 12월 21일 기사.
- _____ (2023), 2023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월 18일 기사.
- _____ (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월 8일 기사.
- _____ (2018),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5월 16일 기사.
- _____ (202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12월 27일 기사.
- _____ (2022),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12월 29일 기사.
- _____ (2023), “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8월 11일 기사.
- _____ (2023),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7)”, 9월 1일 기사.
- 기술보증기금(2022),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평가모형 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3), 2021년 기준 소셜벤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기획재정부(2022),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7월 29일 기사.
- _____ (2023),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기획재정부.
- 김광수(2019), 소셜벤처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정·윤정중·문효곤·최종수·최상화·김륜화·김미경·임수현(2022), 신도시사업의 ESG경영 실행체계 구축, LH 토지주택연구원
- 김륜화·윤정란·김홍주·성태영(2018), 로컬 기반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 김용태(2019), “소셜벤처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중

- 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191~198.
- _____(2021), “소셜벤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 학회지』 5(2): 147~167.
- 김진수·이창영·김재호·서경준·김정태(2019), 소셜벤처 창업하기, 서울: 도서출판 홍릉.
- 김창완·서용운·박영자(2021), 소셜벤처창업, 대구: 빛을여는책방.
- 김태영·김남호·이경황·류영재·윤남화·도현명(2021), 소셜벤처로 가는 길, 서울: 세창출판사.
- 김형만·김진수(2022), “하이테크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벤처창업연구』 17(1): 121~137.
- 김홍주·김륜화·이승은(2022), LH 공공지원건축물 기반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 권재연·남진(2022), “서울대도시권 스타트업 집적지의 유형별 입지 특성”, 『국토계획』 57(4): 63~81.
- 뉴스핌(2021), “소셜벤처가 뜬다 … ESG 열풍 속 소셜벤처 창업지원 주목”, 9월 21일 기사.
- 문상철(2022), 청년을 위한 소셜벤처 멘토링, 서울: 텍스트CUBE.
- 민성훈(2021), 투자의 미래 ESG, 서울: 한숲.
- 박민잔·김태영(2018a), “한국의 소셜벤처 특성 연구”, 『중소기업정책연구』 3(3): 39~68.
- _____(2018b), “소셜벤처의 사회혁신 역할 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1(3): 3~30.
- 박상학(2017), 장기공공임대단지내 사회적기업 유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 박재홍·황금주(2017), “소셜벤처 창업초기에 플랫폼 전략의 도입과 영향에 관한 연구: 점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4): 133~144.
- 박찬임·박종현·장종익(2014),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벤처기업협회(2022),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가치연구원(2020),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사회적가치연구원
- 서울시청(2018), “서울시, 소셜벤처 사회성과 보상 등 집중육성”, 2월 22일 기사.

서울주택도시공사(2022), “SH공사,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료”, 11월 21일 기사.
 _____(2023), “SH공사, 주거·공간 혁신분야 창업팀 모집”, 6월 29일 기사.
 _____(2023), “SH공사, 주거 혁신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지원”, 10월 20일 기사.

설병문(2022), “AHP를 이용한 소셜벤처 기업가정신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2): 291~297.

설병문·김영락(2023), “근거이론 접근법을 이용한 소셜벤처 창업현상에 관한 고찰”, 『벤처 창업연구』 18(1): 67~83.

성동구청(2023), “2023년 성동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3월 30일 기사.

성지마·황준욱·안주엽(2014),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성지은·진우석(2022), 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STEPI Insight』 291, 1-50.

송기욱·장인석·신형섭·송태호·임민정(2020),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요소를 고려한 정책형 리츠 평가지표 개발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송기욱·장인석·임주호·구아라·김민희(2023),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적 역할 정립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안지훈(2019),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 경기: 정독.

오계택·류성민(2015),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종진·주재욱(2022), “서울시 소셜벤처의 개념과 생태계 비교 연구: 성수 사회혁신클러스터와 불광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5(1): 3~27.

윤지훈·박지훈·배정태(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벤처의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0(1): 91~134.

이기훈·이의영(2011), “사회책임경영(CSR)의 역사적 고찰과 기업의 대응전략”, 『창조와 혁신』 4(2): 87-117.

이로운넷(2021), “공공기관 ESG 추구, 소셜벤처가 좋은 파트너될 수 있어”, 9월 7일 기사.
 _____(2022), “판별은 받고 싶지만 공개는 싫은 소셜벤처들”, 5월 16일 기사.

이상준·신현상·김윤정·김하은(2021), 사회적경제의 임팩트 투자 모델 탐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선화·이상운(2023), “사회적경제조직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연구: 참여목적과 특징을 중

심으로”, 『중소기업금융연구』 43(2): 41~78.

이새롬·도현명(2018), *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 경남: 남해의봄날.

이여경·심경마·차주영(2018),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유라·이명훈(2017),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161~187.

이윤준·정기철·장병열·나청호(2013), *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은선(2021),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75: 231~266.

이흥일(2008), *건설업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영언·허성태(2019), “사회적경제 혁신가 양성장소로서 한일 소셜벤처타운 사례 고찰”, 『인문사회 21』 10(6): 1575~1587.

임재웅·박계홍·윤호중(2019), “소셜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 『혁신기업연구』 4(1): 55~68.

임팩트온(2020), “해마다 늘어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총정리해봤다”, 7월 1일 기사.

전국경제인연합회(2023), *2022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규열·조보현·오정석(2023), *이것만 알면 스타트업 인싸*, 서울: 새로운사람들.

정원오(2021), *지속가능도시, ESG*, 서울: 라이스메이커.

조선일보(2017), “서울시 곳곳 창업공간서 만들어봐요, 당신의 꿈”, 3월 28일 기사.

_____ (2022), “산동빈 화장 신고 나니 주문 폭주·9만7000원짜리 운동화의 비밀”, 1월 8일 기사.

주재욱·조달호·윤종진(2018),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주재욱·윤종진(2020),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방안*, 서울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방안 연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2016), *선순환 소셜벤처 육성방안 연구*, 서울: 휴먼컬처아리랑.

_____ (2016),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 4월 18일 기사.

중소벤처기업부(2021), “사회정의벤처 지원 본격 시행, 판별기준 정비 등 지원 박차”, 7월 20일 기사.

_____ (2021), “소셜벤처 정책추진 4년,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12월 1일 기사.

- _____ (2022), “창업·벤처생태계, 1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 5월 24일 기사.
- _____ (2023), “2021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 기사.
- 지속가능경영 네트워크(2023), 소셜벤처 & 중소기업 공급망 관점 ESG 경영 워크북, 경기: 더페이퍼.
- 진성한·양덕모·이종희(2023), 중간·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서울: 학지사.
- 창업진흥원(2022), 2022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_____ (2023),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최세경(2018),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 『중소기업포커스』 18(11), 1-19.
- 최용석·백보현(2020), “사회적 혁신 기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 『벤처창업연구』 15(3): 1~17.
- 최준규·윤소은(2018), 사회혁신의 새로운 기반: 제4섹터, 『GRI FOCUS』 5, 1-4.
- 한국고용정보원(2022),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4월 29일 기사.
- 한국노동연구원(2022), 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농정신문(2023),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안 돼!”, 10월 29일 기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3), 2022 사회공헌백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4), 2013 소셜벤처 사례집, 서울: 이음스토리.
- _____ (2023), 2023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2022), “캠코, 청년·벤처창업 민간 지원효과 톡톡”, 11월 9일 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6), “LH, 청년 창업샘터 개소”, 11월 18일 기사.
- _____ (2022), 2022 LH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 _____ (2022), 사회공헌, 『with LH』 69: 1~70.
- 한정수·최자영(2021), “소셜벤처의 이중가치(경제적 vs 사회적 가치)와 벤처투자자의 해석 수준이 소셜벤처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6(4): 85~111.
- 홍유정·김종성(2023),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 투자선호도가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정서 매개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5): 55~72.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10월 18일 기사.

ESG경제(2022), “ESG시대, 기업사회공헌의 역사적 흐름과 전략과제”, 1월 03일 기사.

かけ裕介(2019), 持続可能な地域のつくり方, Shibuya, Tokyo: 英治出版.

八尾浩之(2023), ESG不動産投資, Shibuya, Tokyo: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Blokdyk, Gerardus(2020), Social Venture Capital: A Complete Guide, Toronto, ON: 5starcooks.

Brock, D. D., & Steiner, S.(2010), “Social Entrepreneurship: Be the Change”, *Social Entrepreneurship Program*, 9, 1~27.

Carlson, Eric and Koch, James L.(2018), Building a Successful Social Venture,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Coleman, Susan and Kariv, Dafnarlson(2015), Creating the Social Venture, New York, NY: Routledge.

Grassl, W.(2012), “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 A Design Approach to Hybridity”, *ACR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Perspectives*, 1(1), 37~60.

Kazanjian R. K.(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257~279.

Morgan, J. P.(2010), Impact Investments: An Emergent Asset Class, Global Research.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철도공단, <https://www.kr.or.kr>.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꿈틀협동조합, <https://ccumtl.com>.

넥스트로컬, <https://seoulnextlocal.co.kr>.

동구밭 팩토리, <https://donggubat.com>.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jeon>.

루트임팩트, <https://rootimpact.org>.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https://www.reb.or.kr/r-one>.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서울소셜벤처허브, <https://svhc.or.kr>.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https://so-lan.sd.go.kr>.
서울창업허브 성수, <https://hubseongsu.startup-plus.kr>.
소셜벤처성장플랫폼, <https://www.svgground.co.kr>.
소셜벤처스퀘어, <https://sv.kibo.or.kr>.
소셜벤처 용어사전, <http://socialventuredic.org>.
소셜벤처지원플랫폼, <https://www.sd.go.kr>.
소풍벤처스, <https://sopoong.net>.
언더독스, <https://www.underdogs.co.kr>.
오마이컴퍼니, <https://www.ohmycompany.com>.
이시스 임팩트 스테이지, <https://impactstage.igisam.com>.
임팩트스퀘어, <https://www.impactsquare.com>.
임팩트얼라이언스, <https://impactalliance.net>.
윙윙, <https://wingwing.net>.
주거복지재단, <https://hwf.or.kr>.
(주)더함에스디, <https://deoham.co.kr>.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www.ncsd.go.kr>.
코액터스, <https://www.coactus.co.kr>.
크레탑, <https://www.cretop.com>.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https://www.poscoimp.com>.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https://www.changeupground.com>.
프로젝트루프, <https://projectloopsocial.com>.
하나금융그룹 하나 파워 온, <https://hanapoweron.com>.
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s://www.kvca.or.kr>.
한국벤처투자, <https://www.kvic.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혁신금융, <https://ksifinance.com>.
한국성장금융, <https://www.kgrowth.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국지속가능소셜벤처협회, <https://www.sdgsv.org>.
함께일하는재단, <https://hamkke.org>.
행복나눔재단, <https://skhappiness.org>.
헤이그라운드, <https://www.heyground.com>.
Exactitude Consultancy, <https://exactitudeconsultancy.com>.
GenstarMate, <https://www.genstarmate.com>.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https://www.h-ondream.kr>.
IBK창공(創工), <https://www.ibkchanggong.com>.
ICT 규제샌드박스, <https://www.sandbox.or.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KT&G 상상플래닛, <https://www.sangsangplanet.com>.
K-water 물산업플랫폼, <https://www.kwater.or.kr/wis>.
LAR, <https://lookaround.life>.
LG소셜캠퍼스, <https://www.lgsocialcampus.com>.
LH 소셜벤처, <https://lhsv.or.kr>.
MYSC, <https://mysc.imweb.me>.
Social Enterprises Alliance, <https://socialenterprise.us>.
SOVAC, <https://socialvalueconnect.com>.
The GIIN, <https://thegiin.org>.
THE VC, <https://thevc.kr>.
Y Combinator, <https://www.ycombinator.com>.

ID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운용실태 인식 및 발전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LH는 2015년부터 소셜벤처 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LH 소셜벤처 지원사업(LH Social Venture: LHSV 약칭)을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 정책 및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ESG 경영선도를 위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진단 및 평가 연구(가칭)"를 수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중간 점검차원에서 현행 LHSV 운용실태 인식 파악 및 발전방안을 수립코자 FGI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번 설문조사 응답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질문에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더라도 LHSV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설계 및 지원방향 등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일이오니 조사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파트(2 PART)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입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30~60분 내외입니다. 혹시 설문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별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오직 통계처리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의 학술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LH 토지주택연구원

문의처

조사담당 : 송기욱 수석연구원

☎ 전화 : 042-866-8513

✉ 이메일 : skw81@lh.or.kr



■ 귀하의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인적사항	회사명		성명	
	부서명		연령	
	직위		연락처	
	업력(년)		이메일	

■ 설문응답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안내드립니다.

1. 설문조사에 앞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상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2022 LHSV 공식 발간물(Leaflet)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조사에서 자주 언급된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이하 "LHSV") 단어는 간략히 LHSV로 약칭합니다.
3. 객관식 문항은 아래 보기 중 본인 생각과 가장 일치한 숫자를 기입하거나,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4. 다소 개방형 문항이 많더라도 모든 응답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되, 가급적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주요 키워드 위주로 최대 100글자 이내 한정)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주관식 문항에서 괄호안의 내용은 별첨 예시)
5. 만약 설문응답 과정에서 결측값 오류나 불성실답변(예. 모름, 해당없음) 발견 시, 추후 의견수정·보완의 별도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 LHSV 인식 및 운용실태 진단

문1. (현안이슈 및 트렌드) 국내외를 통틀어 소셜벤처 업
 향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슈 및 메가트렌
 드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1. (대외 인지도) 업계에서 LHSV가 대중적으로 알
 려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들어본 적 있음
 ④ 조금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압

문2-2. (이미지) 통상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니까? ()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3. (사회공헌 지출규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
 행과 공유가치 창출(CSV) 면에서, LH 사회공헌 지
 출규모('22년 212억원, 매출액 0.01%)는 어떻습
 니까? ()

- ① 매우 적음 ②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문4. (내부 프로그램 중 위상) 매년 LH가 연례적 행사로
 펼쳐온 다수 사회공헌 프로그램(봉사활동, 노후주
 택 개보수, 아동급식 지원) 중 LHSV 위상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5. (취지 공감도) 공기업 LH, 소셜벤처가 공익·사업성
 동시 추구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착안한 LHSV 취지
 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

- ① 전혀 공감하지 않음 ② 별로 공감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공감 ⑤ 매우 공감

문6-1. (정책적 지원 필요성) LHSV에 계속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합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 ⑤ 매우 필요

문6-2. (이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7. (중요도) LH 조직비전(국민중심 경영실천)과 사업
 영역(토지·주택·도시)을 고려할 시, LHSV는 얼마
 나 중요합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중요 ⑤ 매우 중요

문8. (수행성과) 청년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표에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LHSV로 인한 종합 수행성과는 10점 만점 중 몇 점입니까? ()점

문9. (한계점) LHSV 제도 운용상의 소셜벤처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점 혹은 기존 사업모델이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0. (ESG 수단) 향후 LHSV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ESG 경영실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상합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렇음 ⑤ 매우 그렇음

II. LHS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문11-1. (예산편성 방향) 기업경기 침체와 LH 재정건전성 위협의 대립 구도하에, 내년 LHSV 연간 지원금 수혜규모('22년 8억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

- ① 매우 축소 ② 약간 축소 ③ 동일 유지
④ 약간 확대 ⑤ 매우 확대

문11-2. (팀당 지원금) LH 소셜벤처 선정기업 당 분야별 연간 지원금 지급(창업지원: 2천만원, 성장지원: 5천만원)은 최대 얼마가 적정합니까?(예,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경영대회, LG 소셜캠퍼스 2~3천만원/社)

창업지원 ()만원 | 성장지원 ()만원

문12-1. (경쟁력) LHSV만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자 경

쟁력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2-2.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요소) 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 창업기업지원 사례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우수 프로그램 명칭과 성공적인 벤치마킹 요소가 있다면, 각각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3. (브랜드) LHSV 고유 정체성을 드러내고 명료한 메시지로 전달로 대중에게 쉽게 각인되는 신규 브랜드(BI) 및 슬로건 공모를 제안한다면, 무엇이 좋습니까?(예, IBK 창공: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위해)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4-1. (체계 정비 필요성) 현행 LHSV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 ⑤ 매우 필요

문14-2. (이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5. (소셜벤처 명칭)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에 정식 입

법화된 소셜벤처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칭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6. (추구가치) 소셜벤처는 경제적·사회적가치의 이중 속성을 내포하여 종종 공존·충돌합니다. 아래 제시된 보기들 중 수혜기업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사회적 가치 ② 수익성 ③ 혁신성 ④ 융합성

문17.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의 경제적 이윤발생 시 지역사회 기부,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권장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윤 중 ()%

문18-1. (사업분야) 현재와 같이 소셜벤처 업력·대상에 따른 창업(Start-up), 성장지원(Scale-up) 분야의 이원화된 형태로 선발모집이 충분합니까? ()

① 그렇음(☞18-2로 이동) ② 아님(☞18-3로 이동)

문18-2. (분야별 비중) 성장지원(25%) 보다 정책적 지원 대상인 초기 창업지원(75%) 분야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적당한 비율은 얼마입니까?

☞ 창업지원 ()% : 성장지원 ()% (합계: 100%)

문18-3. (신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별도트랙(Track) 단계를 추가로 신설해야 합니까?(예. 5060세대 퇴직자 등 신증년층 재창업 트랙)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19. (소셜미션 영역) LH 핵심가치 및 업(業)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 아래, 소셜벤처가 역량을 집중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중점 사회문제 해결영역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0-1. (모델 분류기준) 소셜벤처의 사회혁신 사업모델 유형을 두 축에 따라 상호배타적 그룹(2×2 매트릭스)으로 분류 시, 범용적인 판별기준은 각각 무엇입니까?(예. 사회적 가치 대상-기술 활용도)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0-2. (특화모델) 시대적 요구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LHSV 특화모델을 신(新) 가치창출형(예. ESG 문제해결, 임팩트창출, 로컬기반, 혁신기술, 공간환경 개선 등)으로 도출한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1. (ESG 연계)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ESG 경영 관점에서 LHSV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를 어떻게 연계 추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2-1. (핵심성과지표) 소셜벤처 기업성과를 견인하며,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핵심지표(KPI) 후보군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2-2. (보조지표) 사회성과에 관한 소셜임팩트(탄소저감, 빈곤층 소득증대,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등)의 현실적인 측정가능성 및 도입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3. (성과제고) LH 소셜벤처 기업은 금전적 지원혜택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4. (심사기준) LH 소셜벤처 선정 심사기준(소설미션, 문제인식, 해결방안, 기대효과, 실행전략, 수행역량)으로써 주요 고려사항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여부 항목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5. (지원책 보완점) 소셜벤처 육성 및 성장과 관련해 LHSV는 창업자금, 공간, 교육·컨설팅, 클라우드

펀딩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밖에 지원이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6. (기대효과) LHSV 추진으로 인한 최종 수요자(소셜벤처)가 아닌 지원기관(LH)의 예상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7. (공적 역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력자로서, LH가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8. (민관협력) LH가 소셜벤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민관 파트너십 관계 구축과 유기적 연대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는 협력기관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29. (홍보방안) LHSV를 통해 대국민에게 소셜벤처 기업들과 함께 이룩한 사업성과 공유 및 사회공헌활동 홍보·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문30. (기타) 마지막으로 향후 LHSV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이나 기타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최대 100글자 이내로 작성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